



7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7호

(루계 제 741 호)

차 례

우리의 전승절이여	3
백두산의 사슴들	4
거룩한 그 손길 우리르며	5
추억의 서정과 그리움의 세계	5
칠월 초여드레날	7
애국의 뿌리 나는 되리라	7
믿음과 사랑의 철학에 대한 숭고한 예술적 화폭	8
승리의 대를 이어	14
새벽산책	15
작은 조각돌	23
이 손도 맡겨보네	23
봄날의 들길우에 해저 무는데	2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25
탁월한 혁명가의 생애앞에	25
내 삶의 기슭은	26
위대한 축복속에 날으는 별	27
사랑의 보슬비	27
아, 룡악산	28

경구, 격언	28
주체문학의 대강	29
불멸의 자욱으로 이어진 위인의 하루	29
황금산기슭의 추억	30
나에게 구령을 쳐달라	34
담시는 담시다와야 한다	35
병사의 길 외 2 편	38
우리의 별이 빛난다	39
조선속담	39
조선의 봄하늘에 위성이 떴다.....	40
고향처녀의 사진	40
민속거리에서	41
상으뜸농사.....	44
그의 소원과 수첩	45
《물씨름》 《돌씨름》	46
별들이 속삭인다	47
폭풍의 다리 외 1 편	56
날마다 걷는 새벽방목길은 외 1 편.....	57
침략의 무리들아 날뛰지 말라 외 1 편	58
책장사군.....	58
나의 불빛	59
고지의 남새밭	76
수수께끼	76
소설 《축빈설》	77
소설 《정자기》	78
개와 《개》	79
《함정골 양키호박》 대풍들었소.....	80

우리의 전승절이여

김 춘 길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나
산촌의 작은 마을 집집에도
람홍색기발을 높이 띄워놓고
환희에 젖은 뜨거운 눈길들이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는
전승절 우리의 명절이여

앞가슴에 가득히 훈장을 단 로병들도
빨간 령장의 나 어린 병사들도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못 잊을 그날의 광장으로 달려가
환히 웃으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 그리여라

우러르는 가슴마다 뿔뿔이는것은
수령님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수령님 계시여 높이 떨친
우리의 운명 민족의 존엄

준엄한 전쟁을 승리로 빛내시려
불같이 자신의 심장을 태워오신
수령님 애국헌신의 그 로고가 떠올라
가슴은 찢어터져 젖어들어라

정녕 잊을수 없는 그이의 모습이여
철교의 아슬한 침목을
한계단 한계단 넘어 전선으로 가실 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그 길에서 수호되고
포악한 미제의 머리우에 멸적의 포화가 쏟아
졌거니

여기는 최전선이라고

더 나가실수 없다고 막아나서는
나 어린 처녀의 간절한 청 마다하시고
그날에 수령님 찾으신 곳은 전사들이 싸우는 고지
수령님은 언제나
전사들이 싸우는 최전방에 계시었어라

하늘과 땅이 불타던
엄혹한 전쟁의 나날에도
전사들과 인민들은 수령님 한분만을 굳게 믿어
불사신처럼 일어나 원쑤와 싸웠거니

우리 수령님
그이의 존함은 곧 승리였다
자애론 그이의 영상은
무적의 힘의 원천이었다
하여 전사들은 수류탄을 입에 물고
원쑤의 땅크밀에 뛰어들면서도
승리한 조국의 무궁번영을 길이 믿었거니

정녕 전승절 우리의 7.27
흐르는 세월속에 영원한 우리의 명절이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였기에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오늘이 빛나고
승리자들의 추억은 이렇듯 값높아라

아 수령님의 전승업적 대를 이어 빛내가시는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시여
조선은 영원한 승리자로 살리라
그이 오늘도 이어가시는 선군장정으로 하여
우리의 전승절 7.27은
승리한 인민의 력사에 빛나리라



백 두 산 의 사 숨 들

세상에 글을 아는 사숨이 있다고 하면 누구든 믿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믿지 않으려 해도 글을 아는 신령스러운 사숨을 실지 제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다.

컬차를 타고가다가 눈썹리 아득한 백암령을 넘어 군소재지에 도착하면 첫눈에 안겨오는것이 서북쪽 백두산방향의 산비탈면에 글자별로 세워진 커다란 구호이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 이야기는 바로 이 글자별 구호에서 있는 사실이다.

주체83(1994)년 7월 27일이였다.

백암읍협동농장 농장원 리영금녀성은 점심밥을 드는 등마는등하고는 상을 물리자바람으로 집을 나섰다. 리영금은 지금까지도 아버지수령님을 잃은 상실의 아픔으로 하여 도무지 음식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생존시에는 미처 몰랐으나 아버지수령님을 영결하고보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것처럼 허전하여 잠시라도 일손을 잡지 않고서는 못 견딜 지경이였다.

읍거리를 벗어난 리영금은 구호가 서있는 경사지에 접어들었다.

한참 올리걸던 그는 구호근방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저 아래에 대여섯명의 분조원들이 올라오고있는데 그들과 함께 가려는 생각에서였다. 시간은 낮 1시 30분인데 그들도 시간을 앞당겨 일하러 나오는것이였다.

그런데 가쁜숨을 내쉬며 올라오던 그들은 웬일인지 구호쪽을 가리키며 저마끔 살며시 그 자리에 앉는 것이였다. 영문을 모르고 뒤를 돌아본 리영금은 눈앞에 나타난 뜻밖의 광경에 놀라 손을 가슴에 얹었다. 우람진 나무아지같은 뿔을 머리에 띤 세마리의 말사숨이 구호의 존함글자 근처에 나타난것이였다. 리영금도 그 자리에 앉아 숨을 죽이고 사숨들의 거동을 살폈다.

그는 첫순간 말사숨들이 먹이를 찾아 여기까지 우연히 내려온것으로 짐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사숨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글자 주위를 도는것이 아닌가. 한

바퀴 돌고난 사숨들은 이어 두고패째 존함글자의 주위를 따라 돌고있었다.

유순하고 아름다운 커다란 눈들에는 애수가 비껴있는듯 했다.

세고패를 돌고난 말사숨들은 각기 《첫째》, 《둘째》, 《셋째》의 순위대로 신통히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 세 글자앞에 앉았다.

리영금은 너무도 신기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하다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존함글자주위를 세바퀴 도는데 15분이 걸렸다.

그러고보면 말사숨들은 글을 아는것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쩌면 저리도 신통히 제자리를 찾을수 있겠는가.

드디어 낮 3시에 《첫째》가 불쑥 몸을 일으키자 《둘째》와 《셋째》가 함께 따라일어섰다. 이어 말사숨들은 백두산쪽으로 사라졌다.

1시간 15분간을 존함글자앞에 까딱않고 앉아있었던 것이였다.

말사숨들이 사라지기 바쁘게 분조원들이 달려올라와 리영금을 에워쌌다.

한 처녀가 그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어쩌면 말사숨들이 그렇게도 명물일까요?》

리영금은 백두산쪽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누구에게라없이 말했다.

《저 사숨들은 백두산에서 여기로 달려왔을거예요. 백두산에서 사는 사숨이 백두산의 주인이신 우리 수령님의 존함을 모를리 있겠어요.》

리영금은 멀리 평양쪽하늘가를 생각깊은 눈빛으로 바라보고나서 말을 이었다.

《우리 수령님처럼 위대하신분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기에 말 못하는 사숨들까지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글자만은 알고있지 않아요. 말사숨들은 백두산의 〈호랑이〉로 이름을 떨치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차마 못 잊어 전승기념일인 오늘 추모하러 왔다간거예요.》

세마리의 말사숨들은 이틀후인 7월 29일에도 나타나 27일과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사라졌다.

거룩한 그 손길 우러르며

김 창 벽

경모의 뜨거운 숨결 흐르는
7월의 만수대언덕—
삼가 거수경례 올리며
젖어드는 눈길들어 우러르니

아 어버이수령님
거룩하신 그 손길 높이 드시어
가리키시는 곳은
우리 혁명이 폭풍쳐가는
휘황한 미래

이 땅우에
이 하늘아래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제도 오늘도 떠실린 위대한 손길

저 손길에 있었구나
조국수호성전에 목숨바친
이름없는 전사의 살붙이인 이 몸을
혁명학원으로 불러주시고
총대전사로 키워주신 그 사랑도

위대함이란 무엇인지
그 심원한 세계가 무엇인지
이 나라 인민의 운명과 더불어
내 작은 운명에도 닿아있을것임을
다시 새겨안노니

못 잊을 추억 갈마든
이내 가슴에 울려오누나
위대한 **김정일**동지 모시여
조국의 래일은 더욱더 휘황하다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말씀 그 음성

우렁이 보여오누나
수령님 축복의 손길 닿은 곳에
그렇듯 빛나는
장군님 안아오시는 강성대국의 그 웅자
2012년 태양절 그밤에 솟아오를
축포의 불보라...

수령님 영생을 바라며
간곡한 그 유혼 길이 받들어
조국의 운명이신 우리 장군님
결사옹위해갈 총대의 맹세를 다지며
삼가 우러르는 수령님 그 모습이어
거룩한 그 손길이어

경모의 숨결 대하처럼 굽이치는
7월의 만수대언덕—
심장의 웨침을 누리를 향해 터치노라
백두의령장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어버이수령님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단 평

추억의 서정과 그리움의 세계

—가요 《수령님뜻 꽃피워가네》의 가사형상을 두고—

정 광 수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을 가슴마다에 안고살며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뜻을 이 땅우에 꽃피워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바쳐진 그리움의 송가가 울

린다.

최근에 가요로 형상된 《수령님뜻 꽃피워가네》(리지성 작)는 우리 군대와 인민 누구나 안고사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그리움의 세계를 추억의 서정으로 형상한 작품으로서 우리 문단에 자

기의 얼굴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형상하려면 혁명전사와 인민에게 베푸시는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가요 《수령님뜻 꽃피워가네》의 가사는 구절구절마다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느끼게 한다.

1. 비오는 새벽에도 눈오는 밤에도
온 나라를 찾으시던 어버이수령님
오늘도 자애로운 그 영상 정녕 못 잊어
선경마을 펼치며 수령님뜻 꽃피워가네
2. 수수한 농립모를 즐겨쓰시고
포전길을 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
오늘도 그 로고 가슴에 뜨겁게 어려
황금나락 가꾸며 수령님뜻 꽃피워가네
3. 우리를 더 잘살게 하여주시려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
영원한 그 사랑 인민은 심장에 안고
장군님을 받들어 수령님뜻 꽃피워가네

아 수령님뜻 꽃피워가네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순간의 휴식도 없이 이어오신 위대한 헌신의 그 자욱우에 우리의 행복한 삶이 있음을 가요의 가사는 전체 시형상속에서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을 가슴뜨거이 돌이켜보며 한없는 그리움의 세계속에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시대의 기본흐름과 인민대중의 정서적지향을 반영한 주도적감정을 이룬다.

가사에서는 이러한 전인민적감정을 형상함에 있어서 그 어떤 미사려구나 분식도 없는 구체적이고 생동한 정서속에서 추억의 서정을 펼쳐고있다.

가사의 《비오는 새벽에도 눈오는 밤에도/온 나라를 찾으시던 어버이수령님》, 《수수한 농립모를 즐겨쓰시고/포전길을 걸으시던 어버이수령님》과 같은 구절들은 진실하면서도 생동한 생활정서속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며 가요의 가사가 그대로 시로 되게 하는 시적화폭이다.

우리를 더 잘살게 하여주시려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은 가사의 구절구절들에 응축되어 있다.

독자들은 한편의 정교한 시인 가사를 읊어보며 거기서 단순히 비오는 새벽과 눈오는 밤, 험한 포전길만 보는것이 아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 방방곡곡의 공장과 농어촌마을들을 진논까비 날리는 날이나 찌는듯한 폭양이 쏟아지는 날이나 쉬임없이 찾고찾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며 그 로고를 가슴에 새기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더 잘 받들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인민들의 불타는 지향을 가사에서는 《선경마을 펼치》고 《황금나락 가꾸》며 《장군님을 받들어 수령님뜻 꽃피워가네》로 형상하였다.

이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사는 우리 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을 아무런 꾸밈도 없이 진실하게 형상한것이다.

구절구절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맥맥히 흐르는 가사의 어휘표현들은 매우 소박하면서도 생활적이다.

가사의 어휘와 표현은 하나하나가 모두 누구나 다 쉽게 알수 있는 생활적이고도 입에 인차 오르게 되는 어휘와 표현들이다.

또한 훌륭히 조화된 시형상속에서 그리움의 서정을 양양시키는 날개로 되는 가사의 운물조직수법은 정서적내용을 선률로써 충분히 표현할수 있게, 다시말하여 작곡가의 악상을 계발시킬수 있게 음악성을 보장하고있다.

시문학의 음악성은 글자수나 맞추고 시줄을 적당히 끊어놓는것으로써는 살릴수 없다.

곡을 붙여 노래로 부를것을 전제로 하는 가사문학인 경우 음악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가요의 가사에서는 서정과 운물의 유기적인 결합으로써 높은 음악성을 보장하고있다.

참으로 가사 《수령님뜻 꽃피워가네》는 전체 시형상을 통하여 추억의 서정속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화폭을 펼쳐보임으로써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가요의 가사는 날과 달이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해만 가는 그리움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수령송가로서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칠월 초여드레날

김명철

동녘하늘이 흰히 들뜨는구나
종달새도 곧추 날아오른다
날이 밝는가보다
어서 방안의 조반상을 치우고
부엌에선 설것이를 끝내야 하겠다

오늘은 양력으로 칠월 초여드레날
우리 농민들과 함께
눈비를 다 맞으시며
들을 가꾸시던 어버이수령님 동상을
찾아가 뵈옵고 인사를 올려야지

말이야, 너는 어서
저 다리 건너 논에 나가보아라
밤새 댄 물이 맞춘한가를
그래야 마음 가벼이
수령님앞에 나설것 아니나

샘물들 시험포전엔
벌써 이삭패는 포기들이 있다던데
새 며느리 너도 어서 가보고 오너라
수령님 아시면
무척 기뻐하실게다

막내가네 분조의 노루재등에
덧거를 주지 못한 이랑이 있다면
우리모두 나가서 마저 묻고 오자꾸나
연대봉기습의 다락밭 돌담도
아침결에 얼른 다시 쌓고 가자꾸나

나라의 하많은 일들중에서도
농사를 제일 큰 일로 여기신분
그래서 가시는 날까지
불별 따가운 저 들길을
건고걸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농사를 잘 지어아
인민생활이 높아지고
쌀을 많이 내야
이 땅 어디 가나
행복이 칠—칠 넘쳐나기에

어버이 우리 수령님
그 어떤 꽃이나 노래보다도
푸름새 질은 이랑
실한 곡식들의 설레임소리를
더 좋아하시고 즐겁게 들으셨나니

하늘가득 온통 노을이 퍼지는구나
종달새도 구성지게 우짖는다
삼복철에 드는가보다
어서 논배미마다 물을 깊이 잡고
강냉이 북주기를 서둘러야 하겠다

오늘은 칠월 초여드레날
수령님이 그리워 사무치는 정을
이랑마다 포기마다 다 쏟아부어
곡식들을 알뜰히 매가꾸자
농민인 우리가 꽃다발보다도
풍요한 들을 안고 수령님을 뵈와야지

가사

애국의 뿌리 나는 되리라

류정실

아름드리 거목이 하늘에 아지쁠 때
뿌리는 땅속으로 더 깊이 내리어라
조국이어 그대가 거목이면 나는 그 뿌리
그대위해 이 한몸 웃으며 바쳐가는
아, 애국의 뿌리 나는 되리라

눈비바람 몰아쳐 잎새는 떨어저도
뿌리는 끄떡없이 거목을 받쳐주네
조국이어 그대가 거목이면 나는 그 뿌리

그 누가 몰라줘도 한모습 변함없는
아, 애국의 뿌리 나는 되리라

사랑하는 조국에 자기를 다 바치는
뿌리와 같은 삶은 후세에 길이 남네
조국이어 그대가 거목이면 나는 그 뿌리
내 나라 강성대국 천만년 받들어갈
아, 애국의 뿌리 나는 되리라

믿음과 사랑의 철학에 대한 숭고한 예술적 화폭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편소설집(2)

《거창한 흐름》을 두고 —

김용부

선군조선의 높은 봉우리에 서서 저 멀리 조선혁명의 첫 기슭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용융한 흐름을 이루고 끝없이 펼쳐진 장엄한 대하를 격정에 넘쳐 굽어보느라면 혁명의 탁월한 수령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숭엄한 모습이 우렁치며 떠올라 우리모두의 가슴을 끝없이 격동시킨다.

거창한 대하도 샘물이라는 시원이 있고 수많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내물이 합쳐져 장엄한 대하의 흐름을 이룬다.

혁명도 마찬가지다.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자면 수억만 인민대중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승리와 영광에 넘친 조선혁명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수천만의 인민대중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트.ㄷ》의 기발이 나뭇기던 화전의 기슭을 떠나 항일대전의 눈보라만리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왔고 조국해방전쟁의 불바다만리길을 거쳐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를 빛나게 넘어왔으며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대국건설로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치고있다.

이처럼 거창한 력사의 대하를 이끄신분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편소설집(2)《거창한 흐름》은 곡절도 많고 시련도 많던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철학세계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그려낸 주옥같은 단편소설들을 묶고있다. 작품집은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더더욱 절절한 그리움속에 젖어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환희와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지적사랑과 위대한 인간애는 정지를 모르는 영원속에서 빛난다고 뜨겁

게 속삭여주며...

×

단편소설집에 실려있는 단편소설들에서 그리고있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과 빛나는 사적들은 실로 방대하고 그 포괄범위가 매우 넓다. 항일대전과 해방 후 새 민주조선 건설시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시기, 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와 사회주의전면적건설시기를 거치는 거창한 력사의 흐름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과 위인의 숭고한 인간적품모가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작품들이 담고있는 생활자료들은 넓고 방대하지만 모든 작품들이 다 하나의 문제점에 초점을 박고있다.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초점은 어디에 모이고있는가. 그것은 바로 장엄한 대하가 되어 거창한 흐름을 이루고있는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의 비결은 어디에 있으며 그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의 기초에는 무엇이 놓여있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새 민주조선 건설로선과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있는가, 이것이 바로 모든 단편소설들에 관통되고 일관하게 제기하고있는 기본문제이다.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은 작품에서 제기한 이 기본문제를 해명하면서 단순히 사건과 사실들을 실화적으로 펼쳐놓고 부각시키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열렬한 사랑과 매혹, 뜨거움과 애착을 가지고 시인들처럼 때로는 격조높이, 때로는 소박하게 노래부르고있다. 칭송과 테찬의 주선물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신 믿음과 사랑의 철학세계였다. 믿음과 사랑의 철학,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이것이 바로 조선혁명이 오로지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할수 있었던 천하의 비결이었고 승리의 열

쇠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처럼 믿음의 정치, 사랑의 정치를 베푸시는 인민의 수령은 세상에 없다. 문학작품에서는 이 위대한 정치를 생활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깊이 파고들어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내야 한다.》

세계 로동계급의 운동사에는 위인으로 이름떨친 수령이 많았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믿음의 정치, 사랑의 정치를 베푸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친근한 인민의 수령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첫기슭을 떠나실 때부터 하나의 전략, 하나의 전술을 세워도 언제나 인민을 하느님처럼 믿으시고 인민의 리익과 행복,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첫자리에 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모든 전략과 전술, 모든 정책과 시책은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것이였으며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것이였다.

여기에는 지난날 나라를 잃고 남에게 갖은 천대와 착취를 받으며 값없이 살아오던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와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단편소설집 《거창한 흐름》에 오른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은 한평생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길에서 한생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사랑과 믿음의 철학을 예술적으로 빛나게 확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푸신 믿음과 사랑의 정치는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작품집에 오른 단편소설들만 따로 살펴보면 그 표현을 세가지로 구분하여볼수 있다.

그 하나는 모든 전략과 시책의 출발점은 인민의 리익과 행복에서 시작되였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언제나 군대와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에 의거하여 작전을 펴고 혁명을 전진시키였다는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친어버이심정으로 주시수 있는 모든 사랑, 베푸실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안겨주시였다는데 있다.

언제나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전략과 전술을 세우시며 로선과 정책을 펴나가는것은 우리 수령님의 철석의 신념이였고 불변의 의지였다.

작품집에 오른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은 우선 이 위대한 진리를 해명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단편소설 《어느 한 령마루에서》(리영규 작), 《옛정》(백남룡 작), 《바라시는 마음》(최상순 작), 《해빛은 끝없이》(김동호 작), 《갈새들이 날아든다》(최봉무 작) 등 작품들에서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철학세계, 믿음과 사랑의 정치방식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단편소설 《어느 한 령마루에서》는 탁월한 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망원전술과 매복전으로 왜놈들을 격멸소탕하는 통쾌한 장면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놓고있다. 작가는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법을 보여주는 전투장면에만 시점을 박지 않았다. 작가의 시점은 감동과 흥분에 떨면서 작전지역에 있는 평범한 농가집에서 벗어날줄 모른다.

전찬호중대장은 사령관동지의 망원전술에 걸려 저희들끼리 싸우다 기진맥진한 놈들을 마지막으로 소탕할 매복지역을 고른다. 지형은 나무랄데없이 좋았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매복지를 변경시키신다. 원래의 매복지보다는 훨씬 못하다. 그 이유는 바로 매복권안에 초가집 한채가 있기때문이었다. 왜놈들의 눈을 피하여 산간오지에 초가집을 한채 짓고 가난속에 살아가는 조선농민의 정상이 가슴에 걸려 마음쓰린 사령관동지이시였다. 격전속에서 저 집이 불타면 당장 겨울이 다가올텐데 어디 가서 산단 말인가.

가슴아픈 사색속에서 생각을 굴리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대답하게 작전지역을 변경시키는 용단을 내리시고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 로인과 그의 가족에게 옷감을 몸소 주신다. 평범하고 수수한 한 가정의 리익과 안전을 지켜 피어린 작전지역도 서슴없이 바꾸시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의 숭고한 세계가 있다.

우리 수령님의 다정다감하신 인정의 세계와 한없이 소박하고 소탈하신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한 단편소설 《옛정》에서는 압록강반의 어느 한 객주집에서 보름동안 사건 어릴적 동무를 만나시어 겸소한 저녁식사를 하실 때 맛보신 된장맛을 두고 비경지를 개간하여 콩밭을 일궈내 대한 중요한 정책적문제를 제기하시며 《갈새들이 날아든다》에서는 오춘삼로인이 가꾸는 작은 갈밭과 그가 만들어파는 돛자리를 보시고 압록강기슭과 조국의 모든 강하천에 갈숲을 무성하게 조성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특색있게 형상하고있다.

추운 겨울날 아이들의 군사놀이를 보시고도 총알이 나가는 나무총, 달리는 자동차놀이감, 뽀뽀 울며 걸어가는 오리,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만들어 학령전어린이들의 지능교육에 이바지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

육사상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창조한 단편소설 《해빛은 끝없이》, 산골마을의 한 처녀가 돼지를 길러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펴이게 하려는 참다운 애국심과 이악성을 보시고 몸소 양을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인민이 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게 만들면 내 동무에게 모자를 벗고 절을 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준 단편소설 《바라시는 마음》, 이 모든 소설들은 우리 인민들의 리익과 행복을 마련하는데 기본을 두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펴나가는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사상을 뜨겁게 묘사하고있다.

작품집에 오른 단편소설들은 또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시고 언제나 군대와 인민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독특한 정치철학을 그리는데 형상의 각광을 집중하고있다.

단편소설 《성장》(김진성 작)은 해방직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제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그리고있다.

해방직후 우리에게서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원래 산업기초가 허약한데다 패망한 일제는 모든것을 파괴하고 달아났다. 무엇을 믿고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겠는가. 믿을것은 오직 해방된 우리 인민의 뜨겁게 분출하는 열정이었고 해방의 감격과 환희였으며 주인된 자각과 창조의 정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하고싶은 일은 힘들지 않다고, 민주조선건설을 위하여 일하니 성수가 난다고 하던 한 목탄차운전사의 말을 믿으시고 산업운수복구건설의 총계획도를 작성하시였다. 일꾼들이 만들어진 생산계획지표는 일제시기의 최고량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계획을 전면 부정하시고 그보다 훨씬 높은 아름답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시였다.

세멘트 한그람, 벽돌 한장 없는 조건에서 어디에 기초하여 이처럼 방대한 계획을 세우시였는가. 그것은 인민의 힘이었다. 해방의 기쁨을 안고 새 민주조선 건설에 떨쳐나선 무한대한 우리 인민의 정신력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의 철학은 조국해방전쟁주체의 작품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숭엄하게 펼쳐진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미제가 강요한 이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철의 의지와 담대한 배짱, 적극적인 공격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기초하고있었다. 단편소설 《공격》(박운 작)이 제기한 예리한 문제점도, 작가가 호소하고있는 사상미학적주장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편소설 《거창한 흐름》(리장후 작)은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있다.

적들의 무력침공을 격퇴하면서 반공적으로 넘어간 최무혁의 사단앞에는 남진강도하라는 혈치 않은 과업이 나섰다. 도하해야 할 강 대안에는 적들의 무력이 집결되어있다. 수많은 화점과 포화력이 집중되어있는 적측대안으로 오른다는것은 수많은 희생을 예상해야 한다. 희생을 피하자면 우회해야 한다. 그런데 우회해야 할 익측린접점은 폭로되어있다. 또 우회는 여러번 써먹은 전술이다. 전쟁도 예술이다. 예술에서 반복은 죽음이다.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오직 한길밖에 없다. 그것은 강 맞은켠에 있는 벼랑을 돌아올라 적들의 화력진지와 지휘부를 소멸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나 그 벼랑으로 오른다는것은 우리도 적들도 상상할수 없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전사들의 가슴속에 뚫어버리는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불타는 애국심과 용감성을 믿으시고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그곳, 칼벼랑을 극복할 방안을 내놓으신다. 그것도 증강된 한개 중대로 벼랑을 돌아올라 적들의 지휘부, 통신소, 화점, 포들을 까부시고 사단의 도하를 안전하게 보장할 작전을 세우신다.

한개 중대의 적은 역량으로 적들을 제압할 대담한 작전앞에 사단장 최무혁은 의혹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심에 넘치여 말씀하신다.

《무혁동무, 나는 수자를 가지고 혁명을 계산해본적이 한번도 없소. 수자는 수자에 지나지 않소. 원래 산술적대비는 우리 식이 아니요. 동무들은 먼저 이 전쟁에 참가한 병사들의 심장을 봐야 하오. 우리 병사들은 그놈들 열놈, 백놈에 비길수 없는 큰 심장을 지니고있소!》

군사교범이 아니라 병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기초하여 작전을 펴시는 수령님, 우리 수령님의 련전련승의 비결과 불패의 힘의 원천은 바로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작전문제와 인간문제를 떼어놓고 생각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으시였다. 수령님의 작전은 대포나 총에 의해서가 아니라 병사들의 심장에 기초하여 세우신 전략이고 전술이였다.

병사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기적을 낳았다. 수령님의 뜻대로 서병철중대는 날새도 오르기 주저하는 천길 칼벼랑을 극복하고 적들의 지휘부와 화점, 포들을 장

쾌하게 까부시었으며 남진강도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단편소설 《열두시간》(전창철 작)도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의 철학을 열정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여러차례의 방어전으로 적지 않은 력량이 소모된 인민군 한개 연대가 방어하고있는 철원 서쪽의 257.9고지에 미제 제7보병사단을 비롯한 3개의 정예사단과 수백대의 비행기 그리고 수많은 탱크와 포들을 동원하여 매일 아침 5시 단숨에 이 고지를 점령하려는 적들의 정보를 입수한것은 오후 5시였다. 이제 12시간의 여유시간밖에 없다. 가까운 곳에서 끌어올 예비병력도 없다. 보병의 걸음으로는 어렵도 없다. 어떻게 할것인가,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은 기적을 기다리며 연필로 작전타를 조용히 두드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만 우러러보았다.

드디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눈길도 아니라 하늘끝에라도 기어이 갈것》이라는 확고한 신념밑에 포병부대들을 기동시켜 새벽 4시까지 도착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신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에 고무된 포병전사들은 눈에 덮인 험한 산밭을 헤치고 4시까지 도착하여 적들에게 무자비한 포화력을 들썩였다. 이것이 후일 세계전쟁사에 큼직하게 아로새겨지고 영화화면에도 여러차례 옮겨진 《정형고지》전투였으며 세계면전에서 무참히 패하고 망신만 툇득히 당한 미군의 《정형고지》전투씨나리오였다.

군대와 인민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이 단편소설 《구룡연의 단풍》(조상호 작)의 주요인물인 김월송선생의 애국적장거도 낳았고 그 믿음이 있어 《평양은 노래한다》(고병삼 작)의 작곡가 박우성의 랑만적인 선율과 조선인민군이 부르는 승리의 대합창이 하늘땅을 진감시킬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사랑과 믿음의 철학이 탁월한 전법도, 불가능을 모르고 기적만을 안아오는 경제건설의 로선도 낳았고 평범한 전사도 소박한 노동자도 이름없던 애국지사도 영웅으로 키웠다.

단편소설집 《거창한 흐름》에 오른 단편소설들은 또한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영원한 사랑의 세계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사랑의 세계는 저하늘의 태양처럼 뜨겁고 열렬하며 진할줄 모르는 영원의 세계이다.

작가 안동춘은 단편소설 《영원》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사랑의 서사시로 아름답게 수

놓고있다.

백전로장 최현동지도 흘러가는 세월은 막을수 없어 몸도 마음도 늙어감을 어찌할수 없었다. 아직 용기와 기백은 있어도 쇠진해가는 육체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군직에서 물러나있으면서 이것은 자연의 법칙, 인간생활의 법칙이라고 서글프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법칙을 부정하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날에 백두산에 오르시였지만 최현동지의 재생을 위하여 백전로장으로 다시 부활시킬 동지적사랑을 지니시고 비오는 곳은 날 그를 데리고 다시 백두산에 오르신다. 백두의 산정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령님의 허리를 누가 뻗세라 꼭 부여안은 최현의 어깨를 안으시고 환히 웃으시면서 기념사진을 찍으신다.

영원한 포옹, 영원한 웃음, 여기에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사랑의 영원한 세계가 다 있다. 진할줄 모르는 이 영원의 세계속에서 최현은 젊음도, 보람찬 삶도, 혁명의 희열도 다시 찾고 인민무력부문을 책임진 군직으로 다시 돌아온다.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 파고든 이 소설의 견인력은 비상히 크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시는 사랑의 뜨거운 빛발은 오랜 혁명전우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태양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은 이 나라의 평범한 병사와 노동자, 농민과 지식인들에게도 뜨겁게 비쳐진다. 조국으로 진군하는 혁명군의 길안내를 맡은 운순화로인에게도, 목탄차운전사 주용섭에게도, 파오를 범한 서병철중대장에게도 전쟁이 끝난 후 휴가를 가는 병사들에게도, 농촌의 평범한 처녀작업반장에게도, 명망높은 광업학자에게도, 지어는 사회보장자 근식에게도 골고루 뜨겁게 비친다.

단편소설 《전쟁이 끝난 뒤》(김재규 작)는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소설이다.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전선용사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으로 정든 고향집에 표창휴가를 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여명의 휴가병사들을 역전에서 데려다 그들의 배낭을 보신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찰떡을 넣은 병사도 있고 안혜에게 줄 신을 넣은 병사도 있으며 파편조각이 150여개나 있는 고지의 흙을 배낭에 넣어가지고 가는 병사도 있다. 그런데 고향에 가서 아버지와 동네어른들에게 부어드릴 술병이 보이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친부모의 심정이 되시여 휴가병사모두에게 친정어머니처럼 준비를 잘해보낼데 대한 명령을 하신다.

단편소설 《레장감》(고영길 작)도 특별히 인상적이다. 봉부리 처녀작업반장 은혜는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이악하게 농사를 지어 강냉이를 지난해보다 3t 더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그는 봉부리 이웃인 명서리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지난날에 하신 약속을 지켜 봉부리농장에 다시 오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관리위원장으로 된것을 축하도 하시고 그를 못 만난것을 몹시 서운해하신다. 수령님께서서는 예로부터 시집가는 딸에게는 레장감을 보내는데 관리위원장은 무엇을 보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관리위원장은 얼굴을 붉히며 보내지 못했다고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이제 양 50마리를 보내주겠다고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관리위원장이 꺾꺾하다고 말씀하시고는 예로부터 친정어머니는 아끼는것이 없었다고, 자신께서는 레장감으로 수십대의 트랙트와 농기계들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그 첫 트랙트리에 관리위원장을 꼭 앉히고 가야 한다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신다. 몸소 친정어머니가 되시여 수많은 레장감을 보내주시는 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의 세계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독자들의 눈물을 자아낸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의 사랑도 뜨겁고 작가의 착상도 이채로우며 작품의 형상도 감미롭다.

바로 이처럼 단편소설집에 오른 모든 단편소설들은 한평생 이념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이 빛나는 형상으로 순간의 막힘도 없는 조선혁명의 장엄한 대하, 거창한 흐름의 비결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확증하고있다.

단편소설집 《거창한 흐름》이 창조하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은 특색있고 인상깊은 형상수단과 수법을 훌륭히 창조리용함으로써 사상예술적으로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재능있는 작가들이 심오한 사색과 열정을 바쳐 창조한 수령형상단편소설들에서는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도 숭고하고 형상세계도 비상히 높으며 형상수단, 수법, 기교도 새롭고 독창적으로 펼쳐보였다.

가장 특징적인것은 극성을 강하게 살리고있는것이다. 극성은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 깨여지고 예상이 뒤집어질 때 생긴다. 극성은 우여곡절에 찬 인간의 운명을 볼 때도 생기지만 보다 많이는 주인공에 대한 매혹과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 새로운 생활을 보는 긴장감에서 생겨난다. 작품에서 극성을 살리자면 극적인 소

재를 잡아쥐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상을 뒤집는 수법을 어떻게 능란하게 리용하는가 하는 작가의 기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작품집에 오른 수령형상단편소설들에서 작가들은 예상을 뒤집는 수법을 재치있게 리용하고있다.

한웅빈은 단편소설 《푸른 잎사귀》에서 해석급전의 방법으로 극성을 강하게 살리고있다.

사회보장자 근식이는 같은 낚시군들인 영예군인영웅과 주물공아바이, 풍년기계공장 지배인과 대비도 되지 않는 지위에 있다. 영예군인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피를 흘린 영웅이고 주물공아바이는 40년의 로동경력에 작업반 세포비서이며 40대의 혈기왕성한 지배인은 해마다 계획을 넘쳐수행하는 공로있는 일꾼이다.

그러나 근식이는 총 한번 쏘여보지 못한 사회보장자이다. 그는 나이 16살에 두살 불쿠어 군복을 입고 전선에 나가다가 폭격에 허리를 다친 후 고향에 되돌아온 평범한 사람이다. 로동도 제대로 할수 없어 공장간부들은 그를 이 직장, 저 직장 옮기다가 아예 사회보장으로 넘겨버렸다. 독자들은 그의 운명을 두고 서글퍼하면서 결코 그들과는 나란히 설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한다. 여기에는 꾸며낸 감정도 없고 허위와 가식은 더욱 없다. 독자들은 공정하게 평가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달리 보신다. 나이 두살이나 불쿠어 군대에 나가려고 한 그 마음이 얼마나 장한가, 자신께서는 이 전쟁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선에서 희생된 무명전사들에게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게도, 총을 잡았던 사람도, 후방에 있었던 사람도 모두 영웅이라고 부르고싶고 영웅칭호를 주고싶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찾으실수 있는 새로운 진리의 발견이다. 사실 그래서 세상사람들은 우리 인민을 불러 영웅적조선인민이라고 하지 않는가.

작가는 기발한 착상으로 해석급전을 주었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의 철학은 더욱 심원해졌고 작품의 극성 또한 심각한 갈등이 없이도 더욱 강렬해졌다.

백보흙 역시 단편소설 《천암산》에서 급전을 능숙하게 활용하고있다.

작품의 갈등은 심각하다. 90이 넘는 명망높은 광업학자 박종환과 29살의 애젊은 지질기사 오철립과의 심각한 과학적대결과정을 보여주고있다. 로세대를 대표하는 과학자 박종환은 천암산밑에 굉장한 석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가 오랜 연구끝에 발견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이었다. 그러

나 오철림은 오랜 탐사끝에 천암산밑에는 석탄이 아니라 《비광물》이 있다고 론리를 세운다. 강력한 집단이 오래동안 과학적으로 탐사한데 의하면 그곳에서는 석탄이 아니라 《비광물》이 나왔다. 명망높은 로학자는 어지없이 패배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체는 학자로서 더는 쓸모없는 존재로 되었다는것을 의미하였으며 그로 하여 그는 자기 운명에 대하여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달리 해석하신다. 박종환 로인은 슬퍼하지 않을것이라는것, 그가 만약 승리하였다면 미래의 조국땅을 누구에게 맡길것인가 하고 한탄하고 슬퍼하였을것이라는것, 젊은 세대의 승리로 조국의 미래가 창창하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회열에 넘쳐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실 그렇게 되었다. 처음은 비극적으로 생각하였지만 점차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은 사라지고 가슴속에는 기쁨과 환희가 차 넘쳤다. 여기에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발견하신 위대한 진리가 있으며 한없이 숭고한 믿음의 철학세계가 있다.

단편소설 《사랑의 행군길》(진재환 작)도 사건급전의 수법으로 극성을 예리하게 살리고있다.

사령관동지께서 직접 인솔하시는 부대가 무더운 여름날에 행군을 하고있다. 땀별과 심한 갈증, 피로와 허기증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행군의 앞으로정에 참외밭이 있다는 척후조의 보고가 들어왔다. 지휘관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겼다. 어느 대원이 참지 못하고 단 한알의 참외라도 다치면 비상사고다.련대장은 사령관동지께 긴급회의를 열고 참외에 손 하나 대지 않도록 교양하겠다고 제기한다. 이것은 옳은 판단이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달리 생각하신다. 참외밭을 가꾼 로인이 과연 이 밭에서 얼마만 한 돈을 벌어 궁한 살림에 보탬을 받겠는가, 과연 손자에게도 단참외 하나 쥐여주겠는가, 게다가 비적무리들과 반일부대한테 걸리면 참외밭을 아예 질탕쳐놓겠는데...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참외밭을 통채로 사 로인의 살림에 보탬을 주고 갈증에 시달리는 대원들에게도 참외맛을 보이자고 결심하신다. 예상은 뒤집어졌다. 지휘관들도 독자들도 상상할수 없는 결심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원두막로인에게 열배가 넘는 돈을 주시고 또 가장 잘 익은 참외는 따로 따다가 오쟁이가 불룩하게 채워주시고 손자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신다. 또 대원들은 기쁨에 넘쳐 참외맛을 보고... 지휘관들의 걱정거리는 없어지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칭송의 마음은 더욱 커지고...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은 또한 질은 서정과 정론성의 결합으로 예술적품위를 더욱 높이고있다.

천세만세 길이 빛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은 사람들을 경탄시키고 흠모심을 불러일으키며 군대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세계는 사람들을 한없는 걱정과 뜨거운 눈물속에 잠기게 한다. 이것이 바로 정론성과 서정성을 살리는 생활적바탕으로 된다.

망원전술로 왜놈들을 죽음의 함정속에 몰아넣은 사령관동지의 령활한 전략전술, 적들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남진강도하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법, 12시간동안에 대포병부대를 기동시켜 미제의 시범전투를 파탄시킨 담대한 배짱과 철의 의지로 응결된 비상한 전략, 이 위대한 전법을 두고 작가들은 그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기록자의 역할을 수행한것이 아니라 탄복과 경탄속에서 그 위대성을 정론적필치에 담아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소년시절 연예공원에 참가했던 권기련과 그의 딸에게 쏟아부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가슴뜨거운 사랑앞에서, 생나무를 찍어 사령부의 천막을 치는 대원들을 엄하게 질책하고 강대를 가지고 천막을 치라고 타이르시는 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조국애앞에서, 백전로장으로 다시 부활시켜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를 두고, 새로 부임되어가는 처녀관리위원장에게 레장감을 보내주시는 꿈같은 이야기를 두고 작가들은 그저 이야기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무한한 애정과 친근감을 가지고 가수처럼 노래부르고 시인처럼 눈물에 젖어 시를 읊는다. 바로 이처럼 정론성과 서정성의 결합으로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은 빛나고 이채로와졌으며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은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소박하고 소탈하며 한없이 친근하고 자애에 넘친 생활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진실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 수령님에 대한 독자들의 절절한 그리움을 한층 높여주고있다.

수령형상창조에서는 격식과 틀이 있어서는 안되며 의식적으로 경계선을 만들고 울타리를 쳐서는 안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인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담배도 권하시며 국사도 스스로없이 토론하시였다. 자신을 인민의 아들이라고 늘 생각하시며 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계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다.

한없이 자애롭고 친근하시며 더없이 소탈하고 소박하신 우리 수령님의 생활세계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자면 인상깊은 생활세부를 적극 탐구하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묘사해야 한다.

이 작품집에 올라있는 수령형상단편소설들에는 특색

있는 생활세부들이 보석처럼 빛나고있다.

채별공로인의 튼 손을 보시고 오소리기름을 주시는 세부, 목탄차의 쇠풍구를 돌리시는 세부, 긴박한 작전속에서도 주변마을의 한 할머니에게 안경을 주시는 세부, 부식물인 고등어세부, 코다리고무신세부, 한 줌의 흙속에 150여개의 파편이 들어있는 세부 등 수없는 생활세부들이 창조되어 위대한 인민의 아들이신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친근하고 소탈하신 품성을 진실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은 심리묘사에서도 새로운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적품모를 훌륭하게 형상화하면 수령의 내면세계도 깊이있게 묘사하여야 한다. 작품에서 수령의 인간성은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데서 뜨겁게 발현된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 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보여주기 어렵다.

수령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리지 않으면 객관적묘사에만 치우치는 판조의 함정에 빠질수 있다. 사실 우리 수령님처럼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 한생을 고생속에 살아오신 우리 수령님의 내면심리세계를 그리지 않으면 그것은 벌써 팽담한 판조이며 현실외곡이다.

작품집에 오른 단편소설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내부적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진실하고 생동한 심리묘사로 그려냄으로써 수령님의 인간적품모를 심도있게 펼쳐보이고있다.

특히 단편소설 《고향의 가을날에》(박춘섭 작)는 내면심리세계묘사의 특색을 잘살리고있다.

내면독백의 수법으로 형상된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와의 심중의 대화는 감격과 눈물이 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간들의 진정의 토로이다.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동지사이 에 나누신 대화에는 불굴의 혁명투사들인 김책, 강건, 오중흡, 최춘국동지들에 대한 회고도 있고 항일대전에서 사령관동지를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호위한 김정숙동지에 대한 가슴뜨거운 회고도 있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밤낮이 따로없이 헌신하시는 감격적인 이야기도 있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려고 하니 기뻐하라고 하시는 걱정에도 넘치는 말씀도 있다.

내면독백의 수법으로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내면세계를 짙은 서정속에서 숭엄하고 다감하게 펼쳐보인 특색있는 심리묘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오한 사색의 세계를 최상의 높이에서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

실로 수령형상단편소설집 《거창한 흐름》은 그 사상적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나 형상세계의 높이와 예술적수법창조리용에서 우리 작가들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우리들은 수령형상단편소설창작에서 이룩한 성과와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요구에 맞게 수령형상문학에서 또 새로운 질적비약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수령형상명작들을 가슴에 안고 강성대국의 대문에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긍지높이, 땀땀이 들어서야 할것이다.

가 사

승 리 의 대 를 이 어

장 호 건

색날은 화선군복 다리여입고
오늘도 찾아왔네 전승기념탑
다섯살난 막내손자 손목을 잡고
이윽도록 여기 섰네 추억도 깊어

총창을 바위돌에 갈던 그때를
이 애가 어이 알랴 철없는 지금

마지막창격전 불타던 고지
그 나날을 못 잊는 로병의 마음

조국을 지켜싸운 영웅들처럼
승리의 대를 이어 나의 손자도
조국보위초소에서 군공을 세우고
그날에는 드리리라 거수경례를



김 준 학

새벽 4시.

얼레빗같은 그믐달이 남쪽하늘가로 기울어진 그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과대로 산책길에 오르시였다.

울창한 수림속으로 난 산보길을 따라 키낮은 가로등들이 도간도간 켜있어 사위는 유난히도 밝고 정갈했다.

《책임서기동무, 지금 평양지방의 해돋이시간이 5시 10분이 좀 넘지?》

연회색의 품이 넓은 바지에 후렁후렁한 흰 반소매사쓰차림을 하신 수령님께서 한결음정도 떨어져 걷는 러형철에게 물으시였다.

나홀전에 수령님께서는 평양과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오시였었다

《그렇습니다, 수령님. 5시 14분입니다. 여기는 평양지방보다 4분가량 먼저 해돋이가 시작됩니다.》

매사에 차근차근하고 정확한 러형철은 보통체격에 얼굴생김이 두툼하고 온화해보이는 일꾼이었다.

《음, 그렇소?》

궁글게 들려오는 그이의 음성은 석유했고 퍼그나 같려있었다.

한밤을 지낸 피로는 눈에 어리지만 그 이상 쌓인 피로는 목소리에 그 흔적이 남는 법이다.

어제 밤에도 수령님의 방은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탁상등이 그냥 켜있었다.

휴식차로 금수산의사당집무실을 떠나오셨지만 이곳에서도 수령님께서는 어느때와 같이 사업에만 전념하시였다.

그이의 하루일과에서 유일한 휴식이란 아마 이 새벽 산책뿐이라.

《책임서기동무, 오늘은 저 앞산마루에까지 올라가서 해돋이를 구경하고 들어가자구. 아마 장관일거요.》

의외의 말씀에 일순 러형철은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수령님, 알았습니다!》

러형철은 다음순간 활기에 넘쳐 대답올렸다.

깊은 상념의 세계에 잠겨 어떤 날은 한마디 말씀도 건네지 않으시고 또 어떤 날은 시간전에 서둘러 산책을 끝내곤 하시던 수령님께서 이렇게 해돋이까지 구경하자고 하시기는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 기뻐다.

한번이나마 사업을 잊으시고 산책다운 산책을 하시면 얼마나 좋으랴!

수령님께서는 뒤짐을 지시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흔곤히 조율고있는 숲의 교묘속에 가락맞게 울리는 그이의 발걸음소리는 이 새벽산책의 즐거움을 예고해주는듯싶었다.

《나이들면 세월이 번개같이 빨라진다더니 요즘은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구만. 지구의 자전속도가 빨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시간이 더 빨리 흘렀으면 하는 때도 있으니 자신을 통 종잡을수 없소. 그래도 좋구만.》

그이의 얼굴에는 흠씩 기쁨이 실려있었다. 그것은 류다른 행복감이었고 희열이었고 환희였다.

이해 7월에 분렬이래 처음으로 북남최고위급상봉과 회담이 열리게 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삼시에 삼천리강도를 통일열망의 도가니로 뚫어번지게 했으며 집집의 처마아래서는 온밤 그 이야기로 잔치전날밤처럼 흥성거렸다.

정녕 장장 반세기의 아픔을 새겨온 분렬의 해묵은 력사에 통쾌하게 종지부를 찍을 통일의 새아침이 불과 몇달, 며칠안팎의 사변으로 우리 민족앞에 우뚝 다가온것인가? 꿈만 같았다.

너너없이 흥뜨는 마음들이 하루하루 그 감격의 날을

손뚱아 기다리고있었다.

환희의 그날이 다가올수록 수령님께서는 사업으로 분망하셨고 그 분망하심으로 하여 행복하셨으며 그 행복감으로 하여 마를줄 모르는 샘마냥 언제나 왕성한 정력과 활기에 넘쳐계셨다.

이미 여든고개를 넘기신 우리 수령님의 건강에 파로와 흥분은 절대금물이었다.

그래서 러형철은 얼마 안되는 산책시간만이라도 수령님께서 지남반의 피로와 긴장을 풀실수 있는 보약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해마다 설달그믐날 밤이면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소. 아이들의 세배를 받고 설맞이공연을 볼때면 이해에도 너희들에게 통일조국을 안겨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갈마들어서였지. 그러나 새해의 설맞이공연은 벌써부터 기다려지누만. 물론 한두번의 상봉과 회담으로 당장에 통일이 되는건 아니요. 그래도 통일의 큰 걸음을 내디딘 올해의 설달그믐날엔 북과 남의 어린이들이 한데 모여 통일설맞이공연을 했으면 좋겠구만. 그러면 정말 볼만 할거요. 책임서기동무, 그날 아이들이 나한테 세배를 하면 내 무슨 말로 답례를 한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계셨다.

《수령님, 아마 그날 수령님께서는 〈애들아, 고맙다. 통일된 강산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무럭무럭 자라날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것 같습니다.》

자감에 젖어들어서인지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허허... 그렇게 말할수도 있지. 헌데 뭔가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것 같애. 책임서기동무하구 나하구 우리 둘이서 매일부터 한번 골라보지 않겠나? 통일설맞이공연날에 나라의 왕인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첫 세배답례인사인데...》

《알았습니다, 수령님.》

《책임서기동무, 그날까지 이진 절대비밀로 해야 돼!》

평소에 룡담을 잘하시는 수령님께서 금시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될 통일의 환희를 그려보시며 룡절반, 진담절반으로 하시는 말씀에 러형철은 《예.》하고 대답을 드렸다.

산책길은 굽이굽이 산기운이 질게 풍겨나는 숲속을 꿰질러 경쾌하게 뻗어있었다.

갈지자형으로 어기쳐 서있는 어느 가로등밑을 지날 때였다.

수령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두손을 허리에 얹으신채 발치앞을 굽어보고계시었다.

잘쭈킨 허리를 바짝 졸라매고 분주히 오가는 개미들

의 요란한 행렬이 소로길을 가로 금긋고있었다.

《책임서기동무, 여길 보오. 부지런하기란 재미한가지라더니 신새벽부터 이사를 가고있구만.》

질서정연하고 생기발랄한 개미들의 행렬을 이속도록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무척 대견해하시는 눈빛이었다.

《수령님, 큰비가 내릴 징조같습니다.》

《그런것 같소. 개미들이 큰비가 내릴가봐 미리감치 안전한 곳으로 살림을 옮겨가고있구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이요.》

작고 연약한 개미들의 타고난 근면성과 정확한 예견성, 큰 산도 떠옮기는 뭉친 힘을 유별나게 느끼시는듯한 그이의 진지한 표정이 사뭇 심장하게 안겨왔다.

《장마가 크게 질것 같구만. ... 방해하지 말고 우리 갈길이나 가지요.》

수령님께서는 개울을 건너가는 걸음모양으로 얼마간 보폭을 크게 잡으시고 개미들의 행렬우를 지나가시었다.

찌—잉—찡, 찌룩— 찌르룩—

동산마루우에 희웁스름하게 먼동이 밝아오자 숲은 고요하지 않았다.

무성한 수풀속에, 음영이 짙은 잡관목에, 이끼덮인 바위틈새마다에 복병처럼 몸을 숨긴 풀벌레들은 성수가 나는듯 겨끔내기로 울어대고있는데 멀고 가까운 숲속 여기저기서는 소쩍새가 궁궁새와 주고받는 한가스런 동문서답이 날이 밝아오는줄도 모르고 계속되고있었다.

천차만별의 자연은 실로 무궁한것인가.

러형철에게는 자연에 존재하는 오묘하고 불가항력적인 그 모든 모순과 대립, 불협화음이 왜선지 이 새벽에는 이상하리만치 완전무결의 조화와 미적균형을 이루면서 한결 유정하고도 아담한 정서와 감흥을 불러일으켜주는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그에 심취되곤 하는 자신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수령님께서는 갈림길이 나지자 가로등이 없는 왼쪽소로길로 꺾어드시었다.

키를 넘는 떨기나무들사이로 흘러간 이슬길은 소잔등처럼 생긴 언덕너머로 느린 폭선을 긋고있었다.

《수령님, 옷이 젖겠습니다.》

러형철은 급히 앞으로 나서며 만류의 말씀을 드렸다.

《괜찮소. 새벽산책이야 남먼저 이슬을 터는 멋에 하는거지.》

수령님께서는 뒤짐을 푸시고 땃땃한 언덕길을 오르시었다.

그이께서 팔을 저으시며 걸음을 옮기실적마다 바람에 구름이 날리듯 점차로 연한 재빛을 띤 산릉이

며 총총한 떨기나무숲에 차분히 서렸던 어둠이 홀홀 가
서지는듯 했다.

올라갈수록 사위가 흰해왔다.

우줄우줄 병풍처럼 둘러친 산발들은 우련히 신비한 빛
에 둘러싸여있었고 못별들은 은빛으로 가물거렸다.

수령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별들을 올려다보시였다.
그이의 시선이 가닿자 별들은 더 크고 밝아진듯싶었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무슨 생각을 하고계시는것일가? 언젠가 별들의 속
삭임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젊어진다고 통찰처럼
말씀하시더니 이 시각 하늘의 그 소리를 듣고계시는것
일가?

수령님을 모시고 려형철은 언덕을 넘어 깊숙이 폐인
골짜기로 들어섰다. 골바닥에 고여있던 새벽의 땀기에
무릎노리가 싸늘해왔다.

수령님께서는 가슴을 넓게 펴고 심호흡을 하시였다.
폐부에 감미롭게 흘러드는 향긋하고 청신하면서도 씩
쓰무레하고 비릿한 숲의 냄새, 그것은 새로이 탄생
하는 새벽특유의 어둠과 빛의 정서였고 꽃가루와 꿀물
이 섞인 달디단 이슬냄새였으며 미구에 천지를 붉게 물
들여줄 장쾌한 해돋이의 환희로 설레는 산천초목의 싱
그러운 냄새였다. 또한 그것은 아득히 흘러간 백두
산시절의 솟는냄새이기도 했다.

《새벽공기가 참 좋구만. 가슴이 쨍하고 막혔던것
이 확 열리는것 같소. 수림속에 들어서면 마치 빨찌
산시절로 되돌아간것처럼 몸도 마음도 새로 태어난 기
분이요. 모닥불가에 앉아 밤새워 〈조국광복회10대강
령〉을 쓰던 일이며 또 정숙동무랑 녀대원들이 내가에서
부르던 〈사항가〉가 아직도 귀전에 쟁쟁해. 전우들의 얼
굴도 하나하나 떠오르구. 정말 잊을수가 없거든.》

무엇인가 크나큰것이 려형철의 가슴을 쿵— 하고 울
렸다.

전우들과의 상봉시간!

수령님의 새벽산책을 이렇게 이름할수 있지 않을
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수령님의 눈가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옛시절에 대
한 애끓는 회억의 빛이 어렸고 그 애뜻함으로 해서
인지 걸음은 더디어졌다.

려형철은 한순간 걸음을 멈추고 앞서 걸으시는
수령님을 우러렸다.

사위여가는 어둠과 탄생하는 광명의 시간적교차속에
서 력사와 미래를 안고 추억의 하늘길을 거슬러오르
시는 수령님의 걸음걸음에선 고결한 삶의 음악이 흘러나
오는듯 했다.

《래년이면 조국해방 50돛이 되오. 하지만 산에서 함
께 총잡고 싸우던 전우들의 소원은 아직 풀어주지 못

했소. 이국의 광야에 묻어두고온 그들을 생각하면 정
말 가슴이 아프오. 형철동무 아버지는 고향이 남쪽
이었소. 대구 어디쯤 될거요. …》

려형철은 눈시울이 물기에 젖어 축축해짐을 느꼈다.

《책임서기동무 아버지는 떠나온 고향땅을 다시 밟
아보지 못하고 광복성전에서 희생되었지만 동무는 꼭
그곳에 가봐야 하오. 조상들의 묘소에 들러 성묘도 하
고. 참, 려동무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줄게 있소.
이번 회담준비때문에 남측사람들과 접촉하는 우리 동
무들을 통해 알아보니 책임서기동무의 고모가 아직 살
아있다고 하오.》

《?!…》

너무도 뜻밖의 소식에 려형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
뚝 돌처럼 굳어졌다.

(고모라니?…)

려형철은 고아였던 자기한테 혈육이라고는 고모 한
분이 남아있다는것을 해방직후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
오신 수령님께서 알려주셨다는 사실이 부지중 상기
되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감감 잊고있던 그 일을
수령님께서는 반세기가 되어오도록 여적 잊지 않고 그
리도 마음을 써오시였던 말인가?!

저도 모르게 미음도는 눈물로 하여 핑 눈곱이 젖
어들었다.

《려동무의 고모는 지금 충청남도에서 사는데 나
이는 일흔이 훨씬 넘었고 정신은 아직도 똑똑하단만.
우리가 이번 회담을 잘 치르고 서울에 나가면 그때 고
모를 만나보자구. 생면부지이지만 혈육의 정이야 어딜
가겠소? 아무렴, 피줄이야 피줄이겠지. …》

그토록 분망하시고 긴장한 속에서도 자기의 가정
사를 잊지 않으시고 각별한 애정을 기울여오신 수령님의
다심하신 아버지사랑에 그는 가슴이 뭉클해났다.

《통일이 되면 뭐니뭐니해도 려동무처럼 북과 남
에 생사도 모르고 흩어져사는 가족, 친척들이 체일
로 좋아할거요. 그러나 통일의 의미는 단순히 그런 상
봉의 기쁨과 재결합만이 아니지.》

수령님께서는 두팔을 결으시고 통일의 무게가 그
대로 실려있는 무거운 걸음걸음을 천천히 옮겨짚으
시였다.

깊은 사색에 잠기셨는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검푸른 창공에 하얀 바둑알처럼 널려있던 못별들
은 희옴스름 밝아오는 새벽빛에 모두 스러졌고 쟁글쟁
글 밤새 웃던 가로등들도 이미 잠에 든 뒤였다.

츠름츠름 하늘갓이 들려 사위가 우렷해지자 밤새
소리만이 호젓하던 숲은 온갖 산새들의 합창하는듯
한 울음소리로 소연해졌다.

그제서야 숲은 서둘러 끈끈한 잠기를 털어버리고 한껏 기지개를 켜는가.

《산새들도 일찍 깨어나 일을 시작했구만.》

수령님께서서는 친숙해진 그 산새들 한마리, 한마리에 게 다정한 아침인사를 보내시는듯 아니, 그들의 진정어린 인사를 받고 답례하시는듯 애무어린 미소를 띄우시며 숲을 둘러보시었다.

《또롱— 또롱—》하고 작은 산새 한마리가 청맑은 소리를 내며 기운차게 숲머리위로 날아지나갔다.

《방울새구만, 목소리가 참 곱지? 은방울 굴러가는 소리같은게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좋거던. 저기 떨기나무덤불을 보라구. 어떤 새가 풀벌레소리를 내며 우는데 무슨 기쁜 일이 있는지 오늘따라 별로 사기가 나서 재재거리누만. 남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울면서도 말이요.》

그이의 말씀이 끝나기 바쁘게 어디선가 《호— 호르륵—》하는 다급한 새소리가 들려왔다.

《저 휘파람새는 새벽부터 시샘이 났는가. 마치 경기관 때 반칙조각을 볼듯이 하니 말이요, 허허.》

정말 숲은 이른새벽부터 새들의 활기에 넘친 노래경연으로 움썹움썹 어깨돋음을 하고있었다.

《따따따— 따라라—》하고 오색더구리가 연해연방 나무등숙을 두드리며 흥겨운 장단을 쳐주니 그 리듬에 맞추어 두견새는 초저녁부터 하던 쪽박타령에 열중하고 숲할미새는 《찌걱찌걱—》물레타령을 한다.

우리 나라의 산새들이 모두 이 숲에 모여든듯싶었다.

《개개명창이요, 새들의 노래도 역시 맑은 이슬에 목을 추기고 부르는 새벽노래가 제일 듣기 좋거던.》

리듬과 선율이 저마끔 다른 산새들의 열정적인 음악을 들으시며 만시름을 잊으신듯 레의 그 밝은 미소를 지으시었다. 기쁨에 넘치시었다.

새들의 노래에 화답하고싶으셨다.

수령님께서서는 촌촌하게 엉켜든 떨기나무가지에 사뿐히 내려앉아 오흘오흘 뽀족한 부리로 깃을 다듬다가 인기척에 놀래여 빠끔히 자신을 올려다보고있는, 여차하면 날아갈듯 쫄지를 발딱 쳐들고 긴장된 자세를 취하고있는 귀여운 작은새를 휘익— 휘파람불어 희롱하고싶은 생각조차 드셨다.

려형철은 산새들이 고마왔다.

사업과 휴식의 한계가 따로 없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잠시라도 머리섬을 하시게 노래를 불러드리는 산새들이 눈물겹도록 고마왔고 기뻐했다.

그는 황홀해진 눈길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 얼마나 좋은 새벽인가!

지금 이 순간처럼 만시름을 잊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 10분 아니, 단 1분만이라도 그냥 기쁨속에 휴

식하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책임서기동무, 오늘은 우선 어제 하던 경제부문 일군협의회를 마저 결속지은 다음 단군릉복구위원회에서 새로 제기한 단군릉최종형성안을 가져오도록 조직사업을 해야겠소. 오늘은 아무리 시간이 늦더라도 다시 보고 빨리 결론을 주어야겠소.》

《수령님, 그러면 너무 사업부담이 많습니다. 북남최고위급회담날자도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오늘 협의회를 결속하신 다음에는 며칠 꼭 쉬어주시시오.》

방금전의 환회는 바람을 만난 안개마냥 가뭇없이 사라지고 거의나 무뚝뚝하게 들릴 정도로 려형철이 말씀드렸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그의 목소리가 안타까움에 떨리고있음을, 그가 당황했음을 감촉하고계시었다.

하찮은 일로, 그렇다, 휴식이라는 그 하찮은 일로 공연히 그를 괴롭히는것만 같으시여 수령님께서서는 려형철에게 미안스러운 생각이 드실 정도였다.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그 못지 않게 안타깝고 괴로우시었다.

《책임서기동무, 더는 날더러 휴식하라고 권고하지 마오. 공기 좋고 풍치수려한 이런 곳에서 하는 새벽산책이야말로 최고의 휴식으로 되는거요. 글썽 한시간이 어디요, 한시간이. 휴식한 다음에야 웅당 일을 해야지. 일을 하기 위해 쉬는거지 쉬기 위해 일하는거야 아니잖소.》

그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다.

그이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명명백백한 리치였고 너무도 단순한 생활의 진리였다.

행복한 락원에서 새들은 저리도 극성스레 우짚고있는데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왜 새벽산책 이 시간만이라도 다사다난한 만사를 모두 잊으시고 한참나의 휴식마저 즐기지 못하시는것입니까?!...

시간은 산책길을 따라 줄달음쳐간다.

이때 머리술이 성글은 려형철의 머리위로 때아닌 비방울이 툭툭떨어 떨어져내렸다. 그는 머리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개인 청청한 새벽하늘, 무성한 나무가지들사이로 언뜻 뿜겨오르는 고무공같은 물체가 보였다.

아마 숲의 교예사—청서가 아니면 다람쥐일것이다.

그 흔들림에 나무잎새에 맺혔던 이슬방울들이 후둑후둑 쏟아져내린듯.

느닷없이 그의 눈앞에는 며칠전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우리 나라는 이해 봄부터 지속된 보기 드문 왕가물로 하여 일부 지대들 농사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었다.

그러던것이 사나흘전부터 그 지역들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말그대로 가물에 단비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

언제나 나라의 전반적농사형편을 두고 깊이 마음 써오시는 수령님께 그는 이 사실을 보고드렸다.

《그렇소?!》

수령님의 안광엔 기쁨의 빛이 한껏 어려있었다.

반가움에 이어 그이께서는 서운하신 어조로 《헌데 개성지방까지만 비가 오고있다니 정말 안됐구만.》 하고 실망의 말씀을 하시었다.

《그러니 지맥을 가른 분계선이 하늘에도 그어져 있는가? 허참!》

수령님께서서는 못내 통분해하셨다.

아니, 너무도 어이없어하셨다.

자정무렵 그가 수령님의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였다. 그는 깜짝 놀랐다.

수령님께서 문건을 퍼놓으신채로 결상의 등반이에 옷몸을 기대시고 그만 쪽잠에 드신것이 아닌가! 수령님의 얼굴엔 흐뭇한 웃음이 비껴있었다.

무슨 좋은 꿈을 꾸고계시는것이라.

헌데 어떻게 할것인가? 결상에서 그냥 불편한 잠을 들게 하실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잠에 드신 수령님을 깨워드릴수는 더욱 없었다.

이제 깨어나시면 그이께서 다시는 잠에 못드시고 장밤 일을 하실것 같기때문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망설이는중에 그만에야 그가 무슨 인기척이라도 낸것 같았다.

수령님께서 쪽잠에서 깨어나신것이였다.

그 무슨 좋은 꿈을 꾸신듯 그이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그 순간이 너무도 짧은데 대한 서운한 빛이 함께 어려있는듯 했다.

그는 송구스러워졌다.

사업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무엇인가 물으시려다가 단념하시고 그러러 이젠 돌아가 쉬라고 하시었다.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셨는지 려형철은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그가 수령님의 집무실에서 나온지 얼마 안되어 기상수문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려형철은 너무도 놀라운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일도 다 있단 말인가?

수령님께서 금시 천기조화를 부리시여 남반부지역에 비를 내려주신것이 아닐가 하는 신비스런 생각이 언뜻 고쳐졌다. 그는 너무 기뻐 당장에 이 사실을 수령님께 보고드렸다.

《비가 내리고있단 말이지! 됐소.이젠 남조선농민들이 살아났소. 그들이 좋아할거요, 하하하!》

그가 드린 보고에 자못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시는 위대한 수령님, 그이의 집무실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쏟아져내리는 비줄기는 그대로 하늘의 눈물인듯. 아,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인가, 감격의 눈물이었던가?

그날 밤 수령님께서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밤도와 일을 보시였다.

결국 그날의 휴식은 그 몇분간의 쪽잠이 전부였다. 그날 밤부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수령님께서 과연 그때 무슨 꿈을 꾸시였을가 하는 호기심이 끈덕지게 자리잡고있었다.

이 새벽 그날 밤의 일이 떠오르자 그는 수령님께 무릅없이 청을 드리였다.

《그 꿈이야기를 들려달란 말이지. 주사야몽이라고 내가 남반부에 비가 내리지 않아 걱정을 했더니 비오는 꿈을 꾸게 된 모양이요. 그런데 까치가 울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는 격으로 정말 비가 내리더구만.

이제 얼마 안있어 열리게 될 회담도 아주 잘될거요. 그런데 쪽잠에 꿈이라니 나도 이젠 늙었는가보요.》 하시면서도 흥에 겨워하시는 그이의 얼굴엔 열정과 기백이 한껏 어려있었다.

새날의 려명과 함께 시시각각 통일은 다가오고있는것인가.

그렇다, 화창한 통일의 눈석이는 이미 시작된것이다. 그 생명의 물은 불어나고 범람하여 마침내 메마른 전야를 적시고 숲을 자태우고 대지를 풍요케 하리라! 손을 내밀면 만져볼수 있는 저 바위돌우에 피어난 돌양지꽃이나 바위채송화보다도 가까운 곳에 통일은 있다.

얼마간 걸음이 빨라지신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저만치 앞서걸으시였다.

려형철은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 51분이였다.

우중충한 숲속에 피창같이 열린 하늘구멍으로는 발그무레하게 물들기 시작한 아침노을빛이 한눈에 안겨왔다. 해돋이는 머지않았다. 한결 사위는 흰했다.

어디선가 산책길 한가운데에 불쑥 다람쥐란 놈이 나타났다. 놈은 재롱스럽게 앞발을 들고 오탁하니 몸을 일으켜세웠다가 뺑그르르 선자리를 한바퀴 돌더니 화락 이슬방울을 떨구어뜨리며 길썬의 수풀속으로 달아뻤다.

《숲속의 다정한 동물들을 대표해서 다람쥐가 우리한테 아침인사를 하고 가누만, 허허.》

울리막길에 들어서서 굽인돌이에 이르니 연푸르스름한 송라가 줄줄이 내리걸려있는 거목밑에 비석처럼 서있는 길썬한 바위돌이 보였다.

고르롭고 반듯한 앞면에 열댓자정도의 한자가 새겨져있는 그 바위벽에는 검푸른 이끼가 두텁게 끼여 마치 한여름에 오한이 나서 푸근푸근한 속내의를 껴입고 서있는것만 같았다.

주변에는 붉고 노르끼레하고 연보라색이 도는 여러 종류의 땅버섯들이 오종종 무리지어 널려있었다. 수령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었다.

《책임서기동무는 저 바위벽에 새겨져있는 한자를 읽어보았소? 언젠가 산보를 하다가 읽어보니 대원군 시기 무슨 벼슬인가 했다면 사람의 이름이더구만. 대원군이 풍전등화에 처한 나라를 구원해보겠다고 쇠국을 했지만 매판매직이 성행하고 경복궁개건공사도 너무 크게 벌려놓다나니 인민들의 원성을 많이 샀지. ... 내가 시를 한수 읊을테니 한번 들어보오.》

그이께서는 나직한 음성으로 시를 읊으시었다.

《석마, 석동, 석상우에 가랑잎만 떨어진다

종일 계셔도 찾아주는이 나무잎뿐이런가

성군이었던 만백성이 아침 낮으로 가 절 안하랴
무슨 낮이 계서 서울과 조선과 이 백성 보실가
저리 돌아누웁소서》

그 시는 김동환이라는 사람이 1927년 어느 한 신문에 발표하였던 《대원군릉》이라는 시였다.

《〈저리 돌아누웁소서〉라. 참 결과가 뜻이 깊지 않소, 책임서기동무? 이 시에서처럼 후손들이 선대를 원망하게 살아가야 안되지. 정치가들이 제일 잊지 말아야 할것은 후세의 평가, 역사의 책임에 따른 후세의 평가요. 당대에 아무리 무제한한 권력을 가졌다 해도 시간을 이길수는 없고 그 어떤 요술로도 후세의 눈을 속일수는 없지. 동시대인들의 찬양을 받았든 실각되어 때일찍 권력을 잃고 비명횡사로 생을 마쳤든 관계없이 후세는 언제나 당대의 동시대인들보다 더 공정하고 정확하게 역사를 대하고 정치가들의 공적을 평가하는 법이요.》

수령님께서 산정점을 바라보시며 잠시 숨을 들리시었다.

《우리 나라 역사를 훑어보면 나라와 새 왕조를 세운 창업주들은 다 긍정적으로 평가되고있지만 리성계만은 규탄을 받고있는데 그것은 왕위찬탈을 위한 〈위화도회군〉이 후세가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민족만대의 엄청난 손실을 끼쳤기때문이요.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에 해를 준 그런 못난 조상들을 보고 후손들이 〈저리 돌아누웁소서〉 하고 욕하는것은 불효막심이 아니지.》

눈앞으로는 보르르한 습털조끼에 노랗고 까만 호랑무늬옷을 위엄있게 차려입은 한무리의 산별들이 그 무슨 경사스런 모임에 초대되어가는 길인듯 우아한 물

동을 펼치며 바빠 날아지나갔다.

《내 한생에서 스무해는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흘러갔지만 그보다 두배만이나 되는 마흔아홉해는 분렬조국의 정치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아픔과 이루지 못한 대경륜의 몸부림속에서 흘러갔소. 그렇게 흘러보낸 세월이 참 야속하기도 하고 무정하기도 하오. 천은 재단할타이구 시간은 쓸타인데 우리 나라가 이미 통일이 되였더라면 우리 조선민족은 인류를 위해, 세계를 위해 무언가 더 큰 기여를 했을텐데. ...》

수령님의 눈빛은 이름못할 그 어떤 고뇌로 하여 흐려진듯싶었다.

그는 잘못 보지 않았나 하여 조심한 눈길을 들어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그렇다, 그것은 분명 형언 못할 심중의 고뇌였고 강렬한 아픔을 참는 일종의 의지이기도 했다.

저옥 안타까움에 타는 그이의 눈길은 멀리 하늘가로 향해졌다.

그 어떤 인위의 경계선도 그어져있지 않고 표말도 박혀있지 않는 넓고넓은 하늘, 온데간데없이 별들은 자취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머지않아 통일된 조선은 세계적인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역사의 최선두에 서야 할뿐아니라 우주분야에서도 단연 세계적인 강국으로 되여야 하오. 우리 조선민족이 마음먹고 힘을 합쳐 분발한다면 능히 지구를 박차고나가 우주를 정복하게 될 그런 사변적인 날도 안아올수 있을거요. 난 그런 날을 꼭 보게 될것 같아. 책임서기동무, 고생끝에 락이라구 오래오래 살아서 우리 함께 그런 위대한 날을 봐야지!》

그이의 말씀을 듣는 순간 려형철은 자신이 100년 아니, 1 000년을 살고도 남을 그런 삼천갑자 동방삭의 수명을 받아안은 사람처럼 생각되어 마음은 신비와 황홀감에 휩싸였다.

얼마나 먼 미래를 한가슴에 안고계시는 우리 수령님이신가!

얼마나 크나큰 희망과 담대한 포부를 실천에 옮기고계시는 위대한분이신가!

세월을 주름잡는 수령님의 그 무한한 정열과 포부와 리상에 비하면 세기는 순간처럼 짧고 광활한 대륙과 대양도 통일된 삼천리강토보다 결코 넓어보이지 않았다.

산등성마루에 거의 다 올라섰을 때 수령님께서 손목시계를 보시었다.

《해돋이시간이 다되였구만.》

그이께서 오른 산마루에는 너른 풀밭이 펼쳐져있었는데 풀잎마다에 이슬방울들이 대롱대롱 맺혀있어 마

치 푸른 비단보우에 진주알들을 뿌려놓은듯 했다.
 전망대처럼 시야가 탁 트인 곳이었다.
 장쾌하게 굽어쳐 뻗은 산발들과 계곡들과 수림이 발아래로 굽어보였고 하늘이 지척인듯 가깝게 안겨왔다.
 《아침해가 솟아오르누만!》
 수령님께서서는 기쁨에 넘쳐 동녘을 손들어 가리켜 보이시었다.
 새벽 5시 10분.
 주홍빛노을이 피어오른 동산우에 금시 황금을 녹여 부은듯 한 아침해가 눈부시게 이글거리며 등실 솟아올랐다.
 순간, 산발들은 붉은 안개에 뒤덮인듯 했다.
 얼마나 황홀한 해돋이인가!
 너무도 감격에 겨워, 너무도 환희에 넘쳐 숨이 막히는것 같은 그런 시각이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경건히 팔을 쳐들고 서있는듯싶은 울창한 나무들의 잎새에, 은가루를 들썩듯 이슬진 풀잎마다에, 수수천년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지켜 묵묵히 서있는 초병들마냥 곳곳에 널려있는 크고작은 바위돌마다에 아침해는 싱싱한 노을빛을 단장해주었고 즐기즐기 계곡사이로 흐르는 내물은 푸른 대지에 통채로 내려앉은 은하수인듯 해빛을 번쩍이며 강으로, 바다로 떠돌러가고있었다.
 어디서나 환희와 행복의 광채가 끝없이 아롱거렸고 사방으로 빛발쳤으며 가다가다 그 빛이 가닿는 곳마다에서는 아름다운 선물이 올라나오는듯싶었다.
 려형철은 훌쩍 솟구쳐오르는 가슴을 진정키 어려웠다.
 《저길 보라구. 산발들이 정말 아름답구만!》
 수령님께서서는 기쁨을 이룬 산줄기들을 가리켜보이시었다.
 때를 기다린듯 동서남북에서 산새들이 일시에 숲을 박차고 기운차게 솟구쳐올랐다.
 한점한점이 그대로 노래인가.
 창공에 노래를 뿌려주며 붉게 타는 구름이 되어 새들은 무리를 지어 숲우를 맴돌고있다.
 《참, 백두산의 해돋이처럼 장관이요. 저 해돋이는 삼천리금수강산에 떠오르는 통일조국의 해돋이요!》
 무척 감동에 젖어하시느 말씀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함뿍 미소 어린 안광으로 아침해를 점도록 바라보고계시었다.
 려형철은 통일의 그날,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짓고계시는 수령님의 거룩한 영상을 지금 이 시각에 뵈고있는듯만싶어 절로 숭엄해지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다.
 《책임서기동무,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행사

일정에 말이요. 백두산등산을 꼭 넣어야겠소. 남쪽사람들이 이번에 백두산에 올라가보면 생각이 많아질거요. 동서남북으로 호탕하게 뻗어나간 천만산악과 그 웅자를 보느라면 민족의 리익과 존엄을 떠난 당리당략이란것이 얼마나 속되고 하잘것없는것인가를 느끼게 될거란 말이요.》
 의미심장하고 사려깊은 수령님의 말씀은 려형철의 마음속에 끝없는 감동의 물결이 일렁이게 했다.
 정중한 자세를 취하며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아뢰었다.
 《수령님,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번 북남최고위급회담일정에 백두산등산을 꼭 넣어야 한다고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이미 지시를 주셨습니다.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작성된 북남최고위급회담관계문건을 오늘 오후 첫시간에 수령님께 보고드리겠다는 련락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소?!》
 한순간 그이의 얼굴에는 무어라 이름할수 없는 만족스런 환희와 흐뭇함이 어려 빛났다.
 《김정일동지가 있는 한 우리 조국의 앞날은 이아침처럼 언제나 창창할거요. 그래선지 정말 기분이 좋구만. 온몸에 새힘이 솟아나는게 저 동산마루우로 한달음에 달려올라갈것 같애. 어때, 책임서기. 우리 이제 한번 뽀다 달려올라가볼가?》
 《수령님, 정말입니까?!》
 려형철은 기쁜 목소리로 환호하듯 물었다.
 《그래, 정말이요! 정말!》
 대뜸 이렇게 다짐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시선을 산정점으로 두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책임서기동무, 그 달리기는 오늘은 그만두고 우리 한나산에 가서 한번 해보자구. 난 나이가 많아도 젊어서 백두산에서 뽀찌산을 했는데 그까짓 한나산등산길을 뽀아오르는거야 큰 문제가 아니지!》
 《수령님, 정말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치 달리기에서는 려형철이 문제가 아니라는데 한수령님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그는 부러 시뽀 기색을 짓고 웅석조로 다짐을 받아냈다.
 《그래, 그래, 약속했소! 심판은 남쪽량반들을 세우지요.》
 수령님께서서는 통쾌한 웃음을 터뜨리시었다.
 그 웃음소리는 선명한 색조로 빛나는 골짜기와 숲마다에 찌렁찌렁 올려갔다.
 《하루뽀리 한나산에 올라가고싶구만. 온몸에 날개가 돋친듯이 나도 동무도 씨영씨영 한달음에 달려올라갈테지. 한나산중복에 이르면 제주도과 울릉도에서만 산다는 동박새의 청고운 울음소리를 들을수 있다누만. 어찌나 그 소리가 랑랑한지 한나산전체가 그 동박새의

노래천지라고 하요.》

동백나무의 꽃이 필 때 그 꽃의 꿀을 빨아먹는다고 하여 동박새라고 부르는 박새보다 더 작은 그 새는 둥이 푸르고 눈가장자리에 흰 고리무늬가 뚜렷하게 나 있어 쉬이 가려볼수 있다고 한다.

수령님께서서는 한나산의 그 동박새를 그려보시는것인가 아니면 이른새벽부터 온종일 《진진》 하며 맑은 소리로 청높게 울어댄다는 그 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계시는것인가. 그이께서는 저 멀리 남쪽하늘가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려동무, 이번 회담때 말이요. 북한철도를 다시 잇는 문제뿐아니라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직항로를 내는 문제도 토의해보면 좋을것 같구만. 그러면 북과 남의 우리 겨레들이 모두 기뻐할거요. 땅우로는 통일렬차가 달리고 하늘에서는 통일비행기가 날고 바다길로는 또 배들이 오가고... 그야말로 룡해공이지, 통일룡해공!》

수령님께서서는 무척 흥분하신듯싶었다.

그이의 가슴속에서 마를줄 모르는 샘물마냥 끓임 없이 솟아올라 솟아나는 격정과 환희의 물결은 행복의 파문을 그리며 누리에 퍼져나갔다.

《우리는 기어이 조국을 통일해야 하요. 려동무의 아버지를 비롯한 항일렬사들이 념원한것은 오직 하나 조국의 자주독립이였소. 그들은 피로써 찾은 삼천리금수강산이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지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지. 우리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옛전우들의 념원을 풀어주고 그들의 넋을 위로해줄수 있소. 그 래야 빨치산사령관인 내 마음도 어느 정도 편할거고.》

래일에 대한 행복한 희망으로 가슴부푸는 이 시각에도 그이의 마음은 멀리 지나온 항일의 옛 전구에 가게 시는것인가.

수령님께서서는 무거운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산책길에 별을 봐도 전우들의 눈빛을 읽는것 같고 한그루 나무를 봐도 그들이 환생해서 내앞에 서있는것만 같소. ... 나한테는 이보다 좋은 휴식이 없지.》

려형철은 부채살처럼 노을빛이 퍼져나간 하늘을 배경으로 거연히 서계시는 수령님을 뜨거움에 젖은 눈길로 우려했다.

아, 이런 새벽산책을, 걸음걸음 위대한 애국헌신과 무거운 고뇌와 심오한 사색으로 이어지는 새벽산책을 지금껏 우리 수령님 특유의 유일한 휴식으로 알고있는 자신이 너무도 민망스러웠다.

하지만 어이하랴. 우리 수령님께 이보다 더 좋은 《휴식》이란 이 세상에 없는것을, 오늘도 우리 수령님의 산책길은 조선혁명의 려명이 밝아오던 바람세찬 백두의 그 눈보라길과 이어져있는것을!

《이젠 숙소로 돌아가자구.》

얼마후 숙소현관앞에 이르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향해 몸을 돌리시였다.

《책임서기동무, 오늘 새벽에 내가 말한걸 잊지 말라구.》

잠시 생각을 더듬던 려형철은 《예, 한나산에서 달리기를 하자고 약속한것 말입니까?》 하고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음, 달리기도 꼭 해야지. 헌데 그보다 먼저 말한것이 있었는데?...》

《예, 북한최고위급회담관계문건 말입니까?》

《아니, 그것 말고.》

《?...》

그는 어리둥절했다.

《거 있잖소.》

《?!》

《아, 그거 새해 첫날아침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줄 세배답례인사 말이요. 래일부터 우리 둘이서 제일 좋은 인사말을 하나하나 골라보자구. 그리고 오래잖아 고모도 만나게 되겠는데 그때 려동무가 고모에게 할 인사말도 접해서 같이 골라보지요. 고모를 만나면 반세기동안 쌓이고쌓인 생리별의 고통과 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릴 그런 인사말을 올려야지. 그러니 래일부터 시작하자구, 알았지?》

수령님께서서는 정색한 낯빛을 지으시며 다짐을 받듯 강조하시였다.

려형철의 심장은 크나큰 감동으로 하여 세차게 뛴뛰었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부디 천년만년 장수하십시오.)

그것은 빛으로 가득찬 대지와 숲의 속삭임이였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축원의 웨침이기도 했다.

그 다음날 새벽 4시.

《수령님, 산책시간입니다.》

려형철이 알려드리자 부피두툼한 문건을 보고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눈길을 떼시고 머리를 드시였다.

《책임서기동무구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는가?》 무척 놀라운 어조로 말씀하시며 탁상시계를 보시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께서는 결심하신듯 《오늘은 산책을 그만둡시다. 시간이 너무 모자라누만.》 하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

그는 다음말을 잊지 못했다.

《나도 동무마음을 알아. ... 오늘은 이 조국통일문건을 보는것만으로도 난 산책을 한거나 같거던. 안 그래, 책임서기?》

하여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오랜 세월 한번도 번진 적이 없었던) 새벽산책마저 하지 못하시였다. 그날은 1994년 7월 7일이였다!

작은 조각돌

리광선

이 돌이란 말인가
우리 수령님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셨다는
그 조각돌이

바람이나 불지 않는
안침한 곳을 찾으셨더라면...
땀별이나 피하여
어느 그늘밑을 찾으셨더라면...

붉은 흙먼지 날리는 속에서
흐르는 땀도 아랑곳 않으시고
이 작은 조각돌을 주어드시며
땅바닥에 친히 금을 그으시며
강냉이 심는 법이며 흙갈이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시던
그날의 수령님모습

인민을 위해 한평생 불태워오신
그 위대한 심장으로
무르익혀오시고 다듬어오신
천만가지 사랑의 설계를
인민에게 펼쳐주시는데서
굳이 그 어떤 지시봉도

필요치 않으셨던 우리 수령님
그리도 쉬이
인민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어
인민을 하늘처럼 받아들여오신
위대한 그 한생
이 작은 조각돌에 다 어려있는것인가

수령님 이 땅에 펼쳐주신 행복이
수령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팔뚝같은 이삭으로 금시 휘여질듯싶은
저 강냉이바다인가
금나락 설레는 저 벌인가

이 세상 가장 위대한분을
아버이로 모셔왔고
이 세상 가장 위대한분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셔가는 우리 인민

진정 아버지 그 사랑
세월을 두고 꽃피고꽃피
이 땅우에 천만가지 복이 넘쳐도
인민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가슴뜨겁게 새겨주는 새기여주는
아아, 작은 조각돌!

이 손 토 말 겨 보 네

—군자혁명사적지 한상의 유화앞에서—

박상민

그리도 미더우시여
수령님, 아버지수령님
지금도 애어린 처녀의 손을
꼭 쥐시고 못 놓는것인가
남녘에 고향을 둔 나어린 처녀선반공
아직은 배움의 창가에 앉아있어야 할 나이
허나 승리를 꽃다발인양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싶다는
처녀의 대답이 그리도 대견하셨던가

이 나라 녀인들
누구나의 가슴에서 울리던 목소리
수령님만 계시면 그 어떤 전쟁도
두렵지 않다던 목소리
장산리에서도 락원의 주철직장에서
직동령에서도 남강마을에서도 울리던 목소리
강의하고 억센 조선녀성들의 힘
사랑앞에서는 부드럽고 여리어도

증오앞에서는 서리발치는
조선녀성의 또 한 세대를 보시는가

제 몸보다 몇배나 큰 선반기도
담차게 돌리며
전선의 병사들에게 총을 보내려
발판도 두개나 올려딘고
커다란 군화도 스스럼없이 신은 처녀

수령님마음속엔 전쟁을 이기는
인민의 모습처럼 보이셨던가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지
반세기도 넘었건만
수령님은 그날처럼
처녀의 손을 꼭 쥐고계시나니

아, 선군시대 선반공 이 손도
수령님 따뜻한 손길에 맡겨보나니
선군조국의 강철제품들을 깎는 이 손
아버지장군님께서 꼭 잡아주실
그날을 그려보며 맡겨보네

봄날의 들길 위에 해저무는데...

류 춘 선

봄날의 들길 위에 하루해 저무는데
우리 수령님 못 떠나신
그날의 발머리

협동화의 봄을 맞은
농장벌에 울리는
우리의 첫 트랙토르 발동소리
정겨웁게 듣고 또 들으시며...

해종일
바퀴자리 또렷이
번져지는 이랑이랑 다 밟으시며
아지랑이 가물대는 흙밭도 비벼보시며
구수한 흙냄새에 취하신듯
농민들과 무릎 마주하셨던
그날의 발머리

농민들 저마다
트랙토르이야기로 흥에 겨웠는데
흙에 절어 터갈린 손들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보실 때

농민의 손에 장알이 풀리면
이삭이 쪽정이가 된다고
슬며시 웃으며 등뒤로 가져가던
그 손과 손들
마음속에 조용히 안아보신 수령님

조상대대 가난의 멍에를 끝던
만경대농가에서 탄생하신분이시기에
농장벌에 울려퍼지는

첫 트랙토르 발동소리 들으시며
기계농사의 흥겨운 래일을
뜨거이도 안아보시는가

하늘가엔 노을이 불타고
땅우엔 사랑이 넘치는데
씨뿌리기와 김매기, 가을걷이...
년년이 이어지는 힘든 농사일을
기계농사의 풍요한 가을로 안아오시려
해저무는 들길을 떠나신 수령님

그날에 농민들
미처 다 몰랐어라
수령님 가신 그 길로
얼마나 크나큰 어버이사랑이
천지개벽 노래하며
줄지어선 트랙토르와 농기계의 발동소리로
끝없이 실려오고 실려오게 되었는데

누구도 몰랐어라
그날에 우리 수령님
농민들의 땀젖은 손으로 가꾼 낱알은
먹어도 마음에 걸린다 하시며
조반상을 미루시고 농장벌을 찾아오신줄

이 나라 농민들의 가슴마다에
기계농사 봄씨앗을 심어주신 그날
아, 그날은 어버이 우리 수령님
위대한 한평생의
평범한 하루였어라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아버지는 한생을 나라를 위해 살을 저미고 뼈를 깎다가 돌아갔다. 거뜰 되는 악형과 동상으로 몸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도 굴함을 모르고 민중을 찾아가고 동지들을 찾아가던 아버지였다. 힘이 진하면 지팡이를 짚고 배가 고프면 생선을 움켜삼키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걸어갔던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어느 당파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나라의 광복과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였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자루의 권총,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다. 그것은 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유산이었다. 그렇지만 나에게에는 그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 없었다.》

탁월한 혁명가의 생애 앞에

문 동 식

푸른 숲이 무성한
여기 봉화산마루에 올라서니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엔 떠올라라
선생님의 기록한 혁명생애가 비길
별처럼 빛나는 불멸의 화폭들이

망국의 비운이 뒤덮였던 그 세월
이 땅 가시는 곳마다에
선생님께서 높이 올리시던 계몽의 종소리
동지 찾아 걸으시던 무수한 밤길
철창속에서도 독립운동의
더 밝은 전망을 구상하시던 그 영상

생각할수록 봉화산보다 더 크게 더 높이
우리 눈앞에 보여와라
선생님께서 필승의 신념을 새기시던
눈덮인 남산의 푸른 소나무
온몸에 심한 동상을 입으시고도
압록강 얼음장우로 한치, 또 한치
배밀이해가시던 그 모습도…

조선국민회조직망을 확대하시려
독립결사 핵심들을 키워내시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험한 길을 걸으시던
선생님의 옷자락 그 언제 마른적 있었던가
짚신은 언제 한번 성한적이 있었던가

조국과 한몸되어 민족과 한운명이 되어
온몸을 헌헌히 다 바쳐오신
애국의 화신 김형직선생님이시여
수난의 그 세월엔
조국은 곧 선생님이시였고
선생님은 2천만동포에게
조선독립의 희망찬 등대였거니

어리신 아드님을 미래의 태양으로 키우시며
반제자주 무산혁명의 첫 초행길도
두자루 권총으로
선군혁명총대의 그 시원도
일심단결의 그 초석도
《지원》의 뜻에 담아 이 땅우에 안아오신
위대한 절세의 위인이시여

선생님 생애의 그 빛나는 업적들을 영원히 품고

만경대혁명일가
백두산3대장군의 뜻이 꽃피는
사회주의 내 나라 그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의 가슴속엔 그 언제나
선생님의 멸적의 기상이
불사신의 날개로 퍼덕이고있거니

오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이시여
짧으신 한생애
후손만대를 한품에 안으시고
애국의 뉘와 숨결을 다 부어주신
선생님의 생애는 불멸의 생애

하늘과 땅처럼 영원한 생애

이 땅에 넘치는 총대의 바다에
강토에 소용돌이치는 창조의 열풍에
오늘도 뜨겁게 굽이치는 선생님의 숨결
선군조선의 룡성변영속에
선생님은 길이길이 영생하여라
영생하시며
이 땅우에 끝없이 키워주고계신다
봉화산의 푸른 숲보다 더 무성하게
열혈애국투사 영웅들의 장엄한 대오를

—봉화혁명사적지에서—

내 삶 의 기 습 은 ...

김 정 삼

물결도 사무친 추억을 속삭이는
압록의 포평나루
어이하여 력사의 이 기습에서
축복받은 나의 삶, 나의 운명을 두고
생각은 끝없이 깊어만 지는것인가

소중히 쥐여보는 나루터의 조약돌엔
사랑의 요람속에 이 몸을 품어주신
수령님의 그 체온 고이 스며있는듯
얼굴을 스치는 한줄기 강바람에도
희망의 돛목을 환희로이 펼쳐주시던
아버이의 그 숨결 훈훈히 실려오는듯

눈곱 후더워지누나
강녘에 피어난 저 버들꽃에도
함초롬히 봄빛 물든 잔디밭에도
수령님 안아오신 내 삶의 행복
그 숭엄한 의미가 되새겨져
감사의 더운 눈물 적시는 이 기습

말해다오 사연많은 압록강 푸른 물아
열네살 어리신 우리 수령님
피바다에 잠긴 조국의 아픔을 안고
이 강가의 조약돌 소중히 품을 때
그 절통한 심중속에 정녕
그날의 수난당하던 동포들만이 있었던가

강산에 서린 어둠을
맹세의 눈빛으로 황황 태우시며
수령님 내다보셨던 그 미래의 언덕에
꽃피는 오늘의 이 강산
꿈많은 이 청춘이 웃음안고 서있거니

아 그날에 벌써
내 삶의 혈맥은 이 기습에서 이어져있었구나
얼음을 깨물며 가랑잎에 쪽잠들며
백두의 눈비와 초연탄우속을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 불타는 애국의 심장에

1211고지의 파편을 밟으시며
강선의 흰눈을 어깨에 맞으시며
수령님 쉽없이 새겨오신
그 한평생의 자옥자옥우에
떨기저 핀 나의 삶!
나의 이 행복!

해빛밝은 강변이어
나루터의 물결이어
에서 나는 온 세상에 노래하노라
인민 위한 우리 수령님 사랑의 품을 떠나선
행복의 기습에 대해 생각할수 없는 내 삶임을
수령님을 삶의 은인으로 천세만세 모시고 살
김일성조국이라고...
김일성민족이라고...

위대한 축복속에 날으는 별

김 석 주

그날

우리의 위성이 날아오르는 그날
장군님은 근엄히 서계시였다
동서방 온 세계의 수억만 눈길들이
서로 엇갈리며 초점을 모은
바로 그 지점을 지켜보시며

그윽하신 미소—

우주로 가는 위성을 바래주려
선군장정의 먼길을 오신 장군님
그 길에서 겪으신 천만고생
이날의 미소속에 다 감추시며
마음속에 뜨겁게 안아보신
육중한 위성의 동체

그것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함께 웃으며 이겨온
불굴의 인민이 발휘한
힘과 정신의 응결체
그래서 우리 인민의 살불이와 같고
피줄과도 같은
바로 그런것이어서
그리고 생각깊이 안아보신것이다

심장을 주고

사랑을 주신
정든 생명체를 떠나보내시는듯
미더운 마음으로 쓰다듬으시던 그이
단호한 결심으로
력사의 한순간을 짚으시자

가 사

사 랑 의 보 슬 비

민 향 속

산에 들에 보슬비 포근히 내릴 때면
환하게 웃으시던 수령님 더욱 그립네
풍년비가 온다고 손에 받아보시던
그이의 기쁨속에 오늘도 내리느냐
아 정다운 봄비 사랑의 보슬비야

보슬비 내리는 4월의 봄명절도
포전길 걸으시며 황금가을 그리시었네
인민 위해 한평생 바치신 그 사랑

지동치는 퇴성과 불줄기

순간

움쉴 그 위용에 지구덩어리가 흔들렸다
강대한 국력인가
분출하는 정신력인가
내여뿜는 거대한 불구름
오 장쾌하게 날아오른 별이어
《광명성2호》여

그이 눈길을 들어 그 별을 바래주시였다
수천리 창공 멀리
별과 함께 마음 달리며
장군님은
궤도에 진입하는 위성에 미소를 보내시였다
끝없이 돌고돌 먼길을 축복해주시였다

강성대국대문의 손잡이를

억척같이 틀어잡고
지축을 배심있게 딛고서신 장군님!
그날 그 순간 우리는 보았다
세계앞에 자주강국의 위용을 펼쳐주신
필승불패의 힘과 의지와 정신력을

날으라 빛나라 빛을 뿌리라

이 나라 존엄과 승리의 별이어
백두산선군령장의 담력과 배짱으로
너는 우주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거니
우리 그렇게 열리라, 강성대국의 대문을!

못 잊어 속삭이며 너 고이 내리느냐
아 정다운 봄비 사랑의 보슬비야

이민위천 우리 세상 이 강산에 꽃피우신
태양의 그 미소가 봄비에 가득 실렸네
수령님의 사랑 넘친 그 축복을 안고서
인민의 마음속에 오늘도 내리어라
아 정다운 봄비 사랑의 보슬비야

아 , 룡 악 산

전 성 호

오르면 하늘끝에 가닿을가
룡들이 하늘로 올랐다는
전설도 력력한 바위우에 올라서니
이 몸도 룡이 된듯
날개가 솟는듯

룡이 된들 어떠하리
꿈세상 별세상
하늘끝에 있다한들
이 명산을 못 떠나
이 절정을 못 떠나

보아라
봄을 맞은 진달래
봉이마다 울긋불긋 곱게도 웃는데
야영온 아이들 하얀 등산모
꽃본 나비런가 꽃속에서 나풀나풀

철쭉이 피어웃는 삼룡골엔
새들의 노래소리 유정도 한데
름름한 신랑결에
어여빠라 꽃같은 신부
선남선녀 예왔는가
못가의 룡들도 시샘하는듯

블음주라 스님들 일렀다만
이 좋은 날 삼룡골 야식터에
머리 흰 스님도 손잡아 이끌어
곡주 한잔 부어주고싶어라

살생을 금함이라
한생 목탁을 두드려온 손에
칼을 들고 전장으로 떠나간이들

스님들의 애국의 마음 오늘도 전하는가
법운암의 삼형제 은행나무는
오늘도 설레이며 잎있는 푸르른데

파릇파릇 이끼 돋아 쭈어진 바위들이
룡같은 기상으로 우뚝 솟은 룡악산
그 기상 하도 림름해
대동강에 머리감고 연지끈지 예쁜 얼굴
각시같은 모란봉이 정을 맺잔다

정말이지 여기선 다 보이누나
아이들의 웃음소리 함뿍 담아안고
빙글빙글 돌고도는 대성산의 큰 물레도
다 보이누나 푸른 하늘아래
다 보이누나 락원의 강산이

그 끝은 정녕 어디더나
이 높은 산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끝은
바다에도 하늘에도 이 산봉우리에도
이 땅에 사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락원의 꽃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장군님 가시는 그 전선길은

보이지 않는구나
사랑의 명산 락원의 상상봉을 꾸려주시고
더 큰 행복을 마련하시려
낮에 밤을 이어 가고가시는
장군님 그 전선길 그 끝은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높아도
이 마음속엔 더 뜨겁게 울려오누나
인민 위해 가고가시는
장군님 야전차의 차바퀴소리

경구, 격언

- 《게으름뱅이의 혀는 오히려 분주하다》
- 《습관은 습관이니만치 창문밖으로 내던지지 못한다. 습관은 한발자국씩 집안에서 끌어내야 한다》
-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 위신을 차리기보다 위신을 차리지 않고 존경을 받는것이 더 좋다》
- 《신념은 가장 힘있는 창조력이다》
- 《자신을 고무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단은 다른 사람을 고무해주는것이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혁명전사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문학은 마땅히 수령님과 우리 인민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관계를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그 래야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밝혀낼수 있다.》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형상하려면 혁명전사와 인민에게 베푸시는 믿음 과 사랑의 정치를 잘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서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말 아야 한다.》

한편에

불멸의 자욱으로 이어진 위인의 하루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11년 전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하루에만도 수많은 대상 들을 현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을 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주체87(1998)년 1월, 잊지 못할 력사의 그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주시였다.

그 전날 수백리의 밤길을 달려 새벽에 자강도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순간의 휴식도 없이 마중나온 책임일군으 로부터 사업실태를 보고받으시고 그길로 북천뜨우개식발전소 로 향하시였다.

몹쓸 칼바람은 사정없이 몰아 쳤고 쇠불이에 손을 대기만 해도 뽕뽕 얼어붙는 때여서 밖에 조금 서있는것조차도 몹시 어려운 때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차디찬 바람을 맞으 시며 강물우에 떠있는 발전소를 구체적으로 돌아보 시고 발전소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귀중 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강1호발전소와 전기 화된 55동의 살림집마을, 장자산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기문제를 풀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이러한 과정에 오전시간은 다 지나가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후사업을 시작하기로 계획한 시간까지는 20분정도밖에 여유가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 데 간단히 요기나 하자고 하시며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겸소한 《야전식사》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불과 몇분안에 식사를 끝내시고 어느 한 련합기업소로 향하시였다.

현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업소의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나아갈 길을 뚜렷 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련합기업소에 대한 현지도를 마치시였을 때는 산골의 짧은 겨울해가 서산에 걸리고 사위는 땅거미가 깃들기 시작한 어슬넛이었다.

이른아침부터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현지도의 길 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이 넘쳐되어 일군 들은 그이께 오늘 현지도는 그만 끝내셨으면 좋겠나 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너무 걱정을 말라 고 일군들을 달래시며 또다시 차에 오르시여 다음 대 상인 북천3호발전소로 향하시였다. ...

이것이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자강 도현지도의 하루로정이다.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도 인간이시다. 그이이사라고 어찌 피곤을 모르시고 시장기를 느끼지 못하시랴.

오직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모든것을 달게 여기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 게 나의 기쁨은 언제나 인민들의 행복에 있다고, 나는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살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끼니를 번저가 며 일하다가도 인민들이 잘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피곤도 한시에 사라지고 힘도 솟는다고 뜨겁게 말씀하 시는것 아니랴.

인민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시는 길에서 무한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우리 장군님의 것처럼 고결하고 위대한 헌신이 있기에 우리 인민은 복된 삶을 누리며 150일전투에서 영예 로운 승리자로 살며 투쟁하고있는것이다.

시 조

황금산기슭의 추억

한 원 희

전설속의 옛이야기와 같이
황금이 쌓여 황금산이 되었다고
억만재부를 온 세상에 고하듯이
문지령 하늘가에 솟아있네
《황금산》탑

그 탑앞에 서면
산이 산이 찢찢 문을 열어 길을 낼듯
금시 보화의 채광이 쏟아져나올듯

내 황홀경에 눈이 부실듯
산아, 황금산아
너 위인들의 사랑 안고 태어나던
그때 그 시절에 나를 데려가주렴
추억의 나래에 나를 실어가주렴
추억의 노래노래 불러주렴 불러주렴

여기에 무엇이 있었던가

전쟁이 끝난 이듬해
포연이 습벤 옷차림그대로
수령님은 찾으시었네
창성
두메산골

여기에 무엇이 있었던가
바위와 바위사이에
사람이 산다고 간암리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학교 가던 맨발 벗은 아이들이
아버이수령님께 인사드렸네
반갑게 저마다 달려와
오롱조롱 매달렸네

—내가 너희들에게
신발 하나 신기지 못했는데
나에게 인사하누나

나직이 외우시며 읊기시는 걸음
산처럼 창성의 산처럼 무거우셨네
먹을것이 떨어져 굶뿌리 말리우는

전사자가정의 트랙가에서도
차마 무거운 발걸음 떼지 못하셨네

그이는 해가 저물도록
산비탈 땀기밭도 올라가보시고
점동새 울고 산짐승들이 우는
두메의 깊은 밤도 지새셨네

보시는것마다 들으시는것마다
피로움을 자아내는 곳
복구건설로 들끓는 조국땅 방방곡곡
아버이수령님을 기다리건만
여기에 무엇이 있어 오셨던가

아, 여기에 있었네
맨발 벗은 아이들이
굶뿌리로 때식을 굶때는 가난이
전쟁의 재난까지 덮쳐들어
집마저 다 잃은 사람들이

산에 막혀 골에 막혀
세상밖에 있다 해도
전화의 불길을 곳곳이 이겨낸 인민이
행복의 언덕에 높이 올려세울 조국이!

강 냉 이

강냉이
두메산골 강냉이
메마른 돌밭에
아버이수령님 심어보신
창성땅 강냉이

수령님은 바깥씨를 드시고
장군님은 소랭이를 드시고
포기포기 물도 주시며
김도 매고 돌도 추어내셨네

땅이 메말라
대대로 조만을 심었던가
기장만을 심었던가
한해농사 한해식량 못내는 땅

어이하면 배불리 먹여줄가
다음해도 오시고
그 다음해도 오시고
끝끝내 성공하신 강녕이농사

못 잊어 못 잊어라
팔뚝같은 강녕이이삭을
당중앙전원회의 연탁에 내놓으시던
어버이수령님 모습

창성에 잘살 날이 온다고
돌밭에도 풍작을 안아왔다고
산이 많은 우리 나라
산골농사 본보기로 보여주신
창성땅 강녕이

허리띠 졸라매던
전후의 어려운 나날에
온 나라에 심어
온 나라에 뿌리신 씨앗인가

아, 두메산골에
수령님 심어가꾸신 강녕이
추억깊은 강녕이
수령님 품어안은 이 땅엔
비어돌 땅이 한치도 없어라

찢 팜 이 단 물

서늘한 나무그늘아래로
리내 일꾼들을 불러주신 수령님
오늘은 조합이 쉬는 날인데
다들 어떻게 휴식하는가고
다정히 물으셨네

이때라 일꾼들은 말쑥드렷네
산에 흔한 산열매
온 마을이 듬뿍듬뿍 지고서
삭주장마당으로 떠나들 갔다고

어이 모르시랴 우리 수령님
찢팜이 머루 다래 산열매 팔아야
옷이랑 신발이랑 사오는 그 사연
허지만 그이는 환히 웃으시며
일꾼들에게 손수 부어주셨네
보기에도 멋들어진 찢팜이단물을

한생에 이런 일 두번다시 없으리니
어찌 사양할수 있었으랴
그들은 병글병글 입맛을 다셨네
찢팜이향내가 그저그만이라고
평양의 고급음료가 제일이라고

일꾼들은 알수 없었네
입맛 눈맛 일등급인 이 단물
그이 몸소 따신 창성찢팜이
아, 그 찢팜이단물인줄을

구름도 쉬여넘는 고개고개
산과일짐 이고지고 넘는 어른, 아이
그 땀이 보여와 가슴에 젖어와
체고장 산열매 체고장에서 사주는
산과일가공공장을 세워줄수 없을까
그이 친히 만들어보게 하신 단물인줄

정녕 누가 알수 있었던가
그날의 찢팜이단물이
산골사람 고생을 가서줄줄을
딩그렇게 솟아오른 과일가공공장이
산골사람들 행복을 안아줄줄을

아, 찢팜이단물을 부어주시던
그날의 수령님 뵈고싶어 뵈고싶어
산에 산마다 골에 골마다
그리움의 열매들이 무르익네
세월이 가고 또 가도
황금의 열매들이 주렁지네!

비 는 오 고 날 은 저 무 는 데

비는 오고 날은 저무는데
양을 몰고 돌아오는
방목공처녀

뜻밖에 꿈과 같이 뵈웠네
마중나오신 장군님을

젖은 옷 젖은 신발
온몸에 달라붙은 풀잎, 풀씨
그이앞에 그 어이 나서나
처녀는 부끄러이 어쩔줄 몰라
인사도 미처 못 드리었네

—수고하누만
비가 오기 전에 일찍 올걸...

그이는 자신의 비옷을 벗어
처녀에게 입혀주셨네
안됩니다 안됩니다
장군님은 어찌했습니까
애타게 간절히 막아도
자신의 비옷을 입혀주셨네

우리야 비를 맞으면 뭐랍니까

가슴에 넘치는 그 말
눈물이 되어 쏟아졌네
산천에 비는 오는데
그보다 더 세찬 감격의 소나기
처녀의 온몸에 젖어들었네

자, 어서 가자고
창성은 축산을 잘해야 잘산다고
산이 많아 참 좋다고
장군님 웃으시며
양을 몰아 앞서가시는데

신기한 천지조화가 일어났네
어느 사이 비는 멎고 하늘은 개이고
설골령 하늘가에 무지개 일어섰네
밝은 앞날의 크나큰 대문처럼!

꿀 벌 이 야 기 (1)

올봄엔 류달리 산마다 꽃천지라
올가을엔 산마다 열매천지 이루리
에— 이해엔 산파일주며 산파일단물
폭포처럼 강물처럼 쏟아내리라

군일군 즐거운 속구구
군주민 부수입 늘어나리
수령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실가
생각도 흐뭇이 기다렸더니
웬걸 산에산에 산파일 흥년
일군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네

때마침 창성땅 찾아주신 수령님
안타까운 그 사연 들어주셨네
그런가고
그러면 산은 산마다 꽃은 많으니
꿀벌이나 본때있게 쳐보라고
슬쩍 나직이 귀뜸해주셨네

일군은 아쉽지만 생각하였네
수령님말씀이 옳지
티끌모아 산이라고
꿀벌을 쳐서라도 인민생활 높여야지

그 이듬해 하늘 푸른 가을이 왔네
수령님 수도 멀리 전화로 물으셨네
올해 창성이 어떤가고
꿀벌농사 재미를 보았는가고
결에 계신듯 울려오는 웃음소리

두손으로 감싸친 송수화기에
일군은 감격의 눈물을 쏟았네
—어버이수령님 고맙습니다
꿀벌이 산파일풍년 안아왔습니다
파일주며 파일단물이 쏟아져나옵니다
거기에 또 꿀은 꿀대로...
일거량득입니다!

꿀 벌 이 야 기 (2)

부지런한 꿀벌들이
꽃을 찾아 날아가고
꿀을 안고 날아들더니
원 이런 일 봤나
그모두 벌통에 달라붙어
뽕뽕— 날개짓만 하누나

꿀벌치기로인님
수령님 오신줄도 모르고
이 벌통 저 벌통 오가며 한숨짓네
부지런한 꿀벌들이
건달병에 걸렸고나
난사로다 이 무슨 조화람

—로인님
이 무더위에 수고합니다

우렁우렁하신 음성
숲을 헤쳐나오시는 수령님
로인은 너무나 반갑고 황송해
꿈속처럼 인사를 드렸네

그이는 웃으시며 말씀하셨네
부지런한 꿀벌을 나무람말라고
날씨가 무더운 이런 날엔
꿀벌들이 모여들어 날개질을 한다고
꿀이 녹아내리지 않도록
저렇게 부채질을 하는것이라고

로인은 두눈을 번쩍 떴네
아하, 내가 왜 그걸 몰랐나
하기야 언제한번 꿀벌을 쳐봤나
꿀이 다 뭐람 어림도 없었지
한평생 돌발에 명줄을 걸었던
지난날의 가난뱅이 꿀이 다 뭐람

벌통은 서늘한 그늘아래 옮겨지고
꿀벌은 꽃을 찾아 꿀을 찾아 날았네
로인의 두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마음속엔 불같은 감탄

《정말 우리 수령님은
천하의 리치를 밝히는
하늘이 내신 위인이시야!》

장 군 님 과 함 께 나 는 걸 었 네

수수한 회색교복바지에
흰 남방옷을 입으시고
창성을 자주 찾아주시던 장군님
그날의 그이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날의 그이와 함께 나는 걸었네

장군님은 말씀하셨네
—옥포리에 축산반이 갓 생겼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수령님 건느실 징검다리를
우리 먼저 건너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눈시를 뜨거이
장군님과 함께 징검다리 건넜네
이렇게 가고간 길
불별이 내리는 한낮에도 이어졌네

베를 여섯채 차려놓고 천을 짜는
남의 집 옷방이 《직물공장》이라고
공장터전을 크게 잡아주시려
수령님 가시는 그 길
우리 먼저 가봐야 한다고
자욱자욱 앞서가시는
그이를 따라서 나는 걸었네

이렇게 걸었네
장군님과 함께 걸었네
머나먼 약속리
머나먼 금야리

창성에도 논을 풀어 벼농사 지어야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는다고
쉬임없이 가고가신 길
때로는 해산방조 가는 할머니 만나
자신의 차까지 내어드리시고
자신은 걸어서 가신 그 길

아, 창성땅에 락원을 안아오시려
어버이수령님 보좌해드리신 길
천리 또 천리 나는 걸었네
장군님과 마음속으로 함께 걸었네

그 길우에 나는 보았네
사람 못살 고장이라 떠나갔던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이라 다시 찾아오는것을
우리 수령님께 우리 장군님께
감사의 큰절 드리는 그 모습들을
조국의 지도우에 별이 되어 솟아오른
아, 창성의 새 모습을!

수 령 님 의 박 수 소 리

창성땅에
처음으로 일떠선 문화회관
경사에 경사가 겹쳤네
어버이수령님

창성의 노래춤공연을 보아주셨네
종목이 바뀔 때마다
선참으로 크게크게 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박수소리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이 울려왔네

무슨 노래인들 없었으랴
무슨 춤인들 없었으랴
앞을 보면 황금벌 오탁이 설레고
뒤를 보면 황금산 백파가 주렁지는
백가지 열백가지 창성이 변해
백가지 열백가지 노래춤이 나왔네

하루일 끝낸 저녁에
짹짹이 익혀본 종목들
황금산에 황금열매 따내리는
처녀들의 즐거운 노래도 있고
산밭에 흐르는 흰구름과도 같은
양떼모는 방목공의 춤도 있었네

어제날엔 가난우에 가난이
산이 되어 산으로 솟았던 곳
오늘은 행복우에 행복이
산이 되어 산으로 솟아오른 이야기
노래되어 이어졌네

춤이 되어 이어졌네

처음엔 부끄러워 인사도 못하더니
산과 산을 황금산으로 세워놓고
그 자랑 노래와 춤으로 보여준다고
어버이수령님 힘있게 보내주셨네
가슴가슴 세차게 흔드는 박수소리

아, 생활을 노래춤으로 꽃피우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그이의 박수소리 우렁찬 박수소리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운 노래처럼
더 좋은 앞날을 축복하는
가장 성스럽고 숭엄한 음악처럼
장내에 감격의 눈물 쏟아내었네

세월은 흘러흘러 어언 반세기
무릉도원으로 변하고 또 변한 창성땅
오늘도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가는
그날의 그 박수소리에 받들려
더 높이 더 높이 솟아오르네

나 에 게 구 령 을 쳐 달 라

리 광 규

오늘은 7.27
로병들 레복 차려입고
가슴에 훈장을 달고
전승기념탑을 찾으니
불언덕에선
옛 분대장이
나를 굽어보고있구나

세월은 멀리 흘러
그대가 물라불 모습으로
머리에 흰서리 없고 왔건만
어쩐지 그대앞에선
그 옛날 1보총수 그대로
차렷자세로 서고싶다

혹시 내 마음
차지했던 그날의 참호를 떠나
안락의 보금자리 찾아들가봐
그 구령을 놓치면
마음까지 늙을가봐

그대를 찾은 이 마음에
어서 구령을 쳐달라
그러면 그때처럼
바위돌에 썩썩 갈아
시퍼렇게 날이 선
보병삽 으스러지게 잡고
다시 미군놈의 정수리 내리치리

1950년대 그날에는
수령님명령 받들어
이 땅에 전승의 날을 안아왔다면
선군의 오늘에는
장군님 결사옹위해
대오의 앞자리에 내가 서리니

아무렴 그 대오엔
어제날 1보총수 내가 서야 하구말구
그러니 나의 옛 분대장이여
어서 나에게 구령을 쳐달라
—돌격 앞으로!

담 시 는 담 시 다 와 야 한 다

— 최근년간 창작된 담시들을 펼쳐면서 —

리 동 수

담시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지난 세기 60년대초에 나온 최승철의 《기쁨의 담시》를 연상하게 된다.

그동안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기쁨의 담시》는 마치 담시의 대명사처럼 기억되면서 인상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리탈사의 직업에 대한 애착심과 긍지감을 심어주는 속에 이 나라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며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후대관과 뜨거운 인정미가 가슴가득 안겨와 깊은 감동에 잠기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담시와 같은 이야기형식의 시도 장려하여야 한다. 생활에는 시적이면서도 극적인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그런 소재를 시로 형상하는데서는 담시형식이 격에 맞는다.》

시적정서도 있고 극적인 이야기거리도 있는 감동적인 소재를 가지고 시를 형상하는데는 담시가 가장 적중하고 격에 맞는 형식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담시만이 가지고있는 창작생리가 있으며 고유한 특성이 있다.

담시는 시인의 주관이나 간섭이 없이 시적이며 극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시인의 의도와 사상이 설명없이 드러나도록 꾸려져야 한다. 그러자면 담시적인 소재자체를 보여주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고뇌어린 사색과 탐구를 기울여 형상적재구성작업을 빈틈없이 해야 하며 발견이 있는 몫이 뚜렷한 시를 내놓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몇해사이에 창작된 담시들을 보면서 시인들이 오늘의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담시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 정력을 기울이고있다는것을 볼수 있었다.

담시 《인민의 복수자》 [오영재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6(2007)년 10호], 《흙에 대한 담시》 [문동식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7(2008)년 7호]를 비롯하여 《닭알에 대한 이야기》 [김경기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4(2005)년 10호]와 같은 작품들은 모두다 담시다운 체모를 갖춘 인상적인 작품들이였다.

담시 《인민의 복수자》는 전선으로 식량을 싣고 가는 한 로인과 길동무가 된 병사사이에 맺어진 극

적관계를 이야기거리로 펼쳐면서 사랑과 증오로 일관된 눈물의 철학, 피맺힌 복수의 철학을 비장하고 랑만적인 정서에 담아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병원생활을 마치고 부대를 찾아가던 병사가 길가에서 전선원호미를 싣고가는 로인과 길동무가 되었다. 빼적이며 굴러가는 달구지우엔 한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다.

로인은 말하였다. 바로 저 애가 우리 집 열세식구중에 살아남은 막내손자라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때 미제놈들이 온 가족을 다 학살하고 그 애 하나 남았다고, 그래 저 어린것 하나를 식량바리에 싣고다니면서 싸우는 병사들에게 복수를 부탁한다고. ...

그 사연 너무도 억울하고 기가 막혀 병사는 치미는 격분을 못이겨 눈물로 옷소매 훔치는데 로인은 엄하게 타이른다.

...

—자네는 아직 병사가 채 못되었네
우리가 울고있기는 아직 일러
우리가 미제놈들을 다 쳐죽이고 이기는 날
그날에 가서야 나는
이날까지 가슴에 차있는 눈물을
동이로 쏟으며
머칠을 품놓고 실컷 물어보겠네

...

로인의 심정을 뜨겁게 안은 병사는 로인과 헤어지며 심장으로 맹세했다. 《진짜병사》가 되겠다고, 《인민의 복수자》가 되겠다고. ...

그후 병사는 로인앞에서 언약한 맹세를 그대로 실천했다. 무명고지습격전투에서 불뿜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고 아군의 돌격로를 열었다. 그때 그의 가슴에서 찾아낸 피에 얼룩진 복수기록장엔 로인과 약속한 맹세의 글발이 적혀있었다. 《—아바이, 진짜병사가 되겠습니다/인민의 복수자가 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벽노을속에 병사를 안아일으켰을 때 어린아이 불에 입맞추던 그의 입술은 아직도 붉은데 로

인이 동이로 쏟아놓고싶다던 그 눈물을 그는 진한 피로 쏟고있었다.

사람들이여, 꽃나이청춘으로 아바이앞에 언약한 맹세를 목숨바쳐 실천한 병사의 뜨거운 가슴을 헤쳐보자. 시인은 이 뜨거운 가슴속 호소를 설명없이 정서질은 극적이야기에 담아 독자들에게 맡기었다. 허나 그뒤에 오는 정서적여운은 얼마나 크고 뜨거운가. 이것은 비단 한 로인의 복수만을 위한것이 아니었다. 병사는 이 로인의 기막힌 모습에서 이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원한에 찬 모습을 보았으며 한 로인의 복수만이 아닌 이 나라 전체 《인민의 복수자》로 떳떳한 생을 바쳤던것이다.

사랑과 증오, 눈물과 복수의 걱정이 솟구치는 속에서 배어나오는 시적인 정서와 극적인 이야기거리가 얼마나 짙은 여운속에 뜨겁게 안겨오고있는가. 이담시는 《인민의 복수자》라는 서정적책을 잡아쥐고 그것을 걱정이 태동하는 극적인 이야기에 담아 감동깊게 펼쳐보여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가슴속깊이 메아리치고있다.

이와 함께 《흙에 대한 담시》 역시 인상깊은 이야기를 정서있게 끌고나가면서 한평생 땅과 인연을 맺고 손수 포전을 가꾸시며 농민들의 농사일을 도와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의 세계와 소탈하고 겸박하신 평민적풍모를 감동깊은 화폭속에 펼쳐보이고있다.

시에서는 봄비 내리는 어느 봄날 한 농장의 남새포전을 돌아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절기에 비해 너무 어린 남새작황이 근심되시여 남새분조장을 자신의 차에 태우시고 자신께서 손수 가꾸시는 남새포전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를 담아 보여주고있다.

시에서 시인이 노린 점은 흙을 통하여 보여주려는 문제점과 관련되고있다.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다. 바로 여기에 흙을 두고 말하려고 한 시인의 철학세계가 비껴있다.

한갓 농사꾼에 불과한 분조장이 위대한 수령님 차에 오른다는것조차 거북스러운 일인데 흙내가 배인 옷차림, 젖은 흙이 어지럽게 발린 신발을 신고 어찌 차에 오를수 있었으랴. 송구스럽고 거북한 마음으로 바채이는 분조장과 차안으로 등을 떠미시는 수령님, 차는 어느새 미끄러지고 분조장은 흙물은 두발을 어찌지 못해 몸돌바를 모르는데 문득 의자옆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흙물은 호미와 낫가락—그것을 보는 분조장의 의아한 눈길...

어느새 차는 멎고 분조장은 내리자마자 흙을 닦아내려고 차안으로 허리를 굽히는데 흙을 그냥 두라고 이르는 우리 수령님, 그래도 분조장은 그냥 몸을 굽히는데 다시 올리는 그이의 다정하신 음성.

...

—닭지 말라는데두
나는 한평생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

우리 수령님!
곁에 가까이 다가서시며 하시는
진정어린 뜨거운 말씀
—내 차에 흙이 묻지 않으면
농사가 안돼

...

우리 수령님께선 이어 분조장의 손을 잡고 포전으로 이끄신다.

이 얼마나 깊은 뜻을 담고있는 웅심깊은 말씀이신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땅과 흙에 대한 의미깊은 말씀.

그렇다,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 땅을 위해 살아오신분이시였으며 한평생 차에 흙을 묻히시며 눈비 내리는 포전길을 걷고 걸으시었다.

그이께선 한생을 땅을 찾기 위해 이국의 황야에서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어오시였으며 한생 땅을 지키고 땅을 가꾸고 살찌우기 위해 모진 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한몸을 불태워오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 있어서 흙은 곧 땅이었으며 땅은 곧 운명이시였다. 그것은 한생 하늘처럼 받들어온 인민이었으며 목숨파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조국이였다. 바로 이것이 한생을 땅과 인연을 맺고 살아온 위대한 수령님의 인생철리였다. 《흙에 대한 담시》에서 땅과 흙에 대한 심오한 철학세계를 통하여 말하려고 한 시인의 의도와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시인은 또한 나라의 정사를 한몸에 안으시고 대적과 맞서 민족의 운명을 지켜오신 회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령도의 거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흙물은 호미와 낫을 차에 싣고다니시며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오신 수수한 평민이시였다는 엄청난 극적인 대조를 통해 시의 형상적효과를 노리였다.

특히 《흙에 대한 담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분조장사이에 오가는 감정선의 흐름을 극적인 이야기거리와 일치시켜나가면서 점차 고조제로 이끌어어나감으로써 시의 정서적색채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담시의 특성을 발전적으로 혁신시켜나가는데서 보탬을 주는 하나의 새로운 시도라

고 생각된다.

우에서 본바와 같은 성과작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작품들도 있으며 당면하게 풀어야 할 문제들도 있다.

담시창작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담시의 사상에 술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것이다.

지금 우리 생활속에는 시적이면서도 극적인 이야기거리를 안고있는 감동적인 소재들이 무수히 많다. 백두산3대위인들이 이 땅에 남긴 감동깊고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담시형식에 담아 노래하자면 아마 세월을 두고 노래해도 끝이 없을것이다. 그밖에도 선군조국에서 펼쳐지고있는 극적인 사변들과 아름다운 소행들을 담시형식에 담아 재현한다고 생각해보라. 허나 우리 창작실천은 그렇지 못하다.

일부 작품들은 담시의 체모를 갖추지 못하고있을 뿐아니라 시형상수준도 높지 못하다. 그것은 담시의 특성에 맞는 적중한 소재를 잡아쥐지 못한채 소재자체를 그대로 옮겨놓고있기때문이며 담시의 창작생리와 격에 맞게 형상을 따라세우기 위한 깊은 탐구와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있기때문이다.

례를 들어 《한 전쟁로병이 들려준 이야기》〔량성심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4(2005)년 2호〕, 《인민의 프락》〔박상민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4(2005)년 10호〕과 같은 작품들이 그러하다.

우에서 든 작품들은 담시의 소재로서 적중치 못할뿐 아니라 담시답게 꾸며지지 못하고있다.

《한 전쟁로병이 들려준 이야기》는 포탄을 싣고 전선으로 달리던 자동차운전사가 폭격에 차에 불이 달리자 앞뒤에 수송차들이 늘어진 피할 길 없는 정황에서 천길벼랑으로 조향륜을 꺾어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형상하고있다.

그의 희생은 물론 영웅적인것이였으나 사람들에게 주는 정서적감흥은 크지 못하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작품의 소재를 시적정서도 있고 극도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엮어 형상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하고 희생적인 장거자체를 평면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쳤기때문이다.

담시의 이야기거리에서 우리나라의 극적정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사이의 교감속에서 이루어지는 극적관계에 의하여 생겨난다. 이미 앞에서 든 담시들을 보더라도 《기쁨의 담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리발사를, 《인민의 복수자》에서는 로인파 병사, 《흙에 대한 담시》에서는 우리 수령님과 분조장과의 관계

를 통하여 극적정서를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 《한 전쟁로병이 들려준 이야기》는 상대인물과의 관계에 의하여 맺어지는 극적인 이야기거리를 찾아내지 못한채 로병전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꾸며져있기때문에 인상적인것도 없고 담시다운 맛도 주지 못하고있다.

담시 《인민의 프락》은 담시라는 종류를 달긴 했지만 시로서는 별로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고 본다. 시적인 체모도 있고 일정한 수준도 엿보이는 시이다. 그런데 이런 시에 담시라는 종류를 달아도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담시는 시적이며 극적인 이야기거리속에 시인의 의도와 사상을 담아 보여주는 이야기시이기때문에 시인의 의도나 주정은 전면에 로출되어 나타나있지 않는것이 상례로 되고있다. 그런데 이 시에는 그런 시적정서와 극적이 이야기거리가 없는 반면에 반대로 시인의 의도와 주정이 전면에 드러나있다.

어느 한 기계공장의 노동자발명가를 기계박사로 내세워주시며 그를 만나보지 못하고 떠나시는 걸음이 아쉬워 그의 안해라도 만나봐야겠다고 하시기 그의 집으로 차를 돌려세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감동적인 사적을 담고있는데 이 시에서는 그것을 극적인 이야기로 엮어보여준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요소를 바탕에 깔고 그에 대한 시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위주로 하여 보여주고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시를 담시로 보기는 어렵다. 담시라기보다 오히려 서정시에 가깝게 느껴진다.

지금 서정시들에 이야기요소들이 많이 도입되고있는데 이것은 현실과 시와의 관계에서 발전도상에서 있게되는 하나의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시에 도입되는 서사적요소는 어디까지나 시인의 주정을 개방하기 위한 목적에 종속되여야 하며 감동적인 사실이나 이야기자체를 보여주기 위한것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감동적인 사실에서 충격받은 느낌과 정서를 뜨거운 주정으로 리치는것이 담시와 다른 시의 본태이다.

마찬가지로 담시에서는 이야기거리를 골격으로 엮어나가면서 시인의 주장이나 의도가 표면에 로출되지 않고 시적이며 극적인 이야기거리에서 스스로 우리나라 오도록 그렇게 썩여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계선과 생리가 투명치 못하게 서로 범벅처럼 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담시 《인민의 프락》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담시는 담시다와야 한다는것이다.

☆

☆

☆

병사의 길 외 2편

한 찬 보

병사는 길로만 가지 않는다
산이 나서면 뚫아오르고
강이 나서면 헤엄쳐건는다
진필이라 못 가라 빠져도 간다
징검다리쫄은 훨훨 날아넘는다
병사는 명령을 안고가니
목숨걸고 가는 결사의 길!

가도 빨리 달려야 하니
목에서 겨불내나고 발이 부르터도
에돌아선 안되는 길이다

소금버케 잔등에 피어도
전우애는 꽃피어
불보다 뜨거운 진정이 흐른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병사의 길 너는
금별의 위훈이 빛나고
피도 목숨도 바쳐야 하는 길
결사의 그 길끝에 승리가 있다
내 조국 번영의 길이 이어져있다

주체39(1950)년

상심령과 함정골이야기

여보게 박동무
조선엔 산이 많기도 하지
령도 많구 골도 많구

김동무 왜 이 령길에서
새삼스레 그러나?

이 령 저 골을 두고
원썬들이 뭐라는지 아나

나도 들었네

령으로 오르다 죽어 《상심령》이요
골에 빠져 죽어 《함정골》이라느걸
하필이면 말이네
여기 와서 뒤흔들 뭐람

모르는 소리
조선이야말로
미제의 운명이 끝나는 곳이 아닌가

주체41(1952)년

불과 시

하나라는 말은
둘이 아니라는 뜻
총과 전사는 하나
그속에 용맹이 나래친다
조국과 전사도 하나
그속에 충심이 태동한다

나는 전사시인
가차없는 용맹 불같은 충정
뜨거운 전우애 원썬에 대한 증오
그 모든것을 노래한 나의 시

그것은 불속에 있었거니
나에겐 불과 시도 하나이더라

총과 전사여
조국과 전사여
시와 전사여
그 하나가 드팀없어
우리는 전쟁을 이겼다

주체42(1953)년

우리의 별이 빛난다

문 용 철

고요히 깊어가는 밤
나의 심장은 듣는다
가없는 하늘을 날르는 《광명성2호》
우주의 한끝에서 울려오는 너의 메아리를

너는 굽어보리
네 이야기로 잠 못드는
이 땅의 불밝은 거리와 마을들을
그 어느 창가에선가
너를 싸올린 영웅과학자의 모습도

저 하늘 수억만 별들중에
유난히도 눈부시고 찬란한
우리의 별
우리의 《광명성2호》

지금껏 딛고산 이 땅이건만
산도 강도 대지도 더 넓어지고
더 아름다와진듯
위성국의 공민된 그 자부로
사람들의 어깨도 더 으쓱해진듯

너야말로 우리의 강철로 다듬고
우리의 지혜로 버린
우주의 보검
그 누구도 다칠수도 건드릴수도 없는
우리의 힘, 우리의 존엄

너는 온 천하를 굽어보며
이 땅의 산과 들을 살뜰히도 쓰다듬는다
전호가 병사들의 서리발총검엔

정어린 눈빛을 얹어주고
요람속에 곤히 잠든 아이들의 머리맡엔
별나라 달나라의 자장가도 불러준다

너는 저 하늘의 억만가닥 해빛을 다 모아
팽상모 푸르른 대지우에 꽃피는 파원에
따스히 뿌려주는 행복의 별
금수강산 이 나라의 지맥을 더듬어
눈부신 보화의 광맥도 찾아가는 창조의 별

그래서 어머니조국은
금지로운 가슴에 너를 소중히 안고
이밤도 쇠물을 끓이고
천길막장의 탄벽을 허물고
최첨단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펼쳐간다

날으라
더 힘차게 더 억세게
백두의 령장이
거룩한 손길로 우주에 그어준
백전백승의 궤도
선군의 자리길을 따라 날으라

오, 눈부시다
우리의 《광명성2호》
네가 힘껏 두드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릴 2012년
그 찬란한 봄노을을 만리대공에 펼쳐가며
우리의 별이 날은다
우리의 별이 빛난다

조선속담

- 제 동네에선 개도 사자와 같이 싸운다
- 악한 사람은 귀신도 편다
- 늙은이 박대는 나라도 못한다
- 지어놓은 밥도 먹으라는것이 다르고 잡수라는것이 다르다

- 무던한 머느리 아들맞잡이
- 맛있는 음식은 오래 생각한다
- 나라는 백성의 근본이다
- 교향땅은 연기도 달다
- 사람이 좋으면 그의 교향도 좋다

조선의 봄하늘에 위성이 떴다

박 현 철

봄날도

화창한 4월의 봄날

우리의 위성이 하늘에 떴다

이런 날, 이런 때

못견디게 그리워라 우리 수령님

자랑높은 위성이 돌고도는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내 마음 격정에 목메어 아뢰이고싶구나

—어버이수령님!

《광명성2호》가 올랐습니다

조선의 영광이 지구를 떨칩니다

유난히도 밝은 빛을 뿌리며

우주를 날으는 별

4월의 봄누리를

태양의 송가로 가득 채우며

김일성조선의 위용을 떨치는 위성

수령님 기뻐하실

조선의 자랑이 세계를 휘감는다

수령님념원 꽃핀

선군의 조국이 천하를 굽어본다

우리가 강해지길 바라지 않고

우리가 번영하길 원하지 않는

온갖 원썩들을 눌러딘고 솟구친

가사

고향 처녀의 사진

림 철

산천도 불에 타던 준엄한 날에

병사는 총메고 전선으로 떠났네

동구밖 멀리까지 처녀는 따라서고

병사는 그의 사진 가슴에 품고갔네

아 처녀의 사진 한장 가슴에 품고갔네

병사는 포연서린 전호가에서

고향의 모습으로 사진을 보았네

장군님 주신 땅 서로 함께 가꿔가던

김정일장군의 담력과 배짱의 산아여

바라볼수록 가슴벅찬 우리의 위성이다

우리들수록 눈굽젖는 조선의 위성이다

어버이수령님 한평생 바라신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

강행군 천만리를 헤쳐오신 장군님

너를 우주에 받아들여올렸거니

기쁘시여 만족하시어

우리 수령님 더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가

그 미소 온 우주에 가득차

더더욱 푸르려진 우리의 하늘

더더욱 밝아진 우리의 세상

반만년 민족사가 못 가졌던

무변광대한 우주를

장군님은 수령님께 삼가 드렸나니

날으라 더 높이 선군조선의 위용아

너는

뜻깊은 이 봄날에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드린

우리 장군님의 최대의 경의여라

아, 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비껴흐르는

4월의 봄하늘에 위성이 떴다!

민속거리에서

김 달 수

씨름터에서

사람들은 나를 《씨름선수》라고 부른다. 그것은 내가 여기 사리원민속거리에서 진행된 씨름경기에서 우승한 때부터 붙여진 이름이다.

어떤 사람들은 《대황소상》 민족씨름경기에까지 참가해보라고 은근히 권고하기도 한다. 나에게 타고난 씨름선수의 자질이 있다는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씨름경기장에 처음 나선 때의 일이 생각나곤 한다.

산과 들에 온갖 꽃이 만발하던 늦은봄 어느날이었다.

《반장동지, 반장동지! 왔어요.》

내가 경암산중턱에 있는 씨름터에서 한바탕 혼련을 하고나서 잔디밭에 앉아 땀을 들이는데 약속을 틀러갔던 철남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그 처녀가 나타났어요.》

그의 말에 나의 눈길은 산밑의 《대황소상》 씨름경기에서 우승한 사나이를 형상한 조각상이 있는쪽으로 돌려졌다.

정말 거기에 탐스러운 꽃을 든 처녀가 서있었다.

날씬한 키, 함함한 머리카락, 동그스름한 얼굴, 이 계절에 꼭 어울리는 연한 하늘색의 밝은 조선옷을 입은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호기심과 함께 이상야릇한 즐거움이 생겨났다.

처음 보는 처녀였지만 어쨌든 그가 저 조각상앞에 서있지 않는가.

지금껏 나는 저 조각상의 사나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여왔었다. 나뿐이 아니다. 철남이와 우리 작업반원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있다.

전전번 일요일이었다.

우리 신발공장 프레스작업반에서는 그날 하루를 민속거리에서 즐기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 계절의 민속거리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산기슭에 울긋불긋 피어난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의 그윽한 향기가 즐비하게 늘어선 조선식건물의 여기저기를 은근히 감돌고있었다.

우리가 민속놀이터를 거쳐 산우에 자리잡은 《선군정》으로 오르려는데 작업반에서 나의 조수로 일

하는 철남이 하는 말이였다.

《꼭 반장동지 같지 않아요?》

그의 말에 나는 옆에 세워진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총이 센 머리카락, 짙은 눈썹, 두툼한 입술, 짙 버그러진 가슴.

《신통해. 이 조각상의 사나이는 분명 우리 반장이요.》

작업반의 나이지숙한 조아바이가 자기의 무릎을 손바닥으로 치며 하는 말이였다.

《아바이두 참, 내가 씨름을 좋아하긴 해두 언제 한번 크게 이름을 날린적이 없는데 그럴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작업반원들이 저마끔 입을 열었다.

《아, 거야 이번 경기에 참가해보아야 알지요.》

하긴 이맘때면 이 민속거리에서 씨름경기가 대성황리에 진행되곤 한다.

《반장동지, 꼭 1등을 하라요.》

《자네 할아버지도 유명한 씨름선수가 아니였나.》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그들의 말을 듣노라니 은근히 배심이 생겼다.

우리 할아버지도 씨름을 몹시 즐겨하였다.

황해도일대에서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땅을 강점한 일제놈들에 의해 망국노의 신세가 된 우리 민족으로서는 자기의 타고난 재간도 빛을 볼수가 없었다.

오히려 할아버지는 그것때문에 현해탄을 건너 낯설은 이국땅으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었고 거기에서 씨름이 아니라 족발이들의 《스모》를 배워야 했다.

일제놈들은 수천년동안 내려온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전통을 깡그리 말살하려고 미쳐날뛰었고 그래서 할아버지도 일본사람으로 귀화할것을 강요당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된군경을 치르었다고 한다.

그후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절대로 씨름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었다고 한다. 그러나 격세유전이었던지 나는 꼭 할아버지를 닮았었다.

얼굴생김도 건강한 육체도 그리고 호방한 성미도...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조각상을 바라보니 이 사나이가 꼭 나를 닮은듯이 보였다.

다만 나는 전형적인 왼손잡이인데 저 사나이는 오른 손을 쳐들고있을따름이었다. 그까짓거야 뭘.

그래서 나는 이번에 진행되는 씨름경기에 나설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꼭 이길 야심으로 매일 여가시간에 여기에 올라와 훈련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나와 짝패가 되어 훈련을 하던 철남이가 이렇게 말하였다.

《반장동지의 조각상에 한 처녀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것을 내가 보았어요. 멋진 처녀예요. 혹시...》

《정말이야?》

어이없는 일이다. 처녀가 조각상에 반하다니.

그러면서도 은근히 호기심이 동했다. 나역시 총각이었던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처녀가 나타난것이다.

잠시 조각상을 올려다보던 처녀는 옆의 콩크리트 란간에 올라서더니 살짝 발뒤축을 추켜들고 꽃목걸이를 그 사나이의 목에 걸어주는것이였다.

《저런.》

나도 철남이도 어리둥절해졌다.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보자. 그 다음에 처녀를 만나리라.

어느덧 바라고바라던 그날이 왔다.

그날 민속거리의 씨름경기장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거기에 울리는 뽕파리소리, 장고소리.

나는 씨름장에 나섰다. 관람석을 둘러보던 나는 매일이다싶이 조각상에 찾아오곤 하던 그 처녀를 알아보았다.

그도 나를 알아보고 꽃다발을 흔들어보였다.

기뻐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흔들어주려는 순간 처녀의 총알같은 목소리가 나의 귀청을 때렸다.

《남수동무, 꼭 이기세요!》

나는 놀랐다. 내 이름은 강철인데...

이때 나와 마주 서있던 선수도 그 목소리를 들었는지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처녀에게 한손을 흔들어보이는것이였다.

그때에야 나는 깨달았다.

저 처녀는 바로 이 선수의 애인이라는것을.

나는 두 련인의 모습을 부럽게 바라보았다.

순간 오른손을 쳐든 선수의 모습이 조각상의 사나이와 신통히 같다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쳤다. 아마 그도 나와 같이 저 조각상이 자기를 위해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이 경기장에 나섰을것이다.

나는 새삼스럽게 경안산기슭에 쫓 늘어선 민속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자기를 알게 하고 자기를 내세워주는 이 거리.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슬기와 재능을 자각하게 하고 그것을 더더욱 빛내여주기 위하여 선군시대 오늘 바로 이 거리가 솟아났구나.

나의 눈에 여기저기서 널뛰기, 활쏘기, 제기차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비껴들었다.

그들모두의 얼굴들에 우리 민족의 민속전통을 더 잘 알게 하고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이 거리를 일떠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의 정이 한껏 어리여있었다.

그러고보면 처녀가 조각상의 사나이에게 걸어주던 그 꽃목걸이는 단순히 어느 한사람의 소유물에 한한것이 아니라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세대 사람들도모두에 대한 배찬이였다.

나는 머리를 들고 파아란 내 나라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기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따사로운 태양이 찬연히도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 빛을 받아 하얀 구름들이 붉은 꽃송이로 보인다.

그렇다, 저 아름다운 꽃송이들로 가득한 푸른 하늘이야말로 그대로 축복받은 이 땅우의 우리들에게 안겨지는 커다란 꽃다발이였다.

그 다발을 한가슴에 가득 받아안으며 나는 경기장에 나왔다는것도 잊고 한동안 그 자리에 그냥 서있었다.

행복을 지키여주는 거리

내가 하루일을 끝내고 퇴근길에 오르니 정문앞에 서있던 수경이 반색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저녁 식사는 저와 함께 민속거리 음식점에서 하지 않겠어요?》

수경은 나의 애인이였다. 그와 함께 보내는 저녁은 기쁘기만 한지라 나는 군말없이 그의 청에 응했다.

나와 그 처녀의 인연도 여기 민속거리 호수에서의 뽀트놀이때부터 맺아졌다.

그날 공장종업원들은 민속거리에서 일요일의 한때를 즐기였다.

오후에 우연히 그와 한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이 처녀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었던것이다.

파아란 물위에 비친 처녀의 자태는 황홀하였다.

약간 갈쭈한 얼굴, 날씬한 몸매, 한쪽눈을 쪼프리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속삭이듯이, 그러나 긍지를 가지고 말하는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처녀로 보였다.

호수가에 피어난 꽃들도 어쩌나 곱던지 그 사이사이로 빨간 배를 타고 행복에 잠긴 우리를 보며 무지개다리우에서 거북기잔등에 올라 바삐 통궁으로 가던 토끼도 멈춰서서 한동안 부럽게 바라보았다.

그후 나는 속보판에 실린 대문짝같은 그의 이름을 보고서야 처녀가 공장의 이름난 혁신자인줄을 알았다. 그때부터 우리들의 정은 련련히 이어져 서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사실 전 추어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묘리도 배웁니다...》

수경의 말이였다. 그제서야 나는 머리에 불쑥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머칠전 그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었다.

《강철동지는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아마 자기 애인의 취미와 기호에 대하여 깡그리 알고 싶어 그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솔직히 말하였다.

《난 말이에요. 추어탕을 제일 좋아하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주 그걸 만들어주곤 하오. 뜨끈히 한사발 먹고나면 어느 사이에 그날 하루의 피곤이 순식간에 사라지곤 하지.》

내가 성수가 나서 말하는데 수경동무는 머리를 수그리고 도도룩한 입술만을 잘근잘근 깨무는 것이였다.

우리 어머니처럼 추어탕을 만들 자신이 없는 모양이였다. 그래서 나도 《우리 한번 민속거리 음식점에 같이 가보지요.》 하고 말하고나서 입을 다물었다.

아마 그때의 일을 마음속에 웅치고있는 모양이다.

저녁녘의 민속거리는 그대로 황홀경이였다.

하루의 일을 끝마친 사람들이 여기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었다.

거리에 은은히 울리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민요선율이 사람들에게 그윽한 정서를 안겨준다.

즐비하게 늘어선 불빛 환란한 곳곳의 음식점들에는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집집앞을 지날 때에는 고소한 녹두지집냄새에 군침이 꿀꺽 넘어갔다. 찰떡집에서는 커다란 떡들을 마주하고 팡, 팡 떡메를 휘두르는 장정들이 보였는데 그걸 보니 나도 거기에 뛰어들고싶은 심정이였다.

수경동무는 나를 추어탕집으로 이끌었다.

이 식당안의 한쪽에도 민속거리의 다른 음식점들과 같이 추어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써여져있었다.

수경동무는 그것을 자기의 수첩에 모두 적어넣는 것이였다. 그리고나서도 식탁에 앉아 접대원에게서 추어탕그릇을 받으며 또 이것저것을 세세히 캐여물었다.

얼굴이 동그스름한 접대원처녀도 그의 물음에 상냥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추어탕은 방아잎과 조피를 알맞춤하게 넣어야 자기의 독특한 맛이 잘 살아난답니다.》

원래 추어탕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의 하나로서 그 맛이 독특하고 건강에도 대단히 좋은것으로 하여 옛날부터 소문이 나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우리 인민이 창조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것으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기 사리원시에 이렇듯 민속거리를 일떠세우게 하시고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문화와 전통도 잘 알수 있게 널리 소개선전도 하도록 하여주시옵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이 거리에 깃든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추어탕집을 나섰다.

《전 오늘 여기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유구성과 민족성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수경동무의 사랑스러운 두눈을 이윽도록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후손으로서 이 전통을 가슴속에 지니고 더욱 빛내여가지 않는다면 자기자신이 민족성을 잃은 처녀, 조선녀성다운 매력이 없는 처녀로 될번 하였다는 자책감을 읽을수 있었다.

그러고보면 결국 이 민속거리는 오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랑을 땀아주고 꽃피워주는것만이 아니라 앞날의 행복까지도 지켜여주는 곳이라는 믿음의 생각이 가슴뿌듯이 차올랐다.

수경이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였는지 정다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거리의 여기저기에서 활기에 넘쳐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보였다. 저 사람들의 삶의 활기란 결국은 아버지장군님께서 지켜가시는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선군시대가 부어주고 키워가는것이라는 자부심이 가슴뿌듯하게 느껴졌다.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빛나는가

사리원민속거리의 중심에 민속놀이터가 있다.

옛시대를 방불케 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민속놀이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곳이다.

그옆에 지붕을 씌운 외랑이 쪽 늘어섰는데 거기에는 고조선때부터 시작하여 리조때까지의 우리 나라 력사, 문화와 함께 그때 당시의 이름있던 인물들의 모습을 반영한 벽화들이 단계별로 형성되어있다.

그앞에 서면 근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나라의 력사가 한눈에 안겨온다.

어느날 내가 여기 민속놀이터를 찾았을 때였다.

외랑앞에 도안의 여러 문화유적유물들을 말아보는 나 이지숙한 한 일군이 홀로 서있었다.

나는 그가 공장에 몇번 나와 우리 나라 력사에 대한 강의를 하여 뜻밖이나 알고있던 사이인지라 그의 이야기를 듣고싶어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분명 그는 혼자인데 누구와 대화를 하듯 중얼거리고있었다. 혹시...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머리를 돌렸다.

《강철동무로구만.》

나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방금 누구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지 못하고 이렇게 묻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벽화속의 인물들을 가리켰다.

《예?》

나도 벽화에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단군, 고주몽, 리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최영 등 한때 우리 나라 력사에 자기의 자욱을 새긴 명장, 명인들이 모두 있었다.

《내 지금 이들에게 우리 선군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있던 참이요.》

나는 웃었다. 아는것이 많은 사람이니 환상력도 풍

부할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앞으로 다가가 인물들을 하나 하나 바라보느라니 정말 나의 눈에도 그들이 마치 살아있는것처럼 보였다. 살아있을뿐만아니라 하나같이 어리둥절해하고있는것 같았다.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그 어느 나라나 길든 짧은시간에 자기 민족에게 고유한 력사와 전통이 있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자기 민족을 진보와 번영으로 이끈 선각자들이 있기마련이다. 아마 그래서 인류력사가 오늘까지 발전하여왔을것이다.

더우기나 우리 조선민족은 5천여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있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유구한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조선의 력사로 더욱 찬란히 빛내여 주시였고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위력한 선군조선의 력사로 아로새겨가신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로 강위력한 선군조선의 위용을 떨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린 슬기로운 우리 조선민족의 위엄이 온 세상에 차넘친다.

어제와 오늘의 력사가 통채로 들어앉은듯 한 이 거리, 매일을 믿음직하게 담보해주는듯 한 이 거리.

나는 밝은 태양의 빛발아래 찬연히도 빛나는 민속거리를 가슴펴고 쪽 둘러보았다.

창공에 나래를 펼치고 날아오를듯싶은 민속거리건물들의 합각지붕추녀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저 파아란 하늘우로 우뚝이 솟아오를 강성대국, 주체의 사회주의 내 조국의 장엄한 모습이 금시라도 보이는듯싶었다.

상 으 품 농 사

오 필 천

모내기 끝낸 푸른 논판에
새끼고기 넣었더니
희한도 하지 논농사에 논판양어

벼대들 살이 통통 오를 때
메기놈도 살이 통통 올라
허리치는 벼대 건너뛰며 노는 모양
줄넘기에 흥이 났네
메기놈들 해빛에 번들번들

앞그루 밀보리 뒤그루 벼농사
이런 농사 두벌농사와 이르는데
벼가을 물고기가를 함께 하는
이런 농사는 무엇이라 부른담

욕심나네 우리네 논판양어
두벌농사에 물고기농사와
흰쌀밥에 생선국 한꺼번에 차려주니
농사중에 상으뜸농사일세

그의 소원과 수첩

김 명 진

우리 생활에는 살아가면서 품게 되는 희망과 소원을 자그마한 수첩에 적어두고 때없이 펼쳐보며 마음을 가다듬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을 할것인가, 무엇을 했는가, 다하지 못한것은 무엇인가. ...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할 하루계획이며 친구들의 생일이며 자식과 한 약속이며 등등 수첩에는 많은것이 적혀있다.

가슴속에 품고다니며 하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수첩 ...

내가 만났던 녀인에게도 그런 수첩이 있다.

그는 평범한 녀인이었다.

그리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의 지배인으로서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어디서나 쉬이 볼수 있는 녀성이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행로는 평범치 않았다.

만포방사공장 지배인 주복순에게는 가슴속에 늘 품고다니는 자그마한 수첩이 있다.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가슴에 차오르는 절절한 그리움과 소원, 마음속 사연을 또박또박 적어넣고 혼자 조용히 외워보곤 하는 수첩.

...주복순이 방사공장 지배인으로 되었을 당시는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어 공장의 형편은 어려웠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공장의 주인인 종업원들의 마음부터 일으켜세워야 한다.)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한 주복순은 집에 들어간 기술자들을 찾아내어 못쓰게 된 기계, 설비들을 살려내고 생산의 동음을 높이 올리였다.

그가 두번째로 일을 벌여놓은것은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꾸리는 사업이었다.

많은 통나무가 요구되었다. 그는 종업원들의 태반을 이룬 녀성로동자들을 이끌고 추운 겨울날 산판에 올라 나무를 찍어내리는 전투의 앞장에 섰다.

통강ень를 씹으며 발을 열구며 쉬임없이 찍고 끌어내린 통나무가 공장마당에 산을 이루자 지붕을 벗겨내고 대보수를 진행하였다. 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하루 두세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못하며 공사를 힘있게 벌

려나가는 기간 주복순의 마음속에서 먼저 울려나온 한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그러던 어느날 주복순은 현장에 쓰러졌다. 한몫을 생각지 않고 너무 혹사한 후파로 무서운 병마가 달려든것이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전투를 지휘하느라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나날 주복순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우리 공장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수첩은 장군님을 그리는 그의 마음속 아뢰임이기도 하였다.

그의 꿈과 희망, 소원이 그대로 적혀있는 수첩을 다시 펼쳐보느라니 앓을래야 앓을수도 없었다. 그 수첩에 다시는 주저앉지 앓을 불같은 맹세를 적어넣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로 원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먼 출장길을 떠나갔다.

그는 출장길에서 많은 원료자재만을 끌어오지 않았다.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려다 한식술로 만들었다. 그들이 고아의 설움을 모르도록 아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철따라 새옷을 해입히었다.

가지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수십여명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엄한 욕도 하면서 몸이 허약한 애들의 영양관리를 해주느라 기울인 정성과 지새운 밤을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애들을 모두 공장의 기능공으로 내세웠고 그들이 가정을 이룰 때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일식으로 다 갖추어주었다.

로동자들로부터 관리일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를 《우리 지배인》, 《우리 어머니》로 부르며 장군님식솔의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었다.

매해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수행하여 나라에 큰 보탬을 주고있는 공장, 종업원모두가 한식술처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며 일하는 공장,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도 전국의 본보기로 되고 있는 공장...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며 자기들의 땀과 지혜로 일떠세운 공장이며 공장의 주인, 생산의 주인으로 아름다운 인간화원을 이룬 종업원들을 볼 때마다 주복순의 가슴속에서는 언제부터 품어온 간절한 소원이 부풀어오르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공장에 모시었으면...)

기대들이 만부하로 돌아가고 하얀 양털실이 실실이 풀려나오는 이 흐뭇한 풍경을 아버지장군님께서 보아주셨으면, 창고마다 그득그득 쌓인 원료며 자재, 그 쫘뼛 꾸러놓은 후방기지들을 그이께서 보아주셨으면, 부모잃은 새 세대 청년들이 한점 그들을 모르고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부럼없이 사는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선군장정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녀성일군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려주시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밤사이 흘날리던 진눈까비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하늘이 류달리 맑게 개인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포방사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생산공정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보기에 도 포근한 양모제품들이 그득그득 쌓인것이며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원료들을 보시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모잃은 새 세대 청년들이 생활하는 방이며 부엌, 그들을 시집장가보낼 때 주려고 주복순이 지성을 다해 마련해놓은 이불이며 세간들을 보아주시면서 자신께서 《고난의 행군》시기 부모잃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는데 이 지배인이 자신의 걱정을 덜어주었다고, 고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한개의 공장을 책임진 지배인의 바쁜 몸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맡아키운 주

복순동무는 자신보다 사회와 집단, 당과 혁명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것을 다 바친 숭고한 도덕관, 혁명적 의리를 지닌 참으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하시면서 그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참으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 시대의 꽃.

한 인간에 대한 이보다 더 큰 표창과 값높은 평가가 어디 있으랴.

주복순은 10년세월 온갖 고생을 다하며 시련을 이겨내며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온 그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었다.

나라의 크고작은 공장들가운데서도 너무도 작고 이름없는 공장에 감히 아버지장군님을 모실수 있으랴 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장군님께서 언제 어느 때건 나의 일터를 꼭 찾아주실수 있으리라는 희망속에 가꾸어온 소원.

이 소원이 녀인을 축복받은 삶의 언덕에 높이 올라설 수 있게 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의 일터와 마을에 모실 그날을 가장 큰 희망으로 간직하고 150일전투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속마다에 깃들어있는 소원.

이 소원을 지니고 삶을 꽃피워가는 우리 인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인간대군을 이루고있는것이다.

자그마한 수첩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머나먼 북변 땅의 녀인.

그 녀인은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들중의 한사람이였다.

《 물 씨 름 》 《 돌 씨 름 》

김 창 호

모래판에 살바 차고
승부를 겨루는 씨름경기가 아니어도
좋다!
암벽을 허물며 언제를 쌓고
물길을 돌리는 폐성강 청년들의
《물씨름》 《돌씨름》

길길이 날뛰는 물머리
휘잡아 《배지기》 뜨고
막아선 청석암반
《안결이》로 뗏다치는 뗏
씨름이라 누가 먼저 말했느냐
자연물 길들이는 우리 식의 씨름

뼈속까지 얼구는 강추위
살을 지저대는 폭양아래서도
《뗏결이》 《공중제비》...
새라새로운 수를 편이어 쓰며
총공격전의 열풍 몰아가는 랑만가들의 씨름이다

청춘의 열정으로
산을 떠옴기고 강을 다스리는
폐성강발전소건설자들의 위훈의 모습
어느 랑만가가 먼저 말했든
종구나 그 말이
언제나 이기는
우리들의 《물씨름》 《돌씨름》



별들이 속삭인다

공 천 영

차돌산기슭의 논배미들에 점차 어둠이 깃을 펴기 시작했다. 금방 모를 낸 논배미들을 돌아보며 두렁길을 걷던 분조장 별이는 래일 모를 쫓아야 할 배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채 끝내지 못한 논판고루기며 논 두렁짓기 등 이제 해야 할 작업량을 가늠해보며 속으로 래일작업을 타산해보았다. 래일까지만 다그치면 모내기가 시원스레 끝난다.

북부산간지대에 속하는 여기 깊은 산골농장에는 별이 대부분이고 논은 개울가의 낮은 곳을 따라 몇배미씩 다문다문 박혀있다. 비록 면적수로는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소홀히 할수 없는 영농공정이다. 더우기 이 지방 기후조건에서는 모내기철이자 콩심기철이어서 이일저일 다 드림이 없게 밀고나가느라 바쁘게 돌아가는 처녀분조장이었다.

며칠째 부대로력들로 콩심기조를 따로 무어 차돌산기슭에 달려있는 뒤골콩밭에 보내고있는데 그 콩밭은 오늘 오전중으로 끝내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왜 아직 안 나타날까? 래일은 부대로력들도 모두 모뜨기에 붙어야 모내기를 끝낼텐데... 별이는 안타까운 눈길로 차돌산기슭의 뒤골쪽을 바라보았다.

래일까지 모내기를 끝내고 모레는 분조가 총동원되어 뒤골과 등성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는 돌밭골콩심기를 제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내기에서도 콩심기에서도 별이네 분조 경쟁도표선이 제일 높아질 것이다.

농장에서는 당의 콩농사방침을 받들고 올해에도 풍성한 콩작황을 마련하기 위해 분조별경쟁을 조직했다.

콩밭면적도 늘이고 거름도 많이 내고... 승벽심 많은 별이가 남에게 뒤지려 할리 없었다.

콩심기를 빨리 다그치자면 모내기를 빨리 끝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래일까지 모내기를 끝내자. 그러자면... 별이가 래일 로력조직을 속구구해보는데 그제서야 콩심기 로인조장인 어머니가 허리를 구부리고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다.

몹시 힘들어하는 기색이었다. 주름살이 더 많아진듯 실은 가뭇가뭇한 얼굴, 이따금씩 서서 주먹으로 허리를 두드리는것이 오늘 일이 험치 않은것 같았다. 년로보장을 받은지 3년이 넘었지만 집일은 물론 분조일에도 오록을 아끼지 않고 딸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였다. 별이는 그러는 어머니가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어머니, 수고했어요. 한테 오전중에 끝낸다더니 왜 이제야 내려오세요?》

《에그, 말두 말아. 콩밭면적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이자까지두 겨우 끝냈단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콩밭이 왜 늘어나요?》

《어제 제대로되어온 우리 마을 끝집 만이 있잖니? 이름이... 그래, 리혁이.》

《예- 영희 오빠 말이지요. 그래서요?》

《콩심기를 오전에 끝내자구 허리두 한번 안 펴보구 부지런히 호미질을 하는데 영희 오빠가 올라오더구나.》

어머니는 노상 메고다니는 토끼풀다래끼를 내려놓고 주저앉더니 기쁜한 얼굴에 언제나처럼 웃음을 지으며 낮에 있는 일을 이야기했다.

《글쎄 수고한다고 인사를 하고 우리가 콩심는 구경을 한참 하고나서 밭을 돌아보더니 이랑이 끝나는 밭머리의 우묵진 풀덤불판을 가리키며 밭을 더 늘이자고 하질 않겠니. 우린 힘든 생각만 하면서 대답을 시원히 안했어.

한데 낮을 하나 달라고 하더니 옷등을 벗어붙이고 그 풀덤불을 한식경사이에 다 걸어내질 않겠니. 그리고는 또 호미를 달래서 이랑을 지어나가더구나. 그래서 어찌는수없이 우리도 달라붙어 이랑을 짓구 콩을 심구 그러느라니 시간이 걸렸다. 콩밭이 아마 한 100평쯤은 늘어났을거야.》

《그래서 늦었군요. 영희 오빠는 내려왔나요?》

별이는 어둠속에 잠겨 거뭇한 형체만 보이는 차돌산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마지막이랑을 심을 때 등성으로 올라가는걸 봤는데... 돌밭골로 넘어간것 같애.

사람이 참 끼끗하더구나. 일두 걸싸게 잘하구. 그 사람이 사라지자 옆집 철이 할머닌 날 보구 사위를 삼으라고 하질 않겠니.》

《호호, 옆집할머닌 위나 그런 말을 잘해요.》

《아니, 그 총각 첫눈에 호감이 가더라. 서글서글하면서두 씨원씨원한게. 앞으로 농장의 기동감이 될 거다. 나이찬 딸을 가진 어머니들은 다 넘겨다볼 신랑감이더라.》

《아이참 어머니... 빨리 집애나 들어가세요. 래일은 부대로력들도 모두 모내기애 붙어야겠는데.》

혼기가 된 별이이지만 그의 부른 가슴속에는 모내기, 콩심기... 농사일만이 짝 차있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혀를 찼다.

《쫄쫄, 늘 저런다니까. 총각이 너무 욕심나서 해본 소리다.

하어튼 만나면 고맙다구 인사해라. 어제 제대되어온 사람이 하루 쉬지두 앓구 일감부터 찾아다니니 가슴이 다 찡해지더구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칭찬하니 팡냄새만 가득찼던 처녀의 가슴속에 류다른 봄향기가 스며드는것 같았다.

어머니는 집으로 곧추 들어가지 않고 논두렁애 올라서서 논매미들을 둘러보았다. 별이의 분조일에 늘 마음을 쓰는 어머니였다.

《모내기를 많이 했구나. 래일까지면 끝낼것 같구나.》

《예, 래일까지면 보식까지도 다 할수 있어요.》

《그런데 논두렁짓기는 왜 다 안했니?》

《샘물집아저씨가 하렸는데 해질무렵애 먼저 들어갔어요. 집에 돼지가 새끼를 낳는다나봐요.》

《논두렁짓기를 마저 해야 아침부터 모를 쫓을게 아

니냐.》

《내가 이제 마저 할래요.》

《네 몸이 뭐 쇠덩이나? 분조장이라구 어떻게 모든 일을 도맡아 다하겠니?》

《글쎄 어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내 인차 따라갈게요.》

《너무 무리말고 일찍 들어오너라.》

어머니는 토끼풀다래끼를 메고 걸음을 옮기며 다시한번 그루를 박는다.

별이는 방그레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도 처녀시절엔 별을 이고서야 포전을 떠나군 했다면서 딸 보고는 늘 쌍 빨리 들어오라고 지칭구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인가.

별이는 논두렁을 짓기 시작했다. 흙물이 묻은 자루를 힘주어잡고 삽날을 잼싸게 뒤번지며 두렁애 흙매질을 해나갔다.

쪽마늘같은 달이 밤하늘애 떠올라 은은한 빛을 뿌렸다. 별들도 하나둘 나타나 승벽내기로 깜박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20미터쯤 나가면 끝이 난다. 그러면 래일 아침엔 첫시간부터 모를 쫓을수 있다.

별이는 바늘끝이 수염처럼 돌아난 두렁아래면을 깎아 옷면에 얹어놓고 물렁물렁한 흙으로 매질을 하며 한메터한메터 전진해나갔다. 그 사이에 하늘의 하얀 《쪽마늘》은 차돌산쪽으로 더 기울어졌다.

이때 누가 이쪽을 향해 논두렁우로 씨엥씨엥 걸어오며 소리쳤다.

《거 분조장동무 아십니까?》

굵은 목청, 희뵤한 달빛애 드러나보이는 림름한 체격, 누구인지 짐작이 간다. 오늘 콩밭을 놀려주었다는 끝집 제대군인 리혁이 분명했다.

《예, 그런데... 영희 오빠 아니예요?》

《예, 난 리혁이요. 별이, 아니 분조장동무가 맞구만. 한데 어떻게 혼자 늦게까지...》

《오늘중으로 끝내야 할 일이여서... 얼마 남지 않았길래...》

별이는 왜서인지 가슴이 울렁거렸다. 어떤 총각이 호젓한 곳에서 말을 걸어두 그래보지 않던 별이었다. 보자마자 호감이 가더라고 하던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일가. 지금껏 농사 이외에는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없던 처녀의 깨끗한 마음이었다. 그런데 왜 이리도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할가. 그만애야 콩심기를 도와주어 고맙다는 인사말도 깜빡 잊어먹었다.

《제 좀 합시다.》

리혁이는 다짜고짜로 삽자루를 당겨쥐었다.

《영희 오빠, 옷에 흠칠하겠어요. 제가 마저...》
별이는 말을 맺기도 전에 삼을 빼앗기고말았다.
리혁은 삼을 두렁에 폭 박고 서서 한동안 아래우
논배미들을 휘둘러보았다.

《이게 래일 모뭇을 논배미입니까?》

《예, 래일이면 다 끝납니다.》

리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삼을 총대처럼 비껴들
고 두배미사이의 두렁을 끝에서 끝까지 밟아본다. 무
엇인가 곱씹히 생각하더니 논두렁높이를 뿔으로 재
여본다. 이번에 웃논배미에 들어서서 두렁길이를 걸음
으로 재보며 속으로 무엇을 계산하는것 같다. 그러
더니 성큼성큼 별이한테 다가왔다.

《분조장동무, 이 논두렁을 저리 없애는게 어떻
습니까?》

《두렁을 없애다니요?!...》

《논배미가 커야 기계로 작업하기도 좋고 벼모도 더
꽃울게 아입니다.》

《그럼 높낮이차이를 어떻게 보장합니까?》

《웃배미흙을 좀 내리밀면 됩니다. 토지정리에 동원
되었을 때 우리 인민군전사들은 이보다 큰 논배미도 단
숨에 내밀곤 했습니다. 이까짓거야...》

《래일로 모내기를 끝내야 할텐데...》

《좀더 크게 생각합시다. 어쨌든 아래우 두 논배미를
합치면 더 좋다는건 명백하겠지요?》

《그거야...》

《그럼 됐습니다. 문제는 분조장동무 결심에 달렸습
니다. 우리 이 아래우논배미를 통일시킬데 대한 <공
동선언>을 내는게 어떻습니까?》

《〈공동선언〉이요?!》

별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 그럼 그렇게 합시다.》

리혁은 웃음을 섞어 말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루를 박
았다. 그러고는 별이의 의견을 더 듣지도 않고 논두렁
흙을 폭폭 떠서 아래배미로 훌훌 내던졌다.

《아이참, 영희 오빠!—》

별이는 안타까웠다. 어쨌든 그렇게도 무자비할까.

한데 얼마나 드세차게 삼질을 하는지 삼을 빼앗을래
도 가까이 범접할수가 없었다. 금방 곱게 흠매질한 매
끈한 두렁까지도 사정없이 폭폭 끊어서 아래배미로 던
졌다. 논두렁이 점점 자취를 감추어갔다.

그러는 사이에 달은 차돌산봉우리에 올라앉았다. 별
들도 더 유난히 반짝거렸다.

《분조장동무, 달도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만하지요.
분조가 총동원되면 래일 다 끝낼수 있소.》

리혁은 도랑물에 손을 씻고 일어서며 빨리 들어가자

고 재촉했다.

별이는 어떤 경기에서 피동에 빠졌을 때처럼 어리병
병했다. 예상치 않았던 일이 눈섭에 떨어졌다. 논두렁
을 없애고보니 웃배미와 아래배미 높낮이차가 더 크게
알리는것 같았다. 암만해도 모내기를 래일중으로 끝낼
것 같지 않았다. 그러면 콩심기는 또 어떻게 하겠는가.
어쨌든 그렇게 나타나자바람으로 분조일을 제집 울
바자 고치듯 제 마음대로 주무룰까. 누군 뭐 논배미들
을 합쳐서 크게 만들면 좋은줄 몰라서 그러나. 농사란
다 철이 있고 절기가 있는건데. 타산이란 도무지 없이
그저 무작정 이러면 어떻게 하나. 어머니가 호감이 간
다던 이 청년이 별이에게는 그 어떤 넘지 못할 산악처
럼 두렵게 느껴졌다. 한순간에 큰 걱정거리를 만들
어준 청년이었다.

(호— 참...)

어쨌든 이제는 쏘아놓은 죽이니 싫든좋든 먹어야 할
판이었다.

저쯤 앞에 선 리혁이 빨리 오라 소리쳐불렀다. 별이
는 종종걸음을 쳐서 따라갔다.

다음날 새벽 별이는 여느날보다도 더 일찍 일어났다.
밤새 번거로운 생각과 걱정으로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별이는 삼을 메고 달리다싶이 논배미로 나갔다. 날이
희뻘히 밝았지만 새벽안개가 짙게 서리어 사방이 잘 보
이지 않았다. 어제 밤에 두렁을 터친 논배미로 천방지
축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그쪽에서 벌써 흙을 떠던지는
삽질소리가 났다.

리혁이 바지가랭이를 무릎우까지 걷어올리고 반소매
속옷바람으로 웃배미의 흙을 삼으로 떠서 아래배미
로 헹헹 날리고있었다. 언제 나왔는지 벌써 별이네 집
마당만큼한 면적을 해제졌다. 별이가 가까이 다가갔는
데도 인적기를 느끼지 못한 모양 그냥 한본새로 허
리를 굽혔다 폈다하며 삽질을 다기차게 해댔다. 허리를
펴며 듬뿍 뜬 흙밥을 날릴 때마다 팔뚝의 힘살이 불끈
불끈 일어서곤 한다. 불깃해진 목덜미로 땀이 줄기
지어 흐른다.

(무서운 일꾼이구나!)

그가 이 신새벽에 분조장인 자기보다도 먼저 나와 땀
을 흘리는것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났다. 하긴 그도 일
을 벌려놓고 잠이 제대로 안왔을것이다.

《영희 오빠, 어쨌든 혼자 이렇게 일찍...》

별이가 한발자국 더 다가서며 말해서야 뒤를 돌아본
리혁은 삼을 논판에 쿵 박으며 허리를 폈다.

《아, 분조장동무. 일찍 나온걸 보니 이 논배미가 마
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리혁이 이마의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 질게 서리였던 안개가 사방으로 확 밀려나는 듯싶었다.

《저야 주인이 아닙니까.》

《허, 나도 손님이 아니지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한생 살아야 하니까요.》

《그건 그렇긴 한데. 하여튼 일을 바쁘게 만들어 놓았어요.》

별이는 안타까운 눈길로 아래우논배미를 훑어보았다.

《일감은 항상 만들수록 좋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냐 발전과 전진이 없이 한모양대로 있을게 아닙니까. 생각하고 구상해서 일감을 자주 만들며 바쁘게 살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당장은 이 논배미정린데 분조장동무, 트랙포트를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삽질만으로는 오늘중으로 모퉁이까지 바쁠것 같아 그러오. 트랙포트로는 잠간이면 될텐데.》

별이는 하루밤사이엔 분조장이 바뀐듯 한 감이 들었으나 지금 당장은 리혁의 말을 따르는수밖에 없었다.

《전 그럼 작업조직을 하고 관리위원회에 갔다오겠어요.》

리혁은 그렇게 하라는듯 씩 웃고나서는 다시 세판게 삽질을 해댔다.

별이는 분조원들의 집을 돌며 달라진 작업내용을 설명하고는 관리위원회로 달려갔다.

그날 트랙포트를 끌어오기는 했으나 논갈이를 다시 하고 모를 쫓고 하느라고 온 분조가 단물을 뽑았다. 그러다나니 일찌감치 끝내리라고 생각했던것을 《쪽마늘》달이 동권 산마루우에 한발이나 올라온 다음에야 끝냈다.

리혁이 드세차게 일판을 밀고나갔으니 다행이지 하마트면 모내기를 그날로 끝내지 못할번 했다. 마지막모춤을 쫓고나서는 맥을 놓고 논두렁에 풀썩 주저앉는 녀인도 있었다.

별이도 무척 힘이 들었다. 것처럼 녹초가 되어보기는 처음이었다. 평소에 야무지고 단단해서 쇠절구공이라는 말을 듣던 별이었지만 손바닥이며 어깨죽지, 허리, 쭈시지 않는데가 없었다.

그렇지만 별이는 분조원들앞에서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할수가 없었다. 분조장인 자기가 것처럼 힘이 들고 온몸이 지긋지긋한데 남들보다 일을 몇곱으로 많이 한 리혁이는 얼마나 힘들랴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아무리 군대복무를 했다 해도 무죄가 아닌 이상 어찌 힘들지 않으랴.

그날 밤 별이는 잠자리에 누운지 한시간이 넘도록 잠

이 오지 않아 뒤척거렸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바닥에 잣아드는듯 한데도 왜선지 찬물에 세면을 하고났을 때처럼 정신이 더 초롱초롱해진다.

누워서 바라보니 창문유리너머로 못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내다보인다. 큰 별, 작은 별, 깨알처럼 더 작은 별... 이름이 별이어서 어린시절부터 저 별들과 친해졌던가.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하며 푸른 꿈을 저 별에 실어보던 동심시절부터 저 하늘의 별들에 자기를 비해보던 별이었다. 깨알같이 작은 별에 비해보던 그 시절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이제는 큰 별에 자기를 대비해보게 되었었다. 하지만 오늘은 왜선지 이밤엔 옛시절처럼 자신이 작은 별로 느껴졌다. 대신 제대군인 리혁의 너부죽한 얼굴이 저 하늘에 삼삼 그려진다.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별로 느껴지는 청년이었다.

그렇지만 어째선지 정은 가지 않는다. 처음 보는 별처럼 낯설고 서먹서먹하게 느껴진다. 그때문에 어제오늘 너무도 놀라고 많은 땀을 흘려서일가. 오늘 낮에 《분조장의 신랑감》이라고 첩이 할머니가 귀에 대고 소곤거리며 국수를 빨리 먹자고 할 때 국수 잡숫고 싶으면 저녁에라도 집에 오시라고 웃으며 넘겨버렸었지만 어쨌든 리혁이한테는 친근감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지나친 과단성으로 느껴지는 그 성격때문일가. 정말이지 일은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하는데... 아이참, 왜 자꾸 그 사람한테로 생각이 돌아갈가.

별이는 당장 래일 할 작업에 머리를 쓰지 않고 다른데 정신을 파는 자신을 질책하며 돌발골콩심기조직을 속으로 해보았다. 래일중으로 어떻게든 끝내야겠는데 오늘 너무 맥을 뽑은 분조원들이 일자리를 내겠는지... 계획하지 않았던 오늘일로 모내기가 늦어졌는데 그때문에 콩심기가 지장을 받거나 않을가. 어느 영농공정에서나 늘 앞서나가고 칭찬받던 우리 분조가 이러다간 맨 꼴찌가 되겠는데... 아니, 그럴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래일중으로 돌발골콩심기를 끝내서 1등분조의 영예를 고수해야지. 돌발골만 제끼면 되겠는데...

돌발골콩심기는 조련치 않은 일이다. 차돌산자락에 뒤골과 등성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매달린 돌발골은 이름그대로 돌천지이다. 한배새끼도 오롱이 조롱이라더니 한산줄기에 매달린 형제골짜기인데도 뒤골에 비해 몇배나 돌이 많아 돌발골이다. 돌도 주먹만한 작은 돌이 아니고 망돌이나 연자망돌같은 큼직큼직한 돌들이 사방에 뿌리를 박고있어 보습조차 대기 힘들다.

흙보다 돌이 더 많다고 해서 돌발골... 옛날 림격

정리와 같은 힘장사가 있어 그놈의 돌들을 활활 뿌리채 뽑아던졌으면 좋으련만... 정말 밍상스러운 그놈의 돌들... 매일 하루에 다 해내야겠는데... 별이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뒤척이다가 슬곶이 잠들었다.

별이는 새벽닭이 해를 치기도 전에 눈을 떴다. 자정이 넘어서 겨우 눈을 붙였었지만 분조의 호주라는 자각이 노상 마음의 탕개줄을 팽팽하게 당기기에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잠을 깬 것이었다. 눈은 떴지만 온몸이 쭈서나고 나른한게 말을 듣지 않는다. 눈섭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졸음이 가득 매달린 눈을 비비고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대고앉았다. 이러면 안된다. 어떻게 하나 돌발골콩심기를 오늘중으로 끝내야 한다. 별이는 이렇게 자신을 다잡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채찍질을 하며 《물먹은 솜》을 일으켜세웠다.

부엌에 내려서니 아침동자질을 하던 어머니가 딸의 수척해진 얼굴을 근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좀더 자고 일어날게지.》

《오늘 콩을 다 심어야 해요.》

《오늘 못다 심으면 우리 늙은이들이 매일 마저 심자꾸나.》

《강냉이밭에별김매기가 늦어지는데요 뭐. 그리구 오늘도 두사람은 모보식을 해야 해요. 또 어머니네들은 매일부터 논두렁콩을 심어야 해요.》

《에그, 농사일이란게 끝이 있는줄 아니. 네 얼굴 돼가는 꼴을 좀 봐라. 그러다 쓰러질라. 그러잖아두 어제 그 리혁의 돌개바람에 모두 논판에서 진을 뽑았는데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하려무나.》

《그러니 영희 오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야 오늘은 쉬겠지. 아직 정식 농장사람두 아니구 제대되어 돌아와 하루도 쉬지 않구 벌에 나와 살았으니 웅당 쉬어야 하구. ...》

《영희 오빠가 쉬지 않고 나온대두 우린 들어가 휴식하랴구 떠밀어보내야 해요. 군사복무를 하느라 얼마나 수고많은 동무예요.》

어머니, 난 이제 작업반장과 기술원을 만나고 와야 해요. 그러니 어머니가 분조창고에 있는 콩종자를 가지고 돌발골에 먼저 올라가주세요.》

《그러자꾸나. 내 밥먹구 제창 올라갈테니 넌 여기서 일을 다 보고 천천히 올라오려무나.》

어머니는 별이가 또 아침을 설치고 나갈가봐 제격 상을 차려주었다.

별이는 작업반에 나가 반장과 기술원을 만난 다음 모보식을 하게 된 분조원들을 데리고 논에 나가 한동안이나 잔소리를 하였다. 분조일의 어느 구석도 찌

그러지지 않게 하자면 정말로 물감장사가 되어야 하고 눈코뜰새없이 바빠 돌아쳐야 했다.

마음은 돌발골콩심기에로 또 뻗어가는 것이어서 골짜기로 가는 길을 따라 걸음을 다우치는데 어머니가 허리를 구부리고 마주 걸어온다. 고개를 자꾸 내젓는 품이 기분이 썩 좋은것 같지 않았다.

《어머니, 어떻게 벌써 내려오시나요?》

《애애, 말두 말아. 오늘 콩 다 심긴 애당초 굴렀다. 또 고생을 하게 됐어.》

《건 무슨 소리나요?》

별이는 무슨 일이 생겼나싶어 눈이 화등잔처럼 커졌다.

《글쎄 밥술농기 바쁘게 돌발골에 올라가 콩을 심는데 리혁이 그 사람이 올라와 또 일을 벌려놓자고 들질 않겠니?!》

어머니는 논에서 것처럼 맥을 뽑아놓던 리혁이 콩밭에서 또 시키지 않는 일을 벌려놓는다고 시답지 않은 기색이었다.

《아, 흠보다 돌이 더 많다구 돌발골이 아니냐. 그런데 리혁이 그 사람은 그 돌을 다 추어내자는거야. 글쎄 연자망돌같이 큰 돌들을 어떻게 다 뽑아내겠니. 그러느라면 오늘중으로 콩을 다 못 심는다니까 그 사람은 돌을 뽑아내고 소로 밭을 갈면 다 끝낸다는거야. 무슨 사람이 그리두 하늘소고집인지 원, 일이 그렇게 생각처럼 척척 맞아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니, 쫓쫓.》

어머니는 기가 막히는지 허를 끝끝 찬다.

별이는 돌발골쪽을 올려다보다 물었다.

《그 동무 힘들어하는 기색은 아니예요?》

《그 사람이랴구 왜 힘들지 않겠니. 어제 오죽이나 땀을 뺐었니. 얼굴 축간게 막 알려더라. 그런데두 기상은 눈속의 푸른 소나무야.》

분조장이 왜 올라오지 않는가구 물길때 좀 늦어진다구 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한동안만 좀 분조장을 하자는거야. 돌추기는 누구의 승인을 받을 일두 아니구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니 힘들어도 꼭 하고 콩을 심자고 호소하질 않겠니.》

《그래서요?》

《젊은축들은 하자고 팔소매를 걷으며 나서는데 머리를 젖는 사람들두 더러 있어. 그 큰 돌들을 한것새 어떻게 다 뽑아내겠는가 하는거지. 하긴 어제 오죽이나 힘들었니.》

내 생각두 그렇다. 땅에 깊숙이 묻힌 돌을 뽑는다는게 어디 말처럼 쉬우냐. 그러다가는 콩심기도 늦어지구 사람들두 다 쓰러뜨릴것 같애. 총각이 너무 우악

스러워.》

첫날은 리혁이에게 호감이 간다고 하더니 어제 논두렁을 없애는 일에 맥이 난 뒤부터는 일은 무섭게 한다면서도 그런 사람과 짝을 무엇다가는 고생깨나 하겠다고 혀를 터는 어머니였다.

《그런데 어머니 왜 내려오세요?》

《어쩌겠니. 너라도 빨리 데려다가 바로잡아야지. 글썽 돌을 추어내면 좋은줄이야 누군들 모르겠니. 하지만 이불깃보구 발을 퍼랬다구 이걸 타산없이 그저 무작정이야.》

별이는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좋을가. 물론 그의 의도는 좋은것이고 리해도 된다. 하지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작정 벌려놓기만 하면 어쩌는가. 당장 급한 일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타산도 해보아야지 않는가. 제대군인이어서 사회현실을 몰라서 그럴가, 아니면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럴가. …

《오, 마침 저기 그 사람이 내려오는구나.》

증이 나는듯 공연히 옷자락을 툭툭 털던 어머니가 돌발끝쪽을 손짓하며 말했다. 올라다보니 리혁이 빠른 걸음새로 내려오고있었다. 자기를 알아보았는지 손을 높이 들어 저으며 걸음을 다그친다.

《이럴 때일수록 분조장인 내가 주대를 세워야 하느니라. 공연히 이리 기울 저리 기울 하다가 물렁팔죽이란 말을 듣지 말구. …》

어머니가 귀가에 대고 소곤거렸다. 별이는 얼굴을 붉혔다.

《아이참, 어머니두…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러는새 리혁이가 다가왔다. 별이의 기분은 아는지 모르는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말했다.

《아, 분조장동무. 어머니한테서 말을 들었겠지요. 제 그래서 지폐대랑 공구를 가지러 내려가는 길입니다. 작은 돌들은 이미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새초롬해서 눈을 내리깔고 차갑게 대꾸했다.

《영희 오빠, 이렇게 일을 자꾸 벌려놓으면 어쩌자구 그래요?!》

리혁은 여전히 싱글싱글하며 말했다.

《아, 이거 정말… 분조장동무와 토론도 없이 정말 미안합니다. 제 〈월권행위〉가 지나쳤지요?》

별이는 될수록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아니, 그런건 아무래도 좋아요.

하지만 영희 오빠 오늘중으로 쿵싱기를 끝내야 한다는걸 생각해보셨어요? 돌을 뽑아내고 이랑을 짓고 하느라 언제… 오늘중으로 끝내지 못하면 우리 분조가 농장적으로 제일 뒤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중으로 못 끝내다니요. 무조건 해내야지요.

저도 다 타산해보았습니다. 댐우에서부터 돌을 뽑아 내리굴리구 자리가 나는족족 소로 밭을 갈아 이랑짓기를 따라세우면서 쿵을 심으면 오늘중으로 얼마든지 끝낼수 있습니다.

군대식으로 내밀면 됩니다.》

리혁은 열정적으로 손세까지 써가며 말했다.

별이는 내리깔았던 눈길을 들고 리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그건 영희 오빠 혼자 생각이예요. 어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구 지쳤어요? 다른 사람들 생각도 해야지요.

물론 돌을 추어내면 좋은줄 나도 알아요. 밭도 좋아지고 콩도 더 많이 심을수 있어 수확고도 높아지구… 하지만…》

별이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였다. 리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져갔다.

《하지만 뭐니까?》

《…》

별이는 입술을 감쌀뿐 대답을 못했다.

리혁이 저으기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분조장동문 하면 좋은줄 뻔히 알면서도 분조의 명예가 귀중하고 또 조건이 어려우니 뒤로 미루자는거지요.

섭섭합니다. 난 분조장동무가 그렇게 생각할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이 어떤 땀니까.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해 누구나 불같이 살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물러서고 눈앞의 일이 바쁘다고 해서 뒤로 미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미루는 하루하루때문에 우리의 전진이 늦어지고 조국의 태일이 멀어진다는걸 왜 생각 못했니까.

일단 해야 할 일,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면 대담하게 달려들어 이 한몸이 천조각, 만조각나는 한이 있더라도 해내야 합니다.》

별이는 가슴이 찢르르해났다. 불같은 청년, 불같은 심장앞에서 무슨 말을 하랴. 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리혁이 빙그레 웃음을 떠올리며 말했다.

《분조원들은 모두 해내자고 떨쳐나섰습니다. 분조장동무가 구령만 치면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조장동무. 결심하면 됩니다.》

《저야 뭐… 구령이야 벌써 영희 오빠가 치지 않았나요.》

리혁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졌다.

《하하, 난 분조장동무가 이렇게 나올줄 믿었습

니다.》

별이의 손을 와락 잡아흔들었다. 억센 손아귀힘에 손가락이 빠근하게 아파난다. 별이는 황급히 손을 뺐으며 눈을 흘기었다.

《아, 이거 정말 안됐습니다. 제 성격이 원체… 하하, 그럼 제 얼른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리혁이 먼구스러운듯 뒤더수기를 쓸며 웃더니 부리나케 달려내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별이는 생각이 깊어졌다. 난 지금껏 분조의 농사일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바쁘게 산다고 했지만 진정 무엇을 위해 뛰어다니고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았던가… 그렇다, 언제나 시대의 요구를 안고, 조국의 패일을 안고 바쁘게 살아야 한다. 그러자면 저 불같은 심장에 나의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저 바쁜 걸음새에 나의 걸음을 따라세워야 한다.

두사람의 이야기가 심각해지자 저쯤 물러서있던 어머니가 다가오며 감심한 어조로 말했다.

《거 지금 보니 사람이 정말 진국이구나. 걸불안이라더니…》

방금전까지 우악스럽다느니 무작정이라느니 꾸념을 늘어놓던 어머니갈지 않았다.

별이는 어머니에게로 돌아서며 말했다.

《어머니, 그 밤의 돌들을 다 추어내면 콩종자가 모자랄거예요. 그러니 내려가서 기술원을 만나 새 품종 콩종자를 더 타세요.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바쁠것 같은데 점심에 운반식사를 조직하자요. 어머니가 수고스러운데로 점심식사를 해가지고 올라와주세요. 그때 콩종자도 같이 가지고요. 제 철이 할머니를 내려보내주겠어요. 난 소를 끌고 빨리 올라가야겠어요.》

《오냐, 그렇게 하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원스레 대답하고는 늪은이답지 않게 힘차게 걸어갔다.

별이는 산기슭에서 한가로이 햇풀을 뜯는 황소를 끌고 분조창고에 가서 소잔등에 연장을 엮었다.

여드레 팔십리걸음을 하는 황소를 재촉하며 돌밭 끌어구에 들어섰을 때였다.

《굴러간다!》하는 고함소리가 울리더니 와당탕탕 돌 굴러내리는 소리가 골안을 메운다. 올라다보니 망작같은 돌들이 여기저기서 디굴디굴 굴러내린다. 벌써 돌 추어낸 면적이 어지간해보였다. 골바닥에 굴러내린 돌이 무드기 쌓였다. 어느새 올라왔는지 저 웃쪽에서 리혁이 지레대를 짚고 서서 웃으며 손을 흔든다. 별이도 웃으며 마주 손을 흔들어주었다. 그새 퍼그나 일을 제친것을 보니 마음이 폭 가라앉았다.

별이는 소를 몰고 발가장자리를 따라 올라갔다. 돌을 추어내는데까지 거의 올라갔을 때 리혁이와 맞잡고 돌을 굴리던 철이 아버지가 싱글싱글 웃으며 스펙스적 다가왔다. 불그레하니 달아오른 이마엔 땀발이 번지르르했다.

《분조장, 수고했네. 발은 내가 갈지.》

철이 아버지는 연장을 소에 메웠다.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짜리나무희초리를 휘둘렀다.

《이라!》

소가 들판에 발통을 내짚자 시커먼 흙밭이 뒤번져졌다. 철이 아버지가 소를 몰아나가며 호기있게 소리쳤다.

《내인네들은 좀 쉬라우요.》

그 말에 발웃머리에서 호미로 이랑을 지어나오며 콩알을 박던 녀인들이 허리를 펴고 돌 굴러내리는 광경을 내려다보며 즐겁게 말을 주고받는다. 하나같이 웃음어린 밝은 얼굴들이다.

《분조장, 여기 올라와 땀 좀 들이라우.》

철이 할머니가 호미자루를 깔고앉으며 별이를 제 곁으로 손짓해부른다.

《힘들지 않아요? 할머니들이 바쁜 때 이렇게 한몫 맡아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별이는 철이 할머니의 손등을 쓸어주며 진심어린 인사를 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배찬데 할머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은 좀 들어도 좋구나. 저길 좀 봐라. 시작할 땐 아득하더니 얼마나 재미있구 통쾌하니.》

별이는 철이 할머니가 가리키는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리혁이와 함께 포도나무집 경수 아버지며 분조의 장정들이 돌을 뽑아 연방 굴린다.

농작만큼 큰 돌도 한쪽모서리를 파고 지레대를 두세 개씩 넣어 뜨면 움썽움썽하면서 한쪽이 쳐들린다. 그 밑에 돌을 고이고 또 뜨고… 이런 공정을 두세번 반복하여 어지간히 일어난 다음 남정들이 달라붙어 독심으로 뒤집는다. 일단 뒤집어져 굴러내려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불만 하다. 경사면을 따라 흙먼지를 일으키며 가속도를 내다가 돌에 부딪쳐 허공에 떠서 서너고패 자반뒤집기를 한다. 그렇게 굴러내린 돌들이 골바닥 돌무지에 쿵—하고 들이박힌다.

돌이 장쾌하게 굴러내릴 때마다 너스레 떨기 좋아하는 샘물집아저씨는 두팔을 벌리고 학처럼 너울거리고 두다리를 들썩거리며 얼씨구나 절씨구 흥겹게 춤추듯 하고 건너집 명철이 아버지는 체육경기 응원하듯 《굴러라, 굴러라.》하고 그 굵은 목청으로 떠들썩 고

함을 질러댄다. 밭웃머리에서 내려다보는 녀인네들도 《잘한다, 잘해.》하며 좋아라 웃고 떠든다.

별이는 무겁던 마음 한구석이 대번에 흰구름처럼 가벼워졌다. 어제 힘든 일에 지쳐서 기웃기웃할줄만 알았던 분조원들의 기분이 저 맑은 하늘처럼 청청 개인것이다. 그 누구나 힘들거나 지친 기색은 꼬물만 큼도 없다. 별이도 기분이 새로와지며 온몸에 힘이 내뻗치는듯 했다. 저도 모르게 흥트는 감정에 휩싸여 굴러가는 돌을 바라보던 별이의 눈길은 리혁이에게 가 멎었다.

말없이 검붉은 얼굴에 웃음을 담고 일하는 미더운 청년, 반소매내의바람으로 지레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힘을 쓸 때마다 굵은 팔뚝에 힘살이 불끈불끈 솟는다. 돌이 굴러내리고 와— 함성이 일 때면 허리를 펴고 환하게 소리없이 웃으며 이마의 땀발을 훔친다. 그러고는 다음 돌에로 다가가 지레대로 쿵쿵 울려 맥을 보군 한다. 그 모습을 보느라니 절로 마음이 든든해졌다.

별이가 리혁의 모습을 정신없이 바라보고있는데 철이 할머니가 옆구리를 툭 친다.

《분조장, 제대군인총각이 정말 팬찮지? 복이 절로 굴러들어와다니까.》

《예,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처녀분조장이 아까부터 왜 제대군인총각만 정신없이 쳐다볼까. 그러다 눈뿌리 빠질라.》

철이 할머니가 녀인들에게 한눈을 감아보이며 너스레를 떨었다.

《어마, 이 할머니가 정말… 내가 언제…》

별이의 얼굴이 활짝 붉어졌다.

《왜, 분조에는 일 잘하는 기동감이 찾아들구 또 우리 분조장한텐 의젓한 신앙감이 찾아들구, 좋지 않나.》

《좋지요.》

녀인들속에서 웃음이 터졌다.

《어마나, 난 몰라요. …》

별이는 철이 할머니뒤에 숨으며 등을 퐁퐁 두드려댔다.

《어구, 시원하다. 아무튼 올가을엔 우리 별이 국수를 먹게 되는가부다.》

철이 할머니가 엄살을 떨면서도 더욱 익살을 부렸다. 녀인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아지며 끝안을 울렸다. 아래쪽에서 샘물집아저씨가 올려다보며 《왜들 그렇게 웃소? 좋은 일이 있는게지요.》하고 묻는다.

《올가을에 우리 분조장 국수먹을 의논을 하겠네. 어떤가?》

《아, 좋지요. 올가을엔 콩남가리를 높이 쌓아놓고 우리 분조장 결혼식에 가서 국수곰배기를 해야지요.》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지며 산발너머로 울려갔다.

한동안 허리가 끊어지게 웃고난 녀인들은 이제 콩을 심어보자며 일어섰다.

철이 할머니를 점심식사준비하러 내려보내고난 별이는 이랴, 깎깎 하며 밭을 가는 철이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밭은 제가 갈겠어요. 철이 아버지 돌뻘는 조에 가세요.》

《경사지밭을 꽤 갈아내겠나. 평지밭하군 달라.》

《마음먹기탓이지요 뭐. 한사람이라도 빨리 돌을 뽑는데 집중해야지요.》

보탑을 잡은 별이는 《이랴!—》하고 야무지게 소리치며 회초리를 휘둘렀다. 보습날이 박히고 오래동안 락엽이 쌓여 썩어 기름진 검스레한 흙이 물결처럼 번져져갔다. 별이는 자기 마음속도 것처럼 시원스레 열리는듯 했다.

리혁이 웃음을 짓고 곁으로 다가왔다. 별이는 소를 세우고 수집은 웃음을 지으며 리혁에게 때늦은 인사를 했다.

《영희 오빠, 정말 수고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루 쉬지도 못하고 며칠씩이나… 정말 미안해요.》

《허허, 나야 군대에서 단련된 몸인데 뭐랍니까.》

아침엔 정말 안됐습니다. 분조장동무를 난처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리혁은 정기도는 검은 눈에 미소를 담고 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참, 도리어 제가… 전 영희 오빠가 좀 지나친 과단성을 부린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이 뒤집어지고말았어요.》

별이는 일이 퍼그나 진척된 작업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이라면 옴니암니 재지 말고 대담하게 달라붙어야 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됩니다. 물론 타산도 치밀하게 해야 하지만 타산만 앞세우다가는 아무일도 못합니다. 그 타산도 어떻게든 하자는 립장에선 타산이 되어야지요.》

《전 그저 우리 분조 힘만으로는 배차다는 생각만 하면서…》

《힘이란것도 마음먹기에 달린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신력이 곧 힘이지요.》

《영희 오빠, 알겠어요. 지친줄로만 알았던 우리 분조원들의 얼굴에 하나같이 생기가 넘치는것을 보고 정

말 느끼는것이 많아요.》

리혁이 땀기가 번지르르한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그렇다면 나도 기쁩니다. 이렇게 분조장동무가 직접 보람을 잡고 나섰으니 오늘 일은 다 잘될겁니다. 분조원들을 믿으십시오. 자, 그럼…》

리혁이는 싱글벙글하며 돌아서서 땅에 박아놓았던 지레대를 다시 잡고 돌뿌리를 들추어내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별이는 그의 뒤모습을 미더운 눈길로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라!—》하고 회초리를 휘둘렀다.

돌발골콩심기는 해가 차돌산마루를 넘어갈무렵에 끝났다. 별이가 생각했던것보다는 훨씬 앞당긴것이였다.

일이 끝나자 리혁이는 비자루감을 좀 해가지고 내려가겠다면서 싸리포기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하루일을 성과적으로 끝낸 기쁨을 안고 웃고 떠드는 분조원들을 먼저 내려보내고난 별이는 콩밭둘레를 한바퀴 돌아보았다. 밭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살진 평지밭못지 않았다. 하기에 점심때 올라왔던 어머니도 이제 돌발골이 맞긴 맞는가며 놀라와했다.

리혁이가 아니었더라면 험한 돌밭을 어떻게 이처럼 개변시킬수 있었으랴. 그것도 하루사이에…

일이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대담하게, 결쾌있게… 별이는 속으로 이렇게 뇌이며 리혁을 기다렸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멀리 동쪽 산마루우에 어제보다 한결 살이 오른 《쪽마늘》달이 두둥실 떠올랐다. 별들도 하나둘 나타나 반짝이기 시작했다. 큰 별, 작은 별… 그 별들도 어제보다 더 친근하게, 더 밝은것처럼 느껴진다.

저 웃쪽에서 리혁의 청붉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분조장동무!—》

별이는 반가와 마주 소리쳤다.

《예— 영희 오빠— 빨리 내려오세요—》

《아니— 좀 올라오오—》

《왜요?— 날이 어두워져요. —》

《글쎄 좀 토론할게 있소—》

무얼 토론하자는걸가. 별이는 발뼘발뼘 웃쪽으로 올라갔다.

리혁은 어느새 비자루감을 한단 해놓고 별이를 기다리고있었다. 저녁어스름속에서 싱긋 웃는 리혁의 하얀이가 유표하게 드러나보였다.

《분조장동무, 우리 래일 하루 더 전투를 벌리지 않겠습니까?》

《?!…》

《엇그제 내 분조발들을 돌아보니 발뼘두리들에 돌

각담들이 더러 있던데 그걸 몽땅 옮기자는겁니다. 큰 골이랑 싸리골이랑… 아마 그걸 다 옮기면 콩밭을 몇 백평은 잘 얻어낼것 같습니다.》

《돌각담을요?…》

《예, 젊은 사람들 몇명만 붙여주면 내가 책임지고 래일중으로 해놓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이요?!…》

별이는 한동안 웃고나서 정색을 하며 리혁에게 물었다.

《영희 오빠는 힘들지 않아요? 전 막 힘들어 죽을 지경이에요.》

《힘은 좀 들어도 해야 할 일인데 강심을 먹고 해내야지요. 하자는 정신만 있으면 힘은 생깁니다. 오늘 하루 힘을 바치면 가을엔 콩난가리가 그만큼 높아질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에서 콩농사를 얼마나 중시합니까. 래일 하루 더 전투를 벌립시다.》

확신에 찬 리혁의 말을 들으니 별이도 절로 힘이 솟았다.

《좋아요, 내려가서 분조원들과 의논해보자요. 모두 지지해나설거예요.》

《그럼 내려갑시다.》

비자루감을 멘 리혁이와 별이는 골짜기바닥으로 난 길을 따라 걸어갔다.

하늘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서 겨끔내기로 반짝이며 빛을 뿌린다. 별이는 눈길을 들어 별천지가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많은 별들중에 어느것이 나의 별일까… 리혁이도 밤하늘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을 건넸다.

《분조장동무, 별이라는 그 이름이 이렇게 별이 많은 날 저녁에는 동무에게 더 잘 어울리는구만.》

《하긴 이름이 별이여서 그런지 전 어려서부터 별을 무척 좋아했어요. 내 별도 하나 정해놓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 별을 찾을수 없군요.》

《저기 저 별무리속에서 밝은 빛을 뿌리는 저 큰 별이 동무의 별이 아닐까?》

《아니, 전 큰 별이 못되요. 작은 별,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별이는 《영희 오빠가 진짜 큰 별이지요 뭐.》하고 말하고싶었으나 왜선지 선뜻 말이 나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작은 별〉 동무!》

리혁이 별이의 결으로 한결음 다가서며 말했다.

《내 동무한테 중요한 문제를 하나 제기하려 하오.》 순간 별이는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중요한 문제란 도대체 무얼가. 혹시…

리혁은 나직하나 절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조장동무, 올해에 콩농사를 본때있게 짓자는거

폭풍의 다리 외 1편

권태여

공병이 가고
사단이 간다
공병이 열어놓은 길로
전선이 간다

—돌격 앞으로!
원쑤의 철조망을 몸으로 덮으며
멸적의 통로를 열어준
공병이 있고 길이 있다

—돌격 앞으로!
원쑤의 지뢰밭에 뛰어들며
진격의 분초를 앞당겨준
필사의 웨침에 길이 트인다

결전의 통로 한치에
한생의 숨결을 뜨겁게 바친
아 공병
폭풍의 다리가 되어준
공병의 뒤에 영웅이 있다

공병의 마음씨

시퍼런 도끼날이
총신강보다 더 번쩍이는 아바이
총알보다 많은 꺾쇠를
말없이 지고다니는 공병

그러나 내가 더 반한건
무던한 그 마음씨
습격의 밤 내 돌아올 길목에서
약속된 《소쩍새》 소리도 반가웠다면

나더러 한대 빨면 속이 녹을게라고
담배쌈지 꺼내든 아바이
담배를 담다가, 담배를 말다가
눈우에 그대로 떨어뜨렸네

손이 곱아들어, 손이 얼어서
다시 말다가 다시 뺄구고
—하 이거 로망이 들었나
병긋 웃는 아바이

습격의 밤마다
바래워주고 기다리며
눈보라속에 온몸을 얼곤 아바이
그 곱아든 손에 나는 얼굴 물었네

멸적의 돌격선에
공병의 자욱은 보이지 않아도
말없는 《뒤시중》으로 전우들을 아껴주는
공병의 그 마음안고 불비속을 헤쳐왔어라



요. 거름도 듬뿍 내고 김도 잘 매주고... 농장적으로 아
니, 군적으로, 도적으로 콩난가리를 제일 높이 쌓자는
거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애하는 장군님께 편지를 올
리자는겁니다.

우리 분조원모두의 이름으로 말ियो. 어땡소, 별
이동무!»

별이는 이름할수 없는 걱정으로 가슴이 달아올랐다.
아, 얼마나 훌륭한 동무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
운 마음을 안고사는 동무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키
워주신 체대군인! 이런 동무와 함께라면 그 어떤 큰 일

도 무서울것이 무어랴.

《영희 오빠, 찬성이예요, 절대찬성이예요. 정말 좋
은 생각이예요. 우리 꼭 그렇게 하자요.》

별이는 뜨겁게 속삭이었다.

별이는 별들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콩농사를 잘 지어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테야. 나
도 꼭 리혁동무처럼 큰 별이 될테야. ...

하늘에선 별들이 밝게 웃고있었다. 수없이 많은 별
들이 반짝이며 깜박이며 무어라 끝없이 정답게 속삭이
고있었다.

날마다 걷는 새벽방목길은 외 1편

서진명

발을 적시는 이슬도
차게 느껴지지 않아라
풀판은 푸르스름하게 안겨와도
염소떼 몰아가는 내 눈빛
새별처럼 빛내며

달랑달랑
길잡이 얼룩이가 울리는 방울소리
즐거운 노래가락되어
고요속의 단꿈을 꾸고있던
백리 평풍덕을 흔들어깨우고

사각사각
기름진 풀을 달게 먹는 소리
얼마후면 염소들이 안겨줄
단젓이 내리는 소리로
설레이는 이 가슴에 젖어드누나

멀리 솟아있는 동녘산봉에
삼복철의 부지런한 아침해가
빨갭게 타는 얼굴 내밀지도 않았던
못 잊을 그날 그 새벽

중창령을 굽이굽이 돌아
밤새 이어온 피곤도 잊으신듯
목장의 전경도앞에 서시어
백리 방목길도 마음속에 다 밝아보시고

이제 더 늘어야 할 염소마리수도
일일이 가르쳐주시던
어버이장군님 생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날도 채 밝기 전에
방목길에 나서는 나의 마음

아 끝간데없이 펼쳐진 풀판에서
젓가공품과 고기가 더 풍족히 쏟아지게 될
그 기쁜 날을 당겨주시려는 그 높이신 뜻
그 위대한 사랑에 받들려
평양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목장이 솟아있고
우리 방목공들이 살고있거니

날마다 서둘러 맞이하는
목장의 새날은
행복의 그날을 못 잊는
우리 마음속 하늘에
장군님 자애로운 그 영상이
태양으로 솟아오르는 새날

날마다 걷는 새벽방목길은
산등판마다 흰구름처럼 흐르는
염소무리들을 둘러보시며
밝게 웃으시던 장군님의 그 미소로
새날의 해살이 퍼지는 행복의 길이어라

염소 《엄마》라는 그 부름이

비가 오면 비에 젖을세라
염소등에 비옷을 씌워주고
들판에 독풀이 숨어있을세라
염소무리에 앞서 들판을 살피가던
그날부터였는지

그 누구나 머리를 저은
중병으로 쓰러졌던 염소를
집의 아래목에서 정성껏 치료해
염소무리에 다시 내세운
그날부터였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방목공 내가
분장사람들만이 아닌

온 목장사람들에게서
염소 《엄마》로 불리우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듣기가 좀 별됐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아니 옥별이 엄마란 말보다
염소 《엄마》라는 말을 듣는것이
내게는 더 좋아요

풀을 먹고 사는 짐승이라고
정을 주고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방목공이겠어요
그런 가슴이 찬 주인에게
염소라고 어찌 달디단 젖을
듬뿍 안겨줄수 있으랴

말을 서로 주고받지는 못해도
내 마음을 이제는 염소들도 알아요
방목의 여가시간에 베어들인 풀을
밤참으로 주니 정말 고맙다고
젖을 내는데서도 단연 첫자리
나를 내세워줘요

매에—울기만 해도
한밤중에도 찾아오는 주인
이 방목공이 바라는것 염소들도 알아
햇풀이 돌아나는 봄날에는

귀염둥이 새끼염소들을
남달리 많이 이 가슴에 안겨주어요

나의 긍지이며 보람
나의 행복인
염소 《엄마》란 이 부름앞에
부끄럼없이 떳떳하게 일해가노라
염소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것이
우리 장군님 뜻 받드는
참다운 애국이기에!

가 사

침략의 무리들이 날뛰지 말라 외 1편

김 춘 호

준엄한 6. 25 전쟁의 그날
판가리결전에 우린 나섰다
조선의 본때로 원수를 치고
승리의 7. 27 축포 올렸다
침략의 무리들이 날뛰지 말라
6. 25뒤엔 7. 27, 7. 27이 있다

전승을 안아온 그날의 기상
이 땅에 백배로 차고넘친다
방패와 장검을 함께 버려든

우리의 경교엔 빈말이 없다
침략의 무리들이 날뛰지 말라
6. 25뒤엔 7. 27, 7. 27이 있다

행성을 뒤흔든 우리의 국력
평화를 위하여 우뢰치리라
백두산강국의 위용을 펼쳐
승리를 승리로 이어가리라
침략의 무리들이 날뛰지 말라
6. 25뒤엔 7. 27, 7. 27이 있다

영웅들은 어이 평양에 모여왔는가

노을이 붉게 비낀 보통강기슭
전승탑의 군상속에는
포화를 헤쳐가던 그 모습으로
영웅들이 모두다 있네
하늘과 땅과 바다 싸운 곳 달랐건만
그 어이 영웅들은 평양에 모여왔는가

장군님 만세높이 화점을 막은
열여덟살 영웅도 있네
평양을 우러르며 결전에 나간

월미도의 포병도 있네
목숨바쳐 지켜낸 평양의 그 모습을
가까이 보고싶어 영웅들 여기에 있는가

영웅들 싸운 곳은 서로 달라도
지켜낸 그 품은 하나
혁명의 수뇌부가 있는 평양
우리 수도 평양이었네
그대들 어디서든 평양을 지키라고
더운 피 뿜어주며 영웅들 여기에 있네

세계유모아

책 장 사 군

책장사군에게 벌이가 꽤찮은가고 물었다.
《벌이가 아예 안되오.》 장사군이 대답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많은자들은 책읽기를 싫어하고 또 책읽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지요. 그러니 어떻게 벌
이가 되겠소?!》



나의 불빛

전 은 심

오래간만에 대학으로 들어오는 정우의 마음은 컷 눈을 맞는 아이들처럼 즐겁고 상쾌했다.

교사를 향해 활기있게 걸어가던 그는 그만에야 미끄러지면서 눈판우에 보기 좋게 넘어졌다.

허우대 큰 청년이 대자로 나가넘어진 모양이 가관인지라 눈을 치던 녀학생 몇이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어지간히 쑤시는 아픔에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나던 정우는 능청스럽게도 우정 넘어진 모양으로 아예 네 활개를 펴고 눈판우에 누워버렸다.

그바람에 허리를 그러쥐며 포복을 하는 처녀들에게 한눈을 찡긐해보인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깨끗한 흰눈우에 새겨진 눈사진을 보며 정우는 자기가 성장했음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꿈많은 동요시절 솟눈우에 제 모습을 찍어보며 웃고 떠들던 그 소년은 얼마나 작고 연약했던가. 그때, 많

이도 컸다!
한장의 연에 작은 꿈을 실어 푸른 하늘 저 멀리 띄워보던 소년이 오늘은 만사람의 존경과 찬탄을 받는 시인이 된것이다.

그의 귀가에는 자기와 같은 학부 학생인 송은아의 졸업작품을 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 창작지도일군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려왔다.

《확실히 종합대학졸업생들이 달라. 정말 반했소. 졸업하면 꼭 우리 창작기관에 오라구.》

소복이 내려쌓인 흰눈송이며 언덕우에 푸르싱싱한 다복솔과 하급생처녀들의 청맑은 웃음소리까지도 그에게는 오늘따라 더욱 정겹게 느껴지는것이였다.

배치담화때문에 대학으로 한발 먼저 들어온 은아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한시바빠 알려주고싶어 그는 지금 걸음보다 마음이 더 앞서고있었다.

컴파스로 그린것처럼 류달리 동그란 두눈을 커다랗게 뜨며 어린애처럼 좋아할 처녀의 모습을 즐겁게 상상해보느라니 한번 더 넘어졌으면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까지 들었다.

《두번이나 넘어졌다구요? 아이구 참, 제가 늘 말했지요? 동문 키가 크기때문에 각별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구...》 하고 흡사 장난꾸러기소년 같아보이는 퇴박이마를 귀엽게 찡그릴 처녀의 다심한 녀려를 받고싶어서였다.

대학졸업반 학생이라 하기엔 너무나 천진란만한 처녀, 꾸밈줄도 치장할줄도 모르는 그의 어린애같은 순진함은 결의 사람까지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신비롭고 매혹적인것이어서 정우도 그앞에서는 늘 어린애가 되는듯 한 심정이였다.

바보스럽다 할만치 혼자서 싱글벙글하며 걸어가는데 저앞에서 철학부 졸업반에 있는 그의 친구가 반갑노라 손을 흔들며 마주왔다.

《아니, 이거 시인선생이 어떻게 왕림하셨소? 그 기색을 보아하니 회세의 걸작이라도 창작한게지?》

여느때 같으면 별 싱거운 노죽이라고 흘려보냈을테지만 지금은 그 올려추는 너스레가 싫지 않아 정우도 그의 성미에는 쉽지 않게 맞받아 툽을 던졌다.

《그때, 그 회세의 걸작을 한번 감상해보셨나?》

한동안 꺄꺄거리며 회포를 나누던 친구가 문득 은아의 이름을 화제에 올렸다.

《듣자니 오늘 담화에서 은아동무가 지금 실습나가있는 창작기관에 오라는걸 거절했다더군.》

《어느 은아 말인가?》

정우는 갑자기 뻥뻥해져서 뜨직뜨직 되물었다.

《어느 은아라니? 동무네 문학대학의 그 수재님

이지.》

《그게 정말이야?》

《하, 내가 철학부 〈안테나〉 라는걸 잊은게지?》

《안테나》는 생긋 웃으며 작별의 뜻으로 손을 쳐들어보였으나 정우는 아무것도 못 느낀채 망연히 서 있었다.

레의 그 창작기관이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가고싶어하는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었던것만큼 처녀의 그러한 행동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거절한것만큼이나 놀라움과 돌발적인 사건이 아닐수 없었다.

아까는 일종의 쾌감까지도 자아내던 손바닥의 아픔이 역증스럽게 되살아남을 느끼며 정우는 누를길 없는 의문을 안고 걸음을 다그쳤다.

학부에 올라가니 거기서도 온통 은아에 대한 이야기 뿐이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다름아닌 실력에서나 인격에서 이번 졸업생들가운데서 1인자라던 송은아라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의혹과 호기심은 더욱 큰 것이었다.

《늘 제일이라구 추어줬더니 이제 세상이 다 눈아래로 보이는게로군.》

《다 사연이 있겠지. 그의 성품을 잘 알면서도 의심하는건 좋지 않아.》

《어쨌든 놀랍군요. 도대체 은안 얼마나 높은 곳을 바라보는건지. ...》

제나름으로 놀라고 지어 의심까지 하는 동무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정우는 의혹과 불만, 그래도 혹시 하는 기대가 엇갈리는 착잡한 심정으로 처녀를 찾아 온 대학을 헤매었다.

그 떠들썩한 화제의 장본인은 눈이 녹아내린 양지바른 정원의 한구석에 그른듯이 앉아 무슨 아동잡지인가를 들여다보며 저 혼자 웃기도 하고 사색도 하며 자기의 세계에 잠겨있었다.

《그게 사실이요? 창작기관에 오라는걸 거절했다는게 ...》

정우는 자기의 목소리에서 고까움의 감정을 털어보려고 애쓰며 조용히 물었다.

《거절하기야 뭐. ... 난 그저 현실체험을 하고싶다고 했을뿐이에요.》

그의 흥분에는 아랑곳없이 처녀는 생긋 웃으며 올려다보더니 다시금 읽고있던 잡지에 눈길을 가져갔다.

《이건 중학시절에 저의 첫 작품이 발표되었던 잡지인데 이번 호에 이 출판사에서 주최한 8년전 현상응모

당선자들중에서 종합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향글을 실는다니요. 제게두 그 글을 써달라고 청탁이 왔군요.》

장사말하는데 혼사말하는 격이라는듯 어이없이 바라보는 정우의 얼굴에서 그의 마음을 읽었는지 은아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뭘 그리 심각해서 그래요?》

《리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요. 현실체험이라... 글썽 그것도 좋지. 하지만 동무야 최우등생이 아니요. 내 생각엔 어쨌지 너무 영웅주의를 부리는것 같구만. 일종의 만용이랄까. ...》

순간 처녀는 종이장처럼 창백해진 얼굴을 숙이고 발치에 쌓인 눈을 꼭꼭 다져놓으며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어쩌면 동무까지 ...》

처녀의 눈가에 맺히는 커다란 눈물방울을 보자 정우는 일순 당황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럼 그 이유를 얘기해줄수 있겠소? 비밀이 아니라면 ...》

처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쌀쌀한 이른봄의 정원길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이유를 알고싶단 말이지요? 그럼...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터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동무에게 해야 하겠군요.》

서로의 생각에 잠겨 그들은 어느덧 황혼이 깃들기 시작한 봉납산언덕에 올라섰다.

저녁하늘을 볼태우는 지는해의 잔광이 처녀의 두뺨을 붉게 했다.

《저에겐 남달리 사연많은 어린시절이 있습니다.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있었던 그 시절에 저를 키워준 그 사랑이 날 이 길로 떠미는가봐요.》

처녀는 어디선가 불어오는 싱그런 솔바람에 귀밀머리를 날리며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등불이 빛나는 창가

참된 사랑은 그것을 잃었을 때 더 소중하게 느끼지는 법인가봐요. 전 열여섯살나던 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달콤했던 어린시절의 가지가지 추억들도, 남몰래 품어온 앞날의 꿈도 내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있어 행복한 어제였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더욱 아름다와질 래일이었음을 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것만 같았어요. ...

어머니가 돌아간지 3일째 되는 날 전 우리 어머니와 자매처럼 살 발게 지내온 지성이 어머니와 함께 저녁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 항의 당비서할아버지의 딸며느리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간 뒤 매일 집에 와서 밥도 지어주고 나와 아버지를 이모저모로 위로해주었던거예요.

《태일부턴 학교에 나가려니?》

지성이 어머니가 문득 침묵을 깨뜨리며 물었으나 나는 제 생각에만 움혀빠져 미처 대답할념을 못했어요.

《무슨 생각을 그리 하니?》

《네?》

나는 그제야 어쭙게 웃으며 그를 올려다보았어요.

《이걸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지성이 어머니는 내가 다듬고있던 시금치뿌리를 의아하게 바라보더군요.

《평양에서 처음 여기루 왔을 때 난 엄마한테 늘 자석처럼 붙어다녔했어요. 철없을 때 한 일년 헤어져 있다나니 엄말 놓으면 꼭 잃어버릴것만 같아서 일을 할 때까지도 딱 매달려있고싶어했지요 뭐. 그러니까 하루는 아버지가 〈그동안 떨어져있은 봉창을 하느라구 그러니? 엄마가 힘들겠다.〉 하구 웃겠지요. 그래서 난 제격 엄마가 다듬구있던 시금칠 하나 들고 〈아버지, 이것 봐. 시금치네 엄만 이렇게 자기네 아이들을 많이 업구있는데 뭐.〉 하고 대답했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오롱조롱한 작은 잎사귀들이 꼭 엄마에게 매달린 어린애들을 편상시키는 시금치를 들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원, 엉뚱하기두.》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두 허리를 부여안구 웃더군요. 아버지 또 물었어요. 〈그렇게 한시도 떨어지지 못할걸 이제 시집은 어떻게 가겠니?〉 하구 말이예요.》

《그래 넌 또 뭐라구 했니?》

《〈난 시집 안 가. 엄마하구 죽을 때까지 같이 살지 뭐.〉 하구 대답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나두 아버지두 엄마한테 매달린 새끼잎사귀였어요. 엄마뿌리가 있어서 잎사귀들이 자라고 튼튼한것처럼 엄만 정말 우릴 위해서 살아오신것만 같아요. ...》

나는 못 견디게 갈마드는 어머니생각에 말끝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는 나를 이윽도록 바라보던 지성이 어머니가 내 마음을 달래주려고 짐짓 말머리를 돌렸어요.

《참, 정신두... 우리 지성이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겠

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벌췌 문이 열리더니 처녀애처럼 해사하게 생긴 사내애가 머리를 쭉 들이미는 것이었어요.

《어머닌 내 생각은 다 잊어버렸나요? 배고파죽겠네.》

그 애는 나와 동갑으로 한학급, 한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곱살하게 생긴 얼굴과는 정반대로 여간만 세차지 않아 어릴적에 나도 무던히 지성의 성화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다 즐거운 추억이지만...

《범이 체소리하면 온다더니...》

《너석두... 시라소닌 아니로구나.》

저마끔 끌려주는 우리를 향해 지성은 짐짓 성난 표정을 지으며 우습강스럽게 눈을 깜쩍거렸어요.

《그럼 내 흥을 봤됐구나?》

그 애의 익살에 나도 오래간만에 즐겁게 웃어보았습니다.

《은아야, 한 십분 있으면 밥은 다 될게다. 그럼 난 간다.》

《잘있어.》

제 어머니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지성이가 어머니의 팔을 끼고 경동거리며 가는 모습이 대문밖 멀리 사라질 때까지 나는 이윽도록 문가에 서있었습니다.

××항의 기사장인 아버지는 늘 일때문에 눈코뜰새없이 바빴답니다. 어머니의 3일제가 끝나기 바쁘게 선박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날도 바다에 나가신 아버지는 저녁이 되었어도 들어오시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창가에 서서 아버지가 계실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노을이 곱게 피어나는 아늑한 만에는 크고 작은 배들의 휘황한 불빛이 작은 별무리를 이루었는데 그 무수한 불빛들속에 둘러싸인 등대탑이 애기별들을 거느린 엄마별처럼 유난히도 아름답게 반짝이고있었어요.

《봉—》

먼 바다에서 돌아오는 배들의 웅글은 고동소리가 긴 여운을 남기며 울려퍼졌어요.

마치도 엄마품을 떠났던 자식이 그리웠던 그 품에 돌아와 안기며 웨치는 목메인 부름처럼...

이밤따라 더 아름답고 유정한 그 소리는 또다시 나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애뜻한 추억을 가득 실어다주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리워만지는 나의 어머니, 꽃처럼

럼 예쁘고 봄날처럼 부드럽던 나의 엄마. ...

누구나 그러하듯 나의 어린시절도 대부분이 어머니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차있었습니다.

다섯살잡힐 때까지 나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네 집에 얹혀살았어요.

외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머니를 곁에 끼고있고싶어 했기때문이였지요.

여덟이나 되는 자식들을 거느린 그분들은 외동딸인 우리 어머니를 제일 사랑했어요. 어려서부터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온 어머니는 시집을 가서 말갈은 아이들이(이진 외할머니의 표현이에요.) 뛰어다니는데도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앞에서는 웅석꾸러기 외동딸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은 두벌자식이 더 곱다지만 외할머니는 맛있는것이 하나 생겨도 남겨두었다가 손자들보다도 먼저 어머니에게 주고싶어했어요.

이 류다른 대우가 시집살이를 하는 큰어머니(어머니의 맏형님 말이에요.)에게는 늘 대단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곤 했지만 철없는 꼬마였던 우리는 오히려 《너그럽게》 이해하곤 했어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거야 웅당하지 않는가 하고 말이에요.

외할머니의 보물단지에 감춰두었던 빨간 사과랑 달디단 사탕이 어머니의 손에 넘어가기 바쁘게 우리 입에 먼저 들어오는것만 봐도...

이렇게 뻔한 리치를 왜 아무거나 다 안다는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할가 하고 우린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식구가 많은 덕에 별의별 일도 많은 외할머니네 집은 또 그멋으로 늘 활기롭고 재미있었어요.

큰아버지네한테는 아들형제가 있었는데 금테안경을 낀 멋쟁이인 큰어머니는 저녁때나 일요일이면 늘 자기 아이들과 나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곤 했어요.

우리는 아직 학령전이였지만 놀고싶어도 놀지 못하고 우리 글을 익히거나 구구표를 외워 자식을 뛰어나게 키워보려는 큰어머니의 《욕심》을 《만족》시켜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마음 콩밭에만 가있다고 책상에 끌어다앉힌지 반시간도 못되어 놀고싶어 들썩거리며 큰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어요.

《자꾸 헛는 팔지 말아요. 이제 한문제만 맞게 풀면 놀게 해주겠어.》

어느새 아이들의 심리를 눈치챈 큰어머니는 이렇게 은근히 유혹하지요.

《열셋에서 다섯을 덜면 몇이지?》

《응응...》

《여덟이에요!》 하고 나는 제일먼저 뚱뚱하게 대답하곤 했어요.

《이것 보지, 오빠들이란게 은아보다 못한걸.》

큰어머니는 기가 막혀 혀를 차고 부엌에서 동자질을 하던 어머니가 달려들어와서는 나를 입맞춰주었어요.

《네가 오빠보다 먼저 풀었니? 요 귀염둥이...》

큰어머니는 은아의 머리가 남다르니 마음먹고 공부 시키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늘 웃음으로 넘쳐보내곤 했습니다.

《참 형님두, 한창 뛰어놀 애들인데 강제루 잡아놓고 공부시켜선 뭘하겠어요? 그것 봐요, 그 애들이 지금 놀고파서 안달아난걸. 이제 좀 놔줘요. 뛰어다니다 넘어져두보구 흙장난도 해보라지요. 그게 다 커선 재미난 추억이에요.》

어머니는 집안에 붙잡아놓고 학습장에 글을 씌우기보다는 늘 나를 데리고다니며 평양의 거리거리에 나불은 구조며 간판들을 읽히우면서 어린 마음속에 나서자란 고향 수도에 대한 사랑을 먼저 심어주려고 했어요.

《저걸 한번 읽어볼가요?》

《세상에 부럽업—서라.》

나는 두자리반침을 가까스로 읽어내고는 큰일이나 친듯이 우쭐하곤 했어요.

《그래, 참 잘 읽었구나.》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하던 어머니는 그무렵 산후탈이 심해서 집에 들어와 가두생활을 하고있었는데 동에서 무슨 참관을 가거나 교외로 모내기지원을 나갈 때면 꼭 나를 데리고가곤 했습니다. 그 시절 나는 울통불통한 농촌길을 달리는 버스안에서 입심드센 가두녀인들의 청높은 웃음소리를 듣는것이 좋았어요. 구수한 흙냄새며 야릇한 두엄내가 섞인 농장벌의 후더운 봄기운이 좋았고 점심참에 가시나무에 얼굴을 할퀴우면서 뜯어온 모기썩을 태우면서 엄마의 옛말을 듣는 여름밤이 맘에 들었어요.

온몸에 감탕칠을 해가면서 잡아온 청개구리랑 딱장벌레랑을 큰어머니네 형제들은 얼마나 부러워했던지...

그들은 여전히 큰어머니의 손탁에 잡혀 온실의 화분처럼 자라고있었던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지만 거마리에게 뜯기운 종다리의 상처마저도 그 무슨 모험과 용감성의 흔적인듯 자랑스러웠었어요. 물론 거마리를 빨리 뜯어내라고 온논판이 떠나가게 울음을 터뜨리던 일은 까맣게 잊어먹

고말이에요.

내가 후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조차 어머니는 무작정 꾸지람하거나 벌을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날 오빠와 함께 거리바닥이 하얗게 날려 보낸 종이비행기를 주어가지고 올라온 인민반장할머니가 어머니를 불러놓고 한바탕 야단을 했어요. 평생 그 누구한테서도 싫은소리 한번 들어본적이 없는 어머니가 나쁜 장난하다 들킨 소녀애처럼 고개를 숙이고 군말없이 《옥》을 먹었어요.

차라리 우릴 옥하고 매질할것이지. ...

할머니가 돌아간 뒤에도 어머니는 한마디의 꾸지람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어머니 당장 창문을 못으로 고정해버리겠다고 성이 나서 버리는 큰아버지의 손에서 망치를 앗아들고는 우리가 놀다 떨어질가봐 쳐놓았던 살창들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아이, 좀 도와줘요.》

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입만 다시는 큰아버지를 돌아보며 생긋이 웃어보였어요.

《자 보렴, 살창을 떼버리니까 시원하지?》

《예!》

큰아버지의 눈치만 보고있던 우리는 어느새 콩알만 했던 가슴을 풍선처럼 부풀구며 또르륵 창문가로 달려가 매달렸어요.

창문가에 쟁글쟁글 비쳐드는 봄별은 이해따라 류달리 따스하겠지요.

《엄마, 저것 봐. 오리가 겨울잠자구 보통강에 나왔어.》

겨우내 기슭에 세워두었던 오리모양의 뱃트를 녀두에 둔 말이었어요.

《우리 배놀이하러 갈까?》

《고모, 난 유희장에 비행기타러 갈래요!》

아직도 반장할머니에게 《압수》당한 종이비행기에 미련이 있는듯 오빠는 뚱뚱한 목소리로 조르는거예요. 그러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어머니가 어린애처럼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유성인 이다음 크면 뭐가 되려나요?》

《비행사!》

《그럼 은안?》

《나두요!》

그 시절엔 아득히 높고 넓은 저 하늘을 맘껏 날으는 비행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틀어잡는것이 없었던거예요.

《비행사가 되겠다면서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가지 종이비행기나 가지구 거릴 어지럽히면 되나요?》

빨래줄에 얹은 제비들마냥 입을 모아 재잘대던 우리

는 어머니의 말에 금시 자라목이 되버립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량팔에 끼안고 바야흐로 신록이 짙어가는 평양의 거리를 이윽도록 정겹게 바라보았어요.

어디를 보아도 청신한 봄향기가 풍겨오는듯...

《아이들아, 너희들의 앞날은 나처럼 넓고 창창하다.》 하고 푸르른 봄하늘은 우리에게 속삭이는듯싶었습니다.

《우리 평양은 참 아름답지?》

어머니는 꿈꾸듯 예쁜 두눈을 사르르 감으며 나의 머리카락에 따뜻한 땀을 꼭 갖다붙였어요.

엄마의 숨결은 얼마나 향기롭고 따스할까요? 그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는 다 몰랐으나 나의 작은 심장은 아름다움이란 곧 나를 지켜주는 어머니의 정다운 눈빛이고 따스한 해월에 봄물이 오른 저 은행나무의 아기 싹들이며 그 모든것이 시작되고 움트는 이 봄이라고 속삭이는것만 같았습니다.

인생의 첫걸음마를 떼던 우리에게 가없이 넓은 희망의 하늘을 펼쳐준 나의 창문가...

그곳에서 우리는 명절이면 **김일성**광장의 밤하늘가에 그리도 곱게 피어오르던 축포를 바라보았고 온 세계를 뒤흔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환호소리를 들었으며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리인모할아버지를 환영연도에 펼쳐나선 수십만군중들과 함께 꽃잎같은 손을 흔들어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 황홀한 축포, 가슴벅차게 하는 환호소리, 통일을 부르며 눈물짓던 사람들의 바다...

그것은 곧 사랑이었어요, 조국이었어요.

조국이란 크나큰 부름은 이렇듯 어머니가 활짝 열어준 작은 창문을 넘어 나의 어린 가슴속에 소중한 사랑으로 깃들었던거예요. 아마도 그것이 저에게 이 땅의 사랑스런 모든것을 노래하고싶은 아름다운 꿈과 시인의 심장을 주었던가봐요.

그 창가에 다시 서고싶어요. 거기에 서서 어릴적의 목소리로 속삭이고싶어요.

사랑을 알고 조국을 알게 해준 나의 창가여!

거기에 울리던 나의 노래를 기억해주렴.

아름답던 어머니의 미소를, 잊을수 없는 그 봄날을 영원히, 영원히 간직해주렴. ...

벽시계가 어느덧 아홉점을 때렸습니다.

그제서야 생각에서 깨어난 나는 정전이 되었음을 깨닫고 손더듬을 해가며 등잔을 찾아들었어요.

성냥가치를 서너개 분지르고서야 등잔에 불을 달고 나는 부뚜막에 쪼그리고앉아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

니다.

아버지가 통줄임통을 잘라 만든 기름배인 그 등잔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스며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잠드는 법을 몰랐는데 혹 정전이 되면 등불을 밝히고 앉아서라도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답니다.

어느날 밤늦게야 들어온 아버지는 책을 읽다 깜박 잠들어버린 어머니를 깨우며 웃음을 짓고 말했어요.

《기다리느라 하지 말고 먼저 자곤 하오. 이것 좀 보지, 코구멍이 온통 장난꾸러기처럼 새까매진걸.》

그을음에 감승감승해진 어머니는 등불처럼 고요히 타오르는 눈동자에 사랑을 함뿍 담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늦어 들어올 때 집에 불이 꺼져있으면 섭섭하지 않겠나요.》

아버지는 불쑥 치밀어오르는 정겨움에 어머니를 안아주려다 이불속에서 말뚱말뚱 쳐다보는 나의 눈과 마주치자 그만 웃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와 나를 한꺼번에 그러안았어요.

《은아야, 우리 엄마 정말 곱지?》

그밤 어머니는 그대로 반짝이는 등불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행복의 바다를 밝혀주는 작은 등대였지요.

그 등대가 타오르던 밤들은 얼마나 정다운고 행복했을까요?

엄만 빛이었어요. 밝고 아름다운, 그리고 파스한...

무엇인가 얼굴에 와닿는 후더운 느낌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느새 돌아오셨는지 아버지가 잠든 나를 정겹게 내려다보고있더군요.

비릿한 바다냄새가 풍기는 정다운 그 숨결이 나의 두 볼을 따뜻이 어루만졌답니다.

《아버지!》

나는 기쁨에 겨워 아버지의 목에 매달렸어요.

《왜 이제야 오나?》

손바닥을 따끔따끔 찌르는 꺼칠한 턱을 어루만지며 나는 아버지를 십년만에 만나기라도 한것처럼 응석을 부렸어요. 어머니를 잃은 내게 있어서 아버지는 생활의 전부였던거예요.

《오래 기다렸니?》

아버지는 흐트러진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다정히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 배고프지요?》

나는 아버지의 손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너 아직 밥을 안 먹었었니? 이제부터 아버지가 늦어져도 기다리느라 하지 말고 먼저 저녁을 먹구 자거라. 밥을 제때에 먹어야 앓지 않는다.》

아버지의 조용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싫어요. 엄마두 늘 아버질 기다리곤 하지 않았나요.》

나는 더이상 한마디도 할수 없었어요. 다시 입을 열면 금시라도 뜨거운 눈물이 샘솟듯 할것 같아서였습니다.

《?!...》

그 무엇에 심장을 떠박질리운듯 아버지는 한동안 묵묵히 서계시더니 나를 끌어당겨 품에 안고 오래도록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더군요.

《그래, 기다리렴. 그럼 아버진 밤길을 걸어와두 외롭지 않구 아무리 힘들어도 맘이 든든할거다.》

《아버지!》

나는 그때처럼 아버지가 귀중하고 더없이 미더워보인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지퍼두고 간 사랑의 등불은 그밤 깊어가는 정을 안고 더욱 아름답게 타올랐어요.

다음날 아침 나는 아버지와 함께 며칠만에 처음 집을 나섰습니다.

《이젠 너두 열쇠를 가지고 다녀야겠구나. 잃어버리지 않게 끈을 좀 찾아보렴.》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바구니를 뒤적거리다가 좀 물이 날은 빨간 땀기 하나를 찾아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소학교에 입학할 때 엄마가 사줬던거예요. 크면서 난 다 잊어버렸었는데 엄만 지금껏 가지고 있었어요.》

《...》

《엄만 이걸 매주면서 고운 아이가 되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땀기를 받아들고 한동안 생각깊이 들여다보더니 거기에 열쇠를 꿰어 나의 목에 정히 걸어주었어요.

《엄마의 소원을 잊지 말아라.》

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지는 빨간 땀기, 차거운 촉감의 은빛열쇠를 만져보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난 집에서 10리나 떨어진 소년회관부속학교에 다니고있었는데 아버지는 아침마다 나를 자전거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주고서야 되돌아서서 땀을 흘리며 향으로 다시 달려가곤 했답니다.

내가 예술소조에 다니게 된데도 못 잊을 사연이 있었어요. 유치원때부터 어머니는 나에게 매일 일기를 씀

우고 품을 들어 검열하곤 했습니다.

정서를 키워주고 생활을 끈지게 하는 버릇을 붙여주느라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속에 나의 글썽씨는 날을 따라 몰라보게 늘어나 학교에 가서부터는 꼬마작가, 신동으로 불리웠었어요. 헌데 어려서부터 손우의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배운것이란 나 무잡이나 제기차기밖에 없다니 나는 사람들앞에서 시 한편 제대로 읊지 못했답니다. 어느날 학부형들까지 초청하여 크게 진행한 학교자랑모임에서도 다른 애가 대신 제가 쓴 시를 읊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겨 내 손목을 잡고 말없이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다음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평양학생소년궁전의 손풍금소조선생님을 찾아갔답니다.

《우리 은안 공부를 잘하니까 음악두 잘할거야.》

잠자리채나 휘두르던 손에 손풍금을 쥐여놓고 어머니는 우습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지 한참이나 나를 바라보시더군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수업후에는 학교글짓기소조에서 문학공부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또 소년궁전으로 달려가 음악을 배워야 했어요. 그토록 나를 사랑한 어머니였지만 늘 잠이 모자라 밥을 먹으면서도 고개방아를 짊는 나를 애처롭게 여겨 요구성을 늦춘적이 한번도 없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발육에 지장이 있을가봐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저녁으로 손풍금을 날라다주곤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어머니가 나를 글쫄주가 아니라 정서도 있고 사람들앞에 나설줄도 아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그리도 마음썼다는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답니다.

소조실창문너머로 대견하게 바라보며 미소짓던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눈동자...

세월은 흘러서 추억은 저멀리 아득해도 잊을수 없는 그 모습이 가끔 꿈속에조차 밝은 미소를 짓곤 해요. 후날 해안도시에 온 후에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번지지 않고 십리나 되는 길을 걸어 나를 데려다주곤 했어요. 길가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조차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는 나의 학교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마운 사랑이 넘쳐흐르던 그 길을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어주셨답니다. 그 장대한 체구에 손풍금을 멘 모습에는 누구나 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조금도 축스럽지 않은듯 흔연히 웃곤 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해안도시는 바다바람이 몹시 센 곳이어

서 한번 바람통이 터지면 황소도 날려갈듯 했답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손풍금을 멘데다가 어지간히 무거운 나까지 태우고 바람을 맞받아가느라 무척 힘겨워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얼른 뛰어내려 자전거를 밀면서 뒤에서 뛰어가곤 했어요.

《아버지, 힘들지 않지요?》

《애, 그러다 넘어진다. 어서 타거라.》

아버지는 큰일난듯 걱정했지만 나는 오히려 깔깔 웃음을 터뜨리며 신이 나서 소리치곤 했답니다.

《일없어요. 저기 언덕까지만 밀어줄게요. 아버지, 빨리빨리!》

그러면 아버지도 즐겁게 웃으며 아예 모자까지 다 벗어버리고 발디디개를 힘껏 밟곤 했지요.

이 세상에 오직 자기들밖에 없는듯 기쁨에 겨워 달려가는 우리 부녀의 모습이 얼마나 밝고 행복스러웠는지 오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짓곤 했어요. 지금도 어린시절을 추억할 때면 얼굴이 빨갛게 얼어가지고도 좋아라 웃고 떠들며 뛰어가던 그때처럼 눈덮인 바다가언덕길을 아버지와 함께 숨이 차도록 달리고싶어요.

우리가 학교에 도착할 때쯤이면 출근하는 아버지의 직장사람들이 마주오곤 했는데 그들은 그 먼 출근길을 되짚어온 아버지에게 통삼아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또 팔을 데려다주러 옵니까?》

《팔들이라는건 키워놓으면 남된다는데 애지중지해야 필요없다니까요.》

《그래두 이제 기사장동지가 그 딸덕을 불지 알겠소?》

아버지는 그 모든것에 대해서 그저 웃음만 지어보일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그 길을 오가곤 하셨어요.

장마에 길이 잠기면 나를 업고 찬물속을 걸어가셨고 눈바람이 부는 날에는 자기의 목도리마저 벗어 나를 감싸주고는 《아버지등뒤에 얼굴을 꼭 감춰라. 바람 맞으면 튼다. 손은 얼지 않게 아버지숨옷속에 넣구. 울지, 허릴 꼭 안아라.》 하고 쉽없이 잔소리를 하며 그 차거운 바다바람을 다 막아주시던 나의 아버지. ...

배들을 맞고보내느라 한밤을 항구에서 지새우고도 아침이면 딸의 등교시간이 늦을가봐 땀에 젖어 집으로 달려와서는 식은 밥 한술도 드실새없이 또다시 나를 태우고 먼길을 가시던 나의 아버지. ...

어째서 사랑은 그것이 아름답게 흘러넘치고 꽃피

던 소중한 곳들마다에 자기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걸가요? 만일 사랑도 발자국을 남길수 있다면 나는 학교길에 새겨졌을 그 무수한 자욱마다에 제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을 뿌릴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소원대로 나를 훌륭하게 키워 내세우려는 아버지의 속깊은 마음을 나도 그때는 미처 알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것처럼 어스새 우리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누구나 알게 되었어요.

《은아,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겠니? 정말 쉽지 않은분들이시다.》 하고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때 누가 나를 어머니없는 아이라고 했겠나요.

전 웅심깊은 아버지의 사랑속에서 어머니의 다정한 사랑도 함께 받으며 한점의 구김살도 없이 행복하게 자랐어요.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나 아버지를 잘 모셔야겠다는 소박한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해도 저물어갈무렵 졸업을 앞둔 우리 학급동무들은 모두 돌격대에 집단단원했습니다.

혁명의 성지 백두산지구를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돌격대가 조직된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나 열정에 넘쳐 토론들을 했고 회의장이 들쭉하게 구호도 웨쳤어요.

하지만 내겐 선풍 나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떠나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뒤 몇달사이 몹시도 늙어버린듯싶은 아버지를 두고 발걸음이 떨어질것 같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선생님들과 동무들이 나 하나만은 꼭 대학으로 보내려 하는 고마운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은아야 공부도 제일 잘하고 글도 잘 쓰니 대학에 가야지 뭐.》

《그럼, 은아는 희망대로 훌륭한 작가가 될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떠밀어주었지만 나에게는 집문턱을 넘어설 자그마한 용기조차 없었어요. 아버지와 떨어져 멀리 간다는것은 상상할수도 없었던거요.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헤어진것은 소학교를 졸업하던 잊을수 없는 1994년이었습니다. 언제나 행복만이 비껴흐르던 푸른 창가에서 우리는 그해에 수십리 영결식연도를 눈물로 적셨던 아버지대원수님의 태양의 모습을 보았고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더욱 힘차게 일떠선 사람들의 드세찬 발걸음들을 보았어요.

그해의 7월은 아늑하고 평온하기만 했던 우리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손꼽히는 큰 항구의 개건확장공사를 책임지고계시던 아버지는 아예 집을 꾸러가지고 떠나던 북부해안도시로 가서 온 한해동안이나 집을 떠나 살았어요. 아버지는 보름에 한번씩 꼭꼭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잊지 않고 나에게도 사랑이 넘친 글을 따로 써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서투른 솜씨나마 재간껏 발휘하여 제판에는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회답편지들을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보냈구요.

아버지가 집을 떠난지도 반년이 되어오던 그해 가을 우리 집으로 나이지숙한 한 녀인이 찾아왔어요. 그가 바로 향당비서할아버지의 안해인 우리 교장선생님이었어요.

《은아 어머니지요? 제 은아 아버지의 중학교담임교원이었어요. 평양에 회의 오는 길에 은아 아버지가 들려달라구 부탁하기에...》

우리는 교장선생님을 둘러싸고 떠들썩하며 아버지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 참 훌륭한분이란다. 아버지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부두가 이제 한달만 있으면 완공되게 돼. 참 멋이 있단다.》

《애 아버지가 앓지나 않습니까? 거긴 벌써 초겨울이겠는데...》

근심스레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선생님은 머느리에게 부탁하듯 간절히 말하는것이었어요.

《우리 지성이 할아버지랑 잘 도와주지 못해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이럴 때 은아 엄마가 곁에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더 힘이 나서 일하련만...》

어머니는 그날로 지원물자며 아버지의 겨울내의들을 꾸러가지고 교장선생님을 따라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갔답니다.

어머니는 그해가 다 가고 다음해 설명절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새로 확장된 항에 남기로 결심했으며 어머니도 그 뜻을 적극 지지해주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외할머니네들의 놀라움은 컸어요.

어머니를 도와 이사집을 싸고나서도 외할머니는 장밤 잠을 못 이루시더군요. 글썄 마흔살이 다 돼오는 그때까지 한번도 할머니의 곁을 떠나본적이 없는 어머니였으니까요.

《네가 외동딸루 고이 자랐는데 몸두 성하지 못하게 이제 그 먼곳에 가서 어떻게 살겠니?》

네 남편은 무슨 고생을 시키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음— 엄만 또, 고생은 무슨 고생이예요? 내가 가구 싶어 가는 길인데...》

어머니는 내가 곁에 있다는것도 잊고 할머니의 목을 그리안으며 웅석을 부리듯 대꾸했어요.

《나두 모르겠다. 하지만 은아만은 못 보내겠다. 그 애까지 보내면 내가 너희들을 보구싶어 어떻게 살겠니?》

어머니는 며칠후 힘들게 나를 떼어놓고 떠났습니다. 역전에서 할머니는 어머니를 붙들고 나보다 더 떨어지기 힘들어하시더군요.

그래도 전쟁로병인 외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를 나무라며 어머니를 고무해주었어요.

《눈물두 많수다. 뭐 죽을 길을 간다구 그리 노죽이요? 큰일을 하러 가는 은아 엄말 웃으며 바래줘야지. 현숙아, 지금이야말로 누구나 어렵구 힘든 곳에서 뼈를 깎으며 일해야 할 때다. 가서 애아버질 잘 도와줘라. 은아는 걱정말구.》

《아버지, 고마워요. 은아야, 할아버지, 할머니말씀 잘 들어라. 자리잡으면 엄마가 데리러 올게.》

이렇게 어머니는 부모들과 헤어져 어린 나를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갔답니다.

그날부터 나는 외할아버지네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준다 해도, 큰아버지네 집 아래목이 따스하다고 해도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정을 대신하지는 못하는가 봐요. 나는 할머니의 팔을 베고 자면서도 매일밤 엄마의 따스한 품을 그리워하며 엄마가 나를 데리고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한해가 지나서 어머니는 나를 데리러 평양으로 왔어요.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설복시키느라 또 한참이나 애를 먹었어요.

《지방에선 지금 더 어렵게 산다는데 그런 생소한 곳에 널 보냈것만두 내 가슴이 아프다. 그래두 은아가 여기 있으면 배야 풀지 않겠지. 두고가렴.》

《어머니, 배를 풀리고 안 풀리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이젠 은아두 철들 때가 됐으니 제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는가두 보고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지도 봐야 할게 아니예요? 그러지 않아도 힘겨워서 나두 막 주저앉고싶을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엄마가 채찍질해서라두 떠밀어줘야 하잖아? 엄마.》

할아버지는 이번에도 어머니의 결심을 적극 지지 해주었습니다.

《웁다. 벌써 그랬어야 하는걸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지금 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있니?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은아두 알아야지. 데리구 가져라.》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엄마, 바다는 굉장히 넓지? 엄마두 해염을 쳐봤나?》

어머니는 열차안에서 기쁨에 들떠 재잘대는 나를 정겹게 바라보며 그 모든 물음들에 일일이 대답해주었어요.

《그래, 바다는 넓고넓단다. 거기엔 반짝이는 등대두 있어. 우리 힘들어두 함께 살자.》

거기에도 소년회관이 있구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단다. 아마 재간좋은 네가 가면 모두 기뻐할게다.》

무엇인가 끝없는 행복이 약속되어있는듯싶은 때일을 그리며 나는 하루낮, 하루밤을 달리고달려 아버지가 나서자라난 바다가도시로 오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역전에 도착했을 때 번덕스러운 해안의 날씨는 난데없는 비구름을 몰아왔어요.

어머니는 자기의 커다란 비옷을 꺼내어 내게 씌워주면서 역전간이식당앞에 앉혀놓고 당부하는것이였어요.

《너 꼼짝말고 여기 앉아있어야 해. 내 가서 전화하고 올테니. 아버지가 마중나오겠다구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간이식당의 좁은 채양아래 쪼그리고앉아 차마에서 떨어지는 비방울들을 두손에 받아들며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조금후에 식당앞도로 건너편에 반집차 한대가 몇더니 키가 큰 사람이 하나 내려 사방을 둘러보는게 아니겠어요.

아버지였어요. 난 비옷이 벗겨지는것도 못 느끼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여기예요, 여기!》

아버지는 돌아보았어요. 그리고는 차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으로 무작정 뛰어들려다 교통보안원의 호각소리에 그만 뒤로 물러섰답니다.

몹시 흥분된 아버지는 오히려 나를 보고 《애, 덤비지 말아. 저기 건늬길이 있다. 저기루 오너라.》 하고 소리치며 허둥지둥 달려갔어요.

건늬길까지 가는 길이 왜 그리도 길게 느껴지던지... 아버지는 막 달려와서 나를 그리안았어요.

《아버진 널 보구와 혼났다.》

길가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장대한 사나이가 어린애를 안고 울고웃는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더군요. 어느새 달려온 어머니도 곁에 서서 그러는 아버지를 바

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와 애는 운전칸에 태우십시오.》

마음좋은 운전사가 이렇게 권했지만 나는 고집스레 아버지의 팔에 매달렸어요.

《난 아버지, 어머니하구 함께 갈래요.》

아버지는 운전사를 향해 미소를 지어보이더니 나를 번쩍 안아 자그마한 적재함에 올려놓았어요.

《그래, 우리 셋이 함께 가자. 운전사동무, 우린 적재함에 타고가겠소.》

차거운 비방울이 불을 적셨지만 한비옷속에 앉은 우리의 마음은 마냥 즐거웠고 불을 안은듯 후덥기만 했어요.

《참, 은아가 기찰 타구 오면서 당신한테 꼭 하겠다던 말이 있어요.》

문득 아버지쪽에 비옷을 밀어주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뭘데?》

《일없다. 어서 말하렴.》

어머니가 무춤거리는 나를 바라보며 고무하듯 미소를 지어보여야 나는 아버지의 귀가에 입술을 눌러 붙이고 누가 듣기라도 하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거렸습니다.

《잘 때도 난 아버지, 엄마가운데 꼭 끼워서 잘래야. 한팔은 아버지한테 올려놓구 한팔은 엄말 꼭 안구...》

《?!》

무슨 큰 소원이라도 말할줄 알고 귀를 강구던 아버지는 그만 목이 메여오는지 길쭉한 외까풀눈을 슬쩍거리며 아무말없이 나를 바라보지만 하시더군요. 이윽고 아버지는 부스르르릴듯 나를 꼭 그리안고 속삭였어요.

《그러려무나.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아, 그날의 행복에 겨운 봄비...

아마도 그 봄비는 사랑과 행복의 시내물이 되어 우리의 가슴마다에 유정하게 흘렀겠지요. ...

처녀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더니 흰눈송이같은 손수건을 꺼내어 눈썹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다.

오늘따라 처녀는 류달리 아름다웠다. 여운이 강한 그 이야기때문일까?

야릇한 흥분에 잠겨 은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우는 이 매혹적인 처녀의 사연많은 어린시절을 머리속에 그려보려고 애썼다.

《... 그렇듯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있던 저였으니 어떻게 쉬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바닥을 알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이 가정의 울타리속에 갇힌 사랑이 아니었음을 제가 깨닫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처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좀 뒤떨어져 걷고있던 정우를 돌아보았다.

《너무 이야기가 길었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서 동무에게 이렇듯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는지. ...》

눈물에 젖겨 더욱 맑아진듯싶은 그의 눈동자에는 자기의 마음속 비밀을 너무 쉽게 터놓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와 함께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소중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정우에게 하였다는 놀라움이 비껴있었다.

그 착잡한 심정을 읽은 정우는 더이상 이야기를 재촉할수 없음을 깨닫고 혼연히 웃어보였다.

《미안하요. 늦게까지 잡아두어서... 식사시간이 늦기전에 어서 기숙사에 가보요.》

《안녕히 가세요.》

은아를 보내고나서도 정우는 선뜻 발걸음을 뗄수 없었다.

은아... 헤쳐보면 그 종주먹처럼 자그마할 너의 심장속에 그리도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이 고이 간직되어있었던 말인가. ...

그는 뺨스를 탈 생각조차 잊은채 이윽도록 밤거리를 거닐며 은아와 함께 지내온 대학시절의 즐거웠던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어느해 대학창립절을 맞으며 학부축구팀을 이끌고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했던 정우의 가슴은 류다른 기쁨과 흥분으로 높뛰고있었다.

결승전에서 아쉽게 눈먼 꼴을 먹기는 했지만 십여개나 되는 학부들간의 격렬한 《대결》에서 2등이면 대단한것이어서 학부에서는 그들을 영웅처럼 떠받들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설레이게 한것은 《영웅》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줄 임무가 다름아닌 은아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은아와 같은 학급은 아니었지만 비상한 두뇌와 놀랄만 한 정열로 하여 학우들의 사랑을 받는 처녀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곤 했었다.

견줄수 없는 아득한 높이에 서있는듯 늘 올려다보기만 하던 처녀에게서 축하의 꽃다발을 받는다것은 참 기분좋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는 《영웅》답게 가슴을 쪽 찢고 뒤흔들면 더 의젓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물론 꽃다발을 안겨주며 존경어린 마음을 감추지 못할 처녀에게 어떻게 답례를 해야 할 것인가도 심중히 생각해보았다.

귀여운 쌍겹눈을 깜박이며 처녀는 미소짓는다.

《동문 정말 대단해요.》

달콤한 공상에 잠겨 스르르 눈을 감았던 정우는 돌연 응원석과 선수들속에서 터져나오는 찬탄인지 놀라움인지 모를 목소리에 꿈에서 깨어났다.

글쎄 시상대앞으로 나온 처녀는 곧바로 정우를 지나쳐 1등을 한 상대팀 주장청년에게 그 꽃다발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아찔다운 처녀의 돌발적인 행동에 뻔해진 그 청년에게 미소를 지어보인 은아는 비난이 가득 실린 눈길을 들어 힐끗 정우를 올려다보더니 인츰 두눈을 내리깔고 충충히 돌아가버렸다.

말없는 질책이었으나 정우는 예리한 비수에 찔린 듯 지그시 아파나는 가슴을 가까스로 달래며 처녀의 뒤모습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꿈은 깨어졌다. 산산이 깨어져나간 그만큼 그 조각들은 더 예리했다.

이날의 사건은 사람들속에서 은아에 대한 구구한 논란을 한달동안이나 불러일으켰다.

《거만하기란... 술한 사람들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다니.》

정우의 친구들도 이구동성으로 격분을 금치 못했으나 모욕을 받은 그자신은 모든 험담에 대해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그만해. 꽃다발은 승리자만이 받을수 있는거야.》

며칠후 정우는 크게 마음 먹고 은아의 교실로 찾아갔다.

《고맙쥬소. 동무가 그날 아량을 베풀어 꽃다발을 줬더라면 난 거기에 위안을 얻고 그이상 높이 오를 생각을 못했을거요.》

진정어린 정우의 고백앞에 처녀는 몸둘바를 몰라했다.

《그렇게 생각해주니 제가 도리어 고맙군요.》

정우를 미덥게 바라보는 처녀의 눈빛은 티없이 맑고 깨끗했다.

둘은 뜻으로 맺어진 친우가 되었다.

룡산산의 술푸른 언덕과 도서관의 불밝은 창가에서 서로 채찍질하고 손잡아 이끌어주며 탐구의 먼길을 함께 가는 그들의 열띤 논쟁의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차 그들을 색다른 눈길로 보게 되었다.

《두사람이 꼭 한틀에 찍어낸것 같은걸?》

《열정적인 성격에서나 순결한 마음으로 보나 참 잘 어울려.》

그 말들은 어느결엔가 정우와 은아의 귀에도 들리지 않을수가 없었으며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 웃음으로 넘겨보내곤 하던 그들 역시 차츰 사람들의 이야기속에 자신들의 위치를 세워보기도 하였다.

하어 그들사이에는 날이 감에 따라 어색한 침묵이 흐르게 되었으나 마음속으로는 무언의 공감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두터이 하여왔던 것이었다.

잊지 못할 그 나날들을 돌이켜보는 정우의 마음은 앞으로 있게 될 작별이라는 부인할수 없는 현실로 하여 더더욱 괴로웠다.

늦어서야 집에 들어서니 기다리다못해 마중갈 차비를 하던 어머니가 달려나오고 친정나들이를 온 만누이가 반색을 하며 옷을 벗겨준다, 저녁을 차려준다 법석을 피웠다.

수많은 독자들을 단 한편의 시로써 울리기도 하고 심장을 뚫이게도 하는 몇쟁이 청년시인이 일단 집에 들어서서는 외출 한번 제멋대로 할수 없는 응석받이 외아들이라는것을 그의 시에 매혹된 녀학생들이 안다면 아마 배를 그리워하고 웃을것이다.

하지만 놀라움게도 정우자신은 단 한번도 그 눈먼사랑에서 벗어나보려 한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 행복한 《구속》을 웅당한것으로 여기고 순순히 복종해온 사실을 그는 이 저녁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정우에게 저녁을 차려준 만누이는 식탁옆에 붙어앉아 자기가 꾸려가지고 온 색다른 음식들을 이것저것 집어 밥그릇우에 덧놓아주며 살뜰한 정을 기울였다.

《그래 졸업하면 이름있는 창작기관에 배치된다지? 난 정말 성공했구나.》

정우는 별로 웅대할 기분이 나지 않아 묵묵히 숟가락만 놀릴뿐이었다.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은게로구나.》

안락의자에 까치다리를 하고앉아 흥얼거리며 책을 읽던 동생 정혜가 얼른 그들의 대화에 끼여들었다.

《오빨 좀 놔두라요. 지금 고민중인데...》

같은 학부의 아래학년에서 공부하는 정혜도 오늘 은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야릇한 암시가 담긴 눈길로 정우를 바라보며 얄밋게 활기죽거리는 것이었다.

정우는 그만 마음이 언짢아 수저를 놓아버렸다.

《무슨 고민 말이냐?》

만누이의 환한 얼굴에 일순 의혹의 그림자가 비껴가고 설겅이를 하던 어머니까지 놀라서 방안을 들여다보

았다.

《은아언니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으니깐요.》

《그럼 그 처녀가 어딜 간단던?》

이미 정혜의 말을 통해 은아에 대한 아들의 남다른 태도를 은근히 감추고있던 어머니가 불안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모르긴 하겠지만 지방에 현실체험을 가겠다구 했다더군요.》

오빠의 무거운 침묵이 두려웠던지 정혜는 한풀 죽어든 목소리로 말꼬리를 사렸으나 그 대답은 순간에 온 집안을 엄숙한 분위기로 전환시키기에는 족했다.

어색한 침묵의 한순간이 지나가자 만누이가 외교관의 부인답게 아름다운 얼굴에 꾸며낸 미소를 띄워올리며 분위기를 해소시키려 했다.

《됐다, 친구들사이에 서로 헤어질수도 있는거지 뭐. 사람마다 제 갈길이 따로 정해져있는거니까.》

《친구》라는 단어에 력점을 찍어 남동생이 은아라는 처녀와 그 어떤 남다른 관계도 아님을 강조하려는 누이의 약바른 속심을 쓰겁게 읽으며 정우는 자기에게 집중된 불안과 기대의 눈길들을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고요한 어둠속에 홀로 남자 울고싶을 정도로 애끓는 안타까움이 그의 가슴을 마구 헤집어댔다.

(어떻게 하면 좋을가? 누이의 말처럼 친구로서만 좋게 기억해두고 미련없이 헤어지는것이 마음편하지 않을가? 아니, 그건 자신을 속이는거야. 사랑도 유리한 조건에 따라 택하는 인간이라면 정우, 네가 앞으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정의와 사랑, 의리—이러한 것들은 모두 결발된 위선으로 되고말것이 아닌가.)

그는 흥분으로 달아오르는 이마를 싸쥐고 불을 켜 생각도 잊은채 꼼짝않고 침대우에 앉아있었다.

《사람마다 제 갈길이 따로 정해져 있는거니까.》하던 누이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맴돌며 떠날줄을 몰랐다.

갈길이 따로 있다고? 하다면 가장 어렵던 나날 수도를 떠나 낯설은 북방으로 갔던 은아의 부모들이나 그들의 뜻을 이어가려는 은아에게는 남들이 선뜻 걷기 저어하는 그 헌신의 길이 숙명으로 주어졌단 말인가?

만누이나 정혜 그리고 지금껏 사내로서 집울타리조차 나서보지 못한 정우자신에게는 그들의 헌신과 피땀이 하등의 인연도 없는 《남의 일》이며 오직 그 그늘 밑에서 안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만이 있단 말인가?

정우는 지금껏 자기를 둘러싸고있던 행복의 울타리— 찬바람 한점 스며들지 않았던 안온하고 든든한 갑이 여지없이 깨어져나감을 절감했다.

량심을 사정없이 파헤쳐대는 피로움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한잠도 잘수 없었다.

처녀는 또다시 자기앞에 나타난 청년을 놀랍게 쳐다보았다.

하루밤을 뜬눈으로 새운탓에 벌겋게 충혈진 눈이 간절한 기대와 물리칠수 없는 그 어떤 강렬한 힘을 안고 은아를 바라보고있었다.

《난... 어제 저녁의 그 이야기를 마저 듣고싶어 찾아왔소. 그러기 전에 도무지 진정할수가 없어서 무례한줄 알면서도 이른새벽부터 이렇게... 용서하오.》

처녀는 열정적이며 다소 무분별하게까지 보이는 청년의 이러한 흥분이 두렵기도 했으나 짐짓 미소를 지으며 그를 중태보려 했다.

《제 이야기가... 무척 흥미있던가보지요?》

《아니요!》

정우는 거의 소리치다싶이 처녀의 말을 부정했다.

《난 흥미거리로나 듣자는것이 아니요. 동무의 이야기가... 아니, 이 말은 그만둡시다.》

처녀는 순간이나마 정우를 노엽힌것을 사죄하듯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그들은 동녘하늘 한귀퉁이가 푸릿하게 들리우기 시작한 대동강기슭을 걷기 시작했다.

바다는 열지 않는다

전 바다를 사랑한답니다. 무엇때문인가구요?

바다는 거세지요. 한없이 평온하고 잔잔하다가도 격랑을 일으키며 설레이는 그 모습은 꼭 온몸에 약동하는 사랑의 열정을 누를길없어 몸부림치는 거대한 사나이와도 같아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무색케 한답니다. 하기에 때론 드세차고 거치르지만 그 품에 한번 몸을 잠근 사람은 거창하게 들끓는 사랑의 도가니속에서 그와 같이 넘치는 사랑으로 온몸을 불태우게 되지요.

하지만 집을 떠나려고 결심하기까지 제가 그리도 소중한 그와 같이 애써 지켜보려고 한 사랑은 작은 시내물에 불과했답니다. ...

내가 돌격대탄원에서도 제외되었고 대학에도 가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무척 서운해하셨어요.

《제가 가버리면 아버지 혼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난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일할래요. 아버지랑 함께... 좋

지요?》

나는 속이 조마조마했지만 태연한체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버지를 위안했습니다.

그 일로 해서 아버지와 나사이에 얼마동안 어성버성한 간격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출현으로 하여 씻은듯이 사라졌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은아 어머님 이런 먼곳으로 데려와서 고생만 시키다가 먼저 보내구... 정말 부모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분들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는 아버지의 등을 두드려주며 외할아버지는 용케 눈물을 참아내시더군요.

《그런 말 말게. 은아 에미야 깨끗하게 살다 가지 않았다. 그걸 고생이라 한다면 간 사람에게 죄되네. 되려 우리가 좀더 빨리 와서 도와주었더라면 자네가 고생을 덜 했을걸... 이제야 온걸 용서하라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퍼그나 오래 놀러계시면서 올라가며 창문을 손질하기도 하고 오래동안 주인의 손이 미치지 않아 영성하기 짝이 없는 터밭도 말끔히 정리해주셨어요. 아무리 쉬시라고 해도 우리를 하나라도 돕고싶은 마음에 잠시도 일손을 멈추지 않으시더군요.

그러던 어느날 할머니는 저녁 늦게 들어와 식사를 하는 아버지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히 말을 꺼내시는것이였어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온건 은아문제때문이네. 은아를 어떻게 하려나? 우리한테 맡겨두면 어떨런지. ...》

아버지는 할머니가 차마 꺼내지 못한 뒤말을 넘겨짚고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른 녀자라두 또 데려올가봐 그러십니까? 제겐 그저 은아 엄마 하나뿐입니다. 은아는 제게 맡겨두십시오. 제가 그 애 엄마의 소원대로 잘 키울테니...》

《듣자니 은아가 돌격대란원에 빠졌다구 서운해한다는데... 꼭 그래야만 되겠나?》

그러자 아버지는 뜨던 밥술을 놓고 정색해서 할머니와 마주앉으셨어요.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다만 제 동무들은 다들 힘든 곳으로 자원해가는데 사사로운 집일때문에 발걸음을 저어하니 그게 걱정돼서 그렇니다. 그런 나약한 생각을 가지고는 어디 가도 사람구실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애아버지생각이 그렇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시더군요.

《은아 애비, 의기를 잃지 말구 제가 택한 길을 끝까지 가게. 은아를 맡기고가니 자네가 애엄마가 살아온 그 모양대루 곧바로 키워주게나.》

그분들의 출현은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바다처럼 억세게 키우려는 생각을 더 굳게 가지도록 해준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내 결심을 굽히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아버지를 잘 돌봐드리는데만 더 극성을 부렸답니다.

그러는 나를 두고 아버지는 몹시 피로와하셨어요.

《너 끝내 아버지때문에 발목을 잡힐셈이냐? 네가 정그러면 아버지도 생각이 있다.》

나는 간절히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을 애써 피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집문을 열다가 뜻밖의 광경에 놀라 문가에 굳어졌어요.

어린 아이 하나가 좋아라 방안을 뛰어다니고있었고 그결에서는 낯선 녀인이 바느질을 하고있었던겁니다.

《이건 우리 집인데...》

《너 그럼 기사장동지 딸이로구나. 아버지인 이 집을 우리한테 내주고 당비서동지네 집으로 가셨단다.》

순간 얼음물을 들쓴듯 온몸의 피가 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당황한 녀인의 부름을 등뒤로 흘리며 돌아섰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생각하고있었다던것이란...

나는 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고까움으로 하여 추운 바다가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나의 심장속에서 교묘히 타오르던 등불은 그것으로써 꺼져버린듯싶었어요.

《너 정말 갈래?》

지성은 내 가방을 메고 뒤따라오며 걱정스럽게 되물었어요.

《그래, 외할머니한테 가구말테야. 아버지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

《아버지야 널 고생시키지 않으려구 그랬지 뭐. 은아, 이제라두 맘을 고쳐먹어. 네가 이렇게 떠난걸 알면 아버지가 얼마나 피로워하시겠니?》

그러나 나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지성의 손에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아니, 난 아버지질 생각해서 대학두 그만두려고 했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싶었던거야. 현

데 아버진...》

나는 늘 목에 걸고다니던 열쇠를 벗어 빨간 땡기만 풀어 주머니에 넣고는 멍그렁 남은 열쇠를 지성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걸 우리 아버지한테 전해줘. 그럼 잘 있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히 걸어갔습니다. 어머니의 그 빨간 땡기에 열쇠를 매달아주며 나에게는 너 하나뿐이라던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하여 등불이 되고 따뜻한 열이 되어달라던 아버지가 아니었던가요.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언젠가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를 마중나왔던 역전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따라 보슬비가 내리고있었어요.

《은아야!》 하고 나를 찾는 귀익은 목소리에 나는 기다림만 창문을 내다보았어요.

아버지가 당비서할아버지와 함께 역앞을 허둥지둥 돌아다니며 나를 찾고있더군요.

나는 얼른 사람들이 몰려있는쪽으로 가서 몸을 숨기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무척 초조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여기저기를 헤매던 아버지는 그만 누군가의 손집에 걸쳐어 차곡차곡 쌓아놓은 짐작들을 와르르 무너뜨렸어요.

《앞을 좀 보구 다니오.》

함경도특유의 무뚝뚝하고 청높은 여인의 목소리가 아버지를 질책했습니다.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아버지는 거듭거듭 사죄하며 집을 다시 쌓아주었어요. 그러는 모습을 지켜보는 나의 눈앞에 잊지 못할 간이식당의 비좁은 처마가 안겨왔습니다.

정신없이 건늬걸을 달려와 나를 그러안던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금시 눈앞에 보이는듯 하여 나는 눈을 감아버렸어요.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 달아오른 뺨으로 흘러내리던 그날의 봄비...

그런 아버지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더 견딜수 없어 밖으로 달려나갔답니다.

《할아버지!》

나는 여전히 나를 찾아다니는 당비서할아버지앞에 나섰습니다.

《너 왜 이렇게 속을 태우니? 너희 아버지가 심장이 터지는걸 보자구 그래? 어쨌든 찾았으니 됐다. 아버지한테 가자.》

할아버지가 손목을 잡아끌었으나 나는 아버지앞에 차마 나설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나를 보고 할아버지는 생각을 고쳐한듯 역전광장에 세워둔 승용차를 손짓해부

르더니 거기에 나를 태우시더군요.

《먼저 집에 가있거라. 내 아버질 찾아가지구 따라갈테니...》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니 속이 새까매서 기다리고있던 교장선생님과 지성이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나를 맞아들여서는 밥을 차린다, 이불을 퍼준다 하며 극성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래목에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나는 잠들수 없었어요. 이윽고 두런두런 말소리가 울리더니 당비서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나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척 하였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나의 이마를 오래도록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손이라는걸 보지 않고도 알수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목도리를 벗어 나를 따뜻이 감싸주시던 아버지의 손, 자신을 위해선 작은 일 한번 해본적 없고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굶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던 손, 이 딸의 성장의 자옥자옥들이 한줄기한줄기의 깊은 주름을 새겨놓은 장알박힌 손, 그 손을 내가 어찌 모를수 있겠어요.

나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벽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워버렸답니다.

《은아 아버지가 너무했네. 그 어린게 아버지질 위하겠다구 그리두 마음쓰는데 그렇게 아픈 곳을 박다니. ...》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조용했으나 아버지는 어린시절 그앞에서 꾸지람을 들던 중학생처럼 머리를 숙이고 잠자코 계실뿐이었어요.

(아니예요, 아버진 그런분이 아니예요.) 하고 나는 웨치고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깊은 숨을 내쉬더니 돌연 젖어든 눈길을 들어 선생님을 바라보시더군요.

《선생님, 이 애를 품에 끼구 함께 있고싶은 마음으로 말하면 제가 오죽한줄 아십니까? 그 애가 펴 어렸을적에... 제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 제 엄마가 먼저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면 그 앤 울음을 터뜨리며 때를 쓰곤 했지요. 그 성화에 제가 옷을 다시 입고 밖으로 나가 문을 두드리며 은아를 찾으면 옷소매로 눈물, 코물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뛰어나와 제 손으로 아버지한테 문을 열어주고야 투정질을 그치곤 했습니다. ...》

나 자신의 기억속에도 삭막해져버렸으나 아버지의 가슴속에는 그리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된 어릴적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세차게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답니다.

아버지는 더이상 말쑤이 없으시더니 일어나 어디론가 나가려 하셨어요.

《아니, 이 밤중에 어딜 가려구?》

《제 항에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는 피로운 마음을 달래려고 나가시려는 것이었어요.

《어보, 아무래도 저녁을 좀 싸주오. 저 사람이 오늘 하루종일 아무것도 입에 못 댔을거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항으로 나가려는 당비서할 아버지의 손에서 밥보자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너 안 자겠니?》

《...할아버지, 제가 가져다드리겠어요.》

《그래라, 아버지가 그럼 좋아할게다.》

밤이었으나 항구는 활기로웠답니다.

짐을 싣고 부리우는 아찔하게 높은 기둥기둥이 긴팔을 휘두르며 이밤의 교향악을 지휘하는듯싶었어요. 집채같은 선박들의 휘황한 불빛이 하나의 작은 도시를 방불케 하는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를 찾아다녔어요.

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간 방파제우에 아름답게 빛나는 등대탑아래서 나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난밤 파도에 깨어져나간모양 귀퉁이가 허물어진 방파제의 끝머리에서 균렬된 콘크리트조각들을 함마로 까내고있었어요.

나는 선뜻 다가갈념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있었습니다.

그만에야 아버지가 헛메질을 하며 넘어지는 바람에 나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발등을 다쳤는지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나시더군요.

《아버지, 아프나?》

나는 먼지물은 아버지의 로동화를 어루만지며 눈물젖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없다. 원, 자식두...》

《밥을 가져왔어요. 어서 저녁을 드세요.》

나는 보자기를 펴고 저녁식사를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는 나를 정겹게 바라보시더니 회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네가 저녁밥을 가지고 나온걸 보니 네 엄마 생각이 나는구나. 처음 여기루 왔을 때 우린 늘 점심을 못싸가지고 다녔단다. 나라가 몹시 어려운 때였으니까. 그래서 점심이면 늘 둘이서 이 방파제에 나와 배고픔을 잊으려고 이야기랑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지. 하지만 엄만 언제한번 힘들다는 말없이 오히려 내게 힘을 주느라 밝게 웃곤 했단다.》

어머니의 정다운 얼굴이 선히 어려오는듯 아버지

는 파도설레이는 밤바다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더군요.

《하지만 네 엄마도 단 하나 견디기 어려워하는게 있었다.》

《그게 뭔데요?》

어느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퇴근해오던 어머니는 가까운 구내마을에서 어떤 여인이 《은아야!》 하고 자기 아이를 찾는 소리에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대요. 귀엽게 생긴 내포태의 처녀애가 제 엄마를 향해 짱충거리며 뛰어가는 모습을 보자 어머니는 정신없이 그 애한테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영문을 알아차리고 손을 잡아끌었으나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너무도 네 생각에 옴했던 나머지 엄만 그만 착각을 해서 그 애한테로 반갑게 달려갔지만 놀라서 쳐다보는 그 애의 눈길앞에서 자기 실수를 깨닫고는 한참이나 그 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더구나.》

아버지는 그때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해주었대요.

《그만하오. 나때문에 당신이... 어린애를 떼두고왔으니 엄마의 마음이 오죽하겠소?》

《미안해요. 다른건 다 이겨낼수 있는데 은아를 보구 싶은것만은 못 참겠군요. 이젠 그 앨 데려오자요. 그 애를 데려오면 힘이 날것 같아요.》

잊지 못할 그날을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애모쁜 정으로 하여 한껏 젖어있었습니다.

《그렇게두 널 끝없이 사랑한 엄마가 왜 어린 너까지 천리밖에 떼어두고 이 멀고 험한 곳으로 왔겠니? 시련을 겪는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오늘날만 아니라 먼 래일에두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걸 믿었기때문이 아닐가? 자기 자식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어렵던 날에 수많은 어머니들을 그리도 강한 녀인들로 되게 했구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참다운 애국자로 만든거란다.》

등대에 비쳐지는 밤바다도 쉽없이 설레이며 쇠쇠 목메인 소리로 그날을 속삭여주는듯싶었습니다.

《이 등대를 보렴. 그 어떤 폭풍에도 꺼지지 않는 이 불빛이 있어 배들은 어디서든 어머니대지의 숨결을 느끼며 자기의 항로를 곧바로 갈수 있단다. 난 네게 엄마가 지퍼두고간 사랑의 불을 변함없이 안겨주고싶었다. 헌데 넌 엄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한갓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으로만 받아들였어. 널 작은 시내물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에 세워주고싶었던 그 등대를 작은 등불로 알고있었으니 아버지 그게 서운했다.》

《아버지, 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
고있었어요.》

《은아야, 넌 제 아버지나 엄마만을 생각하는 효녀가
될게 아니라 저 드넓은 바다를 안고살아라. 그제 바로
네 엄마가 나나 너에게 남겨두고간 뜻이 아니겠니?》

잊을수 없는 밤, 그것은 참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나의 작은 심장깊이 등대의 휘황한 불빛으로써, 밤
바다의 세찬 파도로써 아름답게 새겨준 뜻깊은 밤이었
어요.

《붕—》

등대의 아름다운 불빛이 어머니대지의 눈빛처럼 반
짝이며 어서 오라 부르는 항구를 향해 배들은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것이였습니다.

내자신 크나큰 바다가 된듯 한 환희의 감정에 싸여 나
는 항구로 돌아오는 배를 향해 손을 저어주었어요.

바야흐로 동이 트기 시작한 이 땅은 지평선을 불
태우는 노을속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담아 자기의 품
으로 달려오는 배들을 반기고있었습니다.

어서 오라, 추위와 눈보라속에서도 따뜻한 사랑이 넘
쳐흐르는 나의 품, 어머니의 품으로. …

《대학으로 가겠단 말이지. 돌격대로 가는 네 동무들
에게 미안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항으로 찾아온 나에게 물으셨어요.

《아니예요. 아버지, 전 선생님들과 동무들이 단지
어머니를 잃은 나를 동정해서 대학으로 떠미는거라
고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전 그 마음들에 공부를 잘해서 꼭 보답하겠
어요. 아버지진 절 믿지요?》

《용타, 아버지진 기쁘구나. 엄마도 이걸 알면 기뻐할
거다.》

나를 꼭 안은 아버지의 눈가에는 행복에 겨운 눈
물이 맺혀있었습니다.

출 항

이렇게 전 협곡의 작은 시내물에서 벗어나 사랑의 거
대한 바다에 큰 뜻을 펼쳤답니다.

시내물이 흐르고흐르느라엔 언제든지 바다의 품에 안
기듯이 참된 사랑속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다
처럼 크나큰 사랑을 지니기마련이지요.

제가 대학으로 떠나던 날 당비서할아버지랑 많은 사
람들이 저를 배래주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열차가 떠

날 림박해야 급히 달려오셨는데 글썽 그날 돌격대로 떠
나는 동무들이 제게 쓴 편지들을 가져오느라 늦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학급의 스물두명 동무들이 정성껏 써보낸 스물두
통의 편지…

《은아야, 우리 뭇까지 합쳐 공부를 잘해.》

《우린 널 돌격대의 명예대원으로 등록하겠어. 부디
우릴 잊지 말아.》

《앞날의 녀류시인이 될 은아! 신문과 텔레비존에서
너의 노래가 울릴 때면 멀리서 우리 동무들이 그 노래
를 들으며 제일 기뻐할거야.》

이렇듯 고마운 사랑들에 떠받들려 청춘의 기슭을 떠
난 나의 배는 그 사랑들이 물결이 되고 바람이 되
여 희망의 돛목을 날리며 곧바른 항로만을 따라왔
어요. 그 항로에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시련이 앞을 막아나설 때마다 거치른 암초도 두렵
없이 헤쳐가도록 나를 떠밀어준것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당비서할아버지와 지성이네들의 기대와 사
랑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겨울에도 춥지 않았고 돌도 소화시킨
다는 한창나이에도 배고픈줄을 몰랐답니다.

남들이 즐겁게 놀고 단잠에 빠져있는 그런 순간에조
차 책과 함께 한밤을 지새울수 있게 한 그 힘도 구경
에는 그들의 사랑에 뿌리를 둔것이였습니다. 그 힘
으로 전 대학에 와서 불과 반년만에 첫 작품을 성공하
고 뽕뽕한 마음으로 방학을 갈수 있었어요.

《정말 용타. 자식이야 이런 멋에 키우지.》

아버지는 글썽 다 큰 나를 업고 온 방안을 돌아가시
더니 마당에까지 나가려는게 아니겠어요.

저녁에 아버지진 또다시 밤일을 나가며 못내 미안한듯
내게 량해를 구하셨어요.

《네가 첫 방학을 왔는데 아버지진 또 나가야겠구나.》

《아버진 여전하시군요.》

나는 아버지를 따라나섰답니다.

《제가 배래드릴게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절 매일 학
교에 데려다주시던것처럼…》

《그렇것없이 창문을 열고 손풍금이나 타려무나. 네
손풍금소리를 들어본지도 오랜데… 그럼 아버지진 그 노
래 들으면서 저 언덕을 넘겠다.》

나는 창가에 서서 손풍금을 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즐겨부르던 아름다운 노
래들…

(아버지, 전 알았어요. 우린 비록 떨어져있지만 조국
의 큰집을 지키는 하나의 항로우에 언제나 함께 있

다는걸 말이에요. 우린 영원히 함께 있을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속에 나의 노래가 있고 내 가슴속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한…)

아버지는 그때 등대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언덕 위에 올라서고계셨을거예요.

아마도 잠시 멈추어서서 변함없는 사랑의 등불이 타오르는 집,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퍼지는 우리 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을지도 몰라요. 그 불빛을 안고 아버지가 새벽이슬을 밟으며 돌아오실 때면 그 언덕 위에 찬란한 아침해가 떠오르겠지, 그러면 저 바다는 금빛노을로 곱게 물들것이고…

처녀는 그날의 노을을 그려보듯 바야흐로 환희의 아침을 불러오는 대동강의 새벽노을을 애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생활은 어쩌면 이다지도 아름다운것일가요? 전 하루빨리 이 생활의 바다속에 풍덩 뛰어들어 마음껏 나의 노래를 부르고싶어요. 그 어떤 명예심이나 의무감에 앞서 제가 이 길을 택한건 바로 이때문이에요. 나의 사랑은 그걸 가리키고있거든요. 이젠 제가 이 길을 택한 리유를 아셔서 속시원하세요?》

은아는 철부지애들모양 고개를 귀엽게 가웃하며 쾌활한 어조로 정우를 시가של렀다.

《아니, 한가지만 더 알고싶소.》

정우는 불붙는듯 한 시선을 처녀에게 던지며 그의 가까이로 한걸음 다가섰다.

《그래 동무의 그 사랑이 가리키는 곳은 어디요?》

그의 찌르는듯 한 눈빛을 마주한 처녀는 잠시 당황한듯싶더니 미소를 지었다.

《꼭 알아야했다면 대드리지요. 전 백두산으로 가겠어요.》

《!》

순간 정우는 뭐라 이름못할 걱정애 휩싸여 무례하다고 할 정도로 처녀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거기엔 자기들의 뭇까지 공부를 잘해달라고 저를 대학으로 떠밀어준 저의 동무들이 있답니다. 전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짓고싶어요.》

처녀는 정우와 헤어져 물안개 감도는 강기슭을 총총히 걸어갔다. 불타는 아침노을속에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습이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정우는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겨울의 마지막눈이 소리없이 내린다.

아름다운 봄, 온갖 꽃 다투어 피어나 향기를 뿌릴 새 봄을 속삭이며, 약속하며 흰눈은 키높은 건물들의 지붕우에도, 사슴의 뿔같은 가로수아지에도 그리고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의 고깔모자우에도 춤을 추듯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 깨끗한 눈송이를 즐거이 맞으며 걸어오는 두 청년의 모습은 은빛으로 눈부신 이 거리에 류달리 청신한 젊음을 한껏 풍겨주는것이였다.

《전 래일모레 떠나요. 헌데 벌써 바래줄셈인가요?》

그러는 처녀를 정겹게 바라보며 정우는 싱긋 웃음을 지었다.

《동무에게 보여주고싶은것이 있어서. 자, 보오.》

그가 안주머니에서 꺼내주는 종이를 받아들며 처녀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정우를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작별기념으로 시라도 썼나요? 음… 이게 뭘가?》

귀엽게 두눈을 깜빡이며 종이를 펼쳐본 처녀는 폭탄선언이라도 읽은듯 한동안 뚫어지게 그것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눈길을 들었다.

《이건… 진심인가요?》

《진심이요.》

두사람의 눈빛이 강렬한 불꽃을 튀기며 허공중에서 부딪쳤다. 그것은 두 심장을 아름다운 하나의 뼛으로 합쳐주는 격렬한 한순간이였다.

《후회하지 않겠어요?》

정우는 처녀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니, 동무가 함께 있는 한…》

《!》

축복의 꽃보라인양 끝없이 흘날리는 눈, 흰눈…

사람의 한생에는 수많은 출발과 도착이 있지만 그 모든 길은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안고 떠나는 청춘시절의 첫 출발처럼 그렇듯 뜻깊고 소중하지는 못할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청춘시절의 첫 자욱을 어떻게 떼는가에 따라 그 한생이 아름다울수도 혹은 후회와 눈물로 얼룩질수도 있기때문이라.

새벽녘 열차가 사연깊은 그 해안도시를 지날무렵 처녀는 차가 역에 서기도 전부터 안절부절하며 어쩔줄 몰랐다.

《아버지가 역에 나오실가?》

《글쎄요. …》

정우도 은아 못지 않게 흥분되어 열차가 역구내에 들어서기 바쁘게 홈으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렬차가 마지막발차신호를 울릴 때까지 은아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너무 섭섭해마오. 무슨 일이 있겠지.》

처녀를 위로해주면서도 정우자신도 서운함을 금할수 없었다.

은아는 눈물맺힌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 다 알아요. 아버진 자기가 나타나면 내 마음이 약해질가봐 그러실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를 모셔다가 여생을 행복하게 해드리자구 했는데 이렇게 떠나가는 내 마음이 흔들릴가봐 아버진 안 오신거예요.》

렬차가 산골이를 돌아서자 드넓은 바다 한복판에 유

난히 반짝이는 하나의 불빛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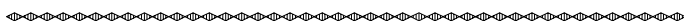
《저 등대요?》

《그래요. 저 불빛아래 아버지가 서계실지도 몰라요. 이 렬차를 바래워 손저어주시면서...》

마음속에 영원히 타오르는 그 사랑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은아는 어디 가서든 가장 아름답고 억세여 지리라는것을 정우는 믿고있었다.

미구에 그의 노래는 백두산을 아니, 온 나라를 아름답게 뒤덮으리라.

등대의 불빛도 저 멀리 사라질무렵 흰눈을 띄이고선 성산의 웅장한 자태가 동이 터오는 하늘가 저 멀리 우렷이 나타났다.



고 지 의 남 새 발

문 선 건

격전이 방금 지나간 고지
타다남은 나무들엔 연기가 피는데
뒤릉선 갱도앞 작은 밭에는
남새가 푸르싱싱 자라고있었네

대대로 농사집 아들이라
전투의 여가마다 나무그루 들춰내고
부식토 그득 깔고 가꾼
고지의 남새밭

부루, 쑥갓, 봄배추
봄빛에 한껏 무르녹은 남새밭

저들만이 아는 말로 다정히 속삭이듯
싱그런 바람결에 살랑대는 남새밭

싸우는 고지의 전사들에게
더운 국을 먹이라신 수령님말씀
가슴에 새길수록 가슴이 뜨거워
어려리별 농민병사 가꾼 남새밭

포화속에서도 싱싱 자라는 고지의 남새밭
그 밭은 고향별과 잇닿아있어
미제가 제아무리 발광하여도
배추 한포기 부루 한알 다치지 못했다네

수 수 께 끼

- ① 둥근 하늘에서 눈 오는것이 무엇?
- ② 뒤로 물러갈수록 이기고 앞으로 나갈수록 지는 싸움이 무엇?
- ③ 때리면 살고 안 때리면 죽는것.
- ④ 밤에는 짐을 지고있다가 낮에는 짐을 부리는것이 무엇?

소설 《축빈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자존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다.》

17세기 재능있는 문인의 한사람이었던 박문빈(1622—1700)은 우리 나라의 재능있는 문인이었다. 관산 박문빈은 당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은거생활을 하다가 생애의 말년에 참봉벼슬을 하였다.

작가의 문집으로는 《관산유고》가 있는데 여기에 소설 《축빈설》(《가난을 쫓은 이야기》)이 실려있다.

소설은 가난을 의인화하여 착취와 약탈을 일삼는 봉건통치배들이 관을 치는 당대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청렴결백한 생활과 의리가 깊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며 따라서 그들을 동정하고 찬양하였으며 사람은 양심을 더럽히고 사는것보다 차라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게 사는것이 깨끗하고 고상하다는 사상적내용을 담고있다.

소설에서는 내용을 이렇게 형상하고있다.

자그마한 시골에 유비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붓으로 밭을 갈고 마음으로 천을 짚으며 벼루로 밥을 먹었다.》(붓을 쟁기삼아 가슴에 엉키고 서린 사연을 글로 적는것을 일삼았다는 뜻.)고 하였다.

유비자는 자기의 가난한 생활에 대하여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려 생각도 못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나보려고 산속에 숨기도 하고 해변가에서 방황하기도 했으나 그럴 때마다 가난은 그가 있는 곳이면 어디건 따라왔다.

하여 어느날 밤중에는 참다못해 가난을 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너에게 물노니 가난아, 너는 왜 나 한사람만 따라다니며 못살게 구느냐. … 내가 너에게서 업신여김을 받은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골수에 사무치게 너를 원망한다. … 나는 장차 너 가난을 잡아 관청에 송사할테다.》

유비자의 이 욕설을 듣고 한참이나 묵묵히 있던 가난이 드디어 자기의 속심을 터놓기 시작했다.

《너는 한가지만 생각하고 두가지는 생각할줄 모르는구나.》

가난은 유비자에게 착취와 약탈, 부귀영화를 일삼는 자들이 득실거리던 옛날부터 뜻이 높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너처럼 험벗고 굶주리며 살았다고 하면서 이

렇게 덧붙여 말했다.

《부귀로 마음을 더럽힐수 없는것이고 가난에서 벗어날수도 없는것이다. 가난은 차라리 굶어죽게 된다 해도 깨끗한 마음을 지키고 붓이며 벼루 등 문방사우(종이, 붓, 먹, 벼루)와 벗을 사귄뿐이다.

…네가 만약 나를 쫓는다면 그후에 너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될것이니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노라. …네가 대바른 사람이 아니라면 네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나는 너를 찾아오지 않을것이다.》

가난의 이 말에 깊은 뜻이 담겨있음을 깨달은 유비자는 생각되는바가 있어 가난을 잡고 《뜻이 있는 말이로구나!… 가난이여, 그대와 일생을 같이하리라.》고 하면서 가난을 떼절있게 대하였다.

작품의 이야기는 그후 가난이 문방사우와 함께 늘 유비자를 따라다니었으므로 이때부터 유비자에게는 다섯 벗이 있었다는것으로 끝난다.

소설에서는 우선 가난을 쫓으려다가 가난을 따르는 가난한 선비인 유비자의 심리변화와 의인화된 주인공 가난의 형상을 통하여 당대 봉건사회에서 깨끗한 마음과 대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부귀공명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이 가난하기마련이라는 사상을 제기하면서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기의 높은 뜻과 깨끗한 마음을 고이 지켜가려는 작가의 립장을 반영하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가난을 면해보려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모지름을 쓰는 가난한 선비 유비자와 재능이 많아도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하며 고생만 하는 주인공 가난의 형상을 통하여 착취와 약탈, 사기와 협잡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것보다 비록 험벗고 굶주려도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사는것이 훨씬 떳떳하다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여기에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동정하고 긍정적인 작가자신의 인도주의사상과 인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여 체 배를 채우는 봉건통치배들의 더러운 생활리면을 날카롭게 단죄한 예리한 비판정신이 뚜렷하게 반영되어있다.

소설 《축빈설》은 이 시기 창작된 단편소설의 예술적기교도 잘 보여준 작품들중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두 인물 다시말하여 가난과 유비자의 대화를 통하여 당대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펼쳐보여주면서 가난을 원망하다가 가난을 벗으로 사귀고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유비자의 내면세계를 굴곡있게 그려낸 특색있는 작품이다.

소설에 등장한 유비자— 사실 그는 작가자신의 모습

이다. 유비자 그 이름자체에 그른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작가는 어질고 뜻이 높고 대바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불합리한 당대 봉건사회에서 가난을 만회해보려는 그자체가 그릇된 생각이라는 사상을 《유비자》라는 이름에 담아 의인화된 인물—가난과 대치시키었던것이다.

소설은 주인공 가난과 유비자의 대화를 재미있게 엮어가면서 두 인물의 심리과정을 극적으로 대조, 교차시

키고 유비자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이며 작품의 주제사상을 명확히 던져주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간결하게 결속하고있다.

작품은 대화체소설로서 사건의 전제를 결말에서 뒤집는 구성상특성을 보이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우리 나라 고전소설에서 형식상 특색있는 소설의 하나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김 학 주

소 개

소설 《정자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인간을 그리든지 자주성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인간의 생활속에서 아름다운것을 찾고 그것을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

1940년대 전반기에 창작된 소설 《정자기》는 리동규〔주체2(1913)—주체39(1950)년〕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1940년대 전반기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시기였다. 현실은 그 모순을 타파하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계급적해방을 이룩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작가들은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력사적사실을 작품에 재현함으로써 식민지사회현실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항거의식을 일정하게 표현하였다. 력사물주제의 창작은 전 시기에 이어 1940년대에도 계속 진행되었으며 일부 《카프》출신 작가들이 이 시기 소설계에 새롭게 등장하여 비교적 현대성이 강하고 사상에술적으로도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몇몇 작가들의 작품은 예술적측면을 내놓고는 별로 의의가 없다.

소설 《정자기》는 실재한 력사적인물인 만적(고려시기 노예폭동지도자)의 형상을 통하여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여나선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훌륭히 재현하였다.

해방전에 발표된 력사물주제소설들의 주되는 특징의 하나는 이름난 력사적인물에 대한 전기적형식을 작품창작의 기본형식으로 취한것이다. 작가는 이와 같은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최하층노비출신의 만적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당시 고조되고있던 인민들의 투쟁현실을 작품에 반영하였다. 이것은 매우 긍정할만 한 일로서 문학사적으로도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더우기 민족개량주의와 자연주의, 예술지상주의의 독소가 력사물주제소설에까지 손을 뻗쳐 민족문학의 순결성을 어지럽히던 그 시기 이와 같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한것은 실로 대담한 시도가 아닐수 없다.

장편소설 《봄》은 온갖 낡은것의 멸망과 새로운것의 승리를 략관적으로 보여주고 예술적으로도 높은 경지에 이른 진보적소설의 대표작이지만 당시 력사물주제소설들이 가지고있던 제한성을 답습한 일련의 약점도 있다. 주인공을 량반계급으로 설정한것이라든가, 19세기말—20세기초의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이 시대의 근본문제로 나선 문제들을 옳게 포착하고 그려보이지 못한것은 이 작품의 치명적결함이 아닐수 없다.

소설 《정자기》는 궁중비화나 귀족관료의 일대기를 그리면서 《객관성》의 미명하에 인민대중의 지향과 의지를 거스르고 현실미화분식의 정신적기틀을 마련하고 저 한 반동적인 소설들에 철저히 대치되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형상한것으로 하여 이 시기 력사물주제소설의 진보성을 확고히 고수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작가는 당시의 엄혹한 현실에도 주저않지 않고 력사물주제소설의 창작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일제식민지통치에 대한 반항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형상을 창조하였다.

작품에 나오는 만적의 형상에는 작가의 이러한 의도가 잘 반영되어있다. 만적은 자기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만 하며 노예의 운명을 숙명적으로 감수하는 무뎌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노비라는 천한 신분속에서도 앞날에 대한 략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아무리 《지엄》한 존재라도 자기의 인격을 짓밟을 때는 주저없이 보복을 안기는 정의롭고 담찬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게 틀렸어. 똥을 팔으래도 상전이 하라면 했지. 우리가 뭐 성명이나 있는 놈일세 말이지. 주체님께 굴은 다 무어냐. 우리에게 굴이 아랑곳이나 말이다. 이

분수 모르는 놈아...)

〈왜, 우리는 글 배우면 못쓴다우. 종노릇하던 사람들도 글 배워가지고 잘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밤낮 요령계만 살판 법 있소.〉...》

레문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그는 타고난 종의 팔자를 그대로 감득하지 않는다. 상전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왜 개, 돼지처럼 천대와 굴욕속에 살아가겠는가. 이것이 바로 그의 남다른 생각이다.

그 누구도 감히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니 생각도 못하던 시기에 노비의 처지에서 벗어나 세상의 주인이 되어보려는 포부를 가진 만적의 형상은 당시 우리 인민들의 반일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앉아서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나 싸우려는 우리 인민의 견결한 저항의식을 일정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이 작품의 사상적지향세계는 당시 다른 역사소설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작가는 또한 이 시기 역사물주제소설창작에서 일반적경향으로 되고있던 전기적형식을 답습하지 않고 주인공의 성격과 그 발전과정, 당시 시대적배경을 집약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생활적계기들을 집중적으로 그

려줌으로써 예술적으로도 비교적 세련된 기교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작가는 민족수난의 그 시기에도 굴함없이 반일애국정신이 구현된 여러편의 우수한 소설들을 창작하여 이 시기 진보적소설가의 한사람으로 작가적 위치를 당당히 차지하였다.

물론 작가는 당시의 시대적조건으로 하여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되지 못한탓에 봉건관료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을 창작한것과 같은 일정한 제한성도 나타내었으나 민족의 모든것이 무참히 짓밟히던 그 암담한 시절에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소개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인민들의 반일애국정신을 높여주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작가는 해방후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비로소 참다운 인생의 길, 진정한 창작의 길을 찾게 되었으며 그 후 생의 최후순간까지 절대적인 수령흥모를 원천으로 한 혁명적신념을 지켜 싸웠으며 이 과정에 단편소설 《눈》, 《그 전날밤》, 《학원》 등 여러편의 우수한 작품들을 남기었다.

림 영 주

우 화

개 와 《 개 》

문 영 철

백악관에 찾아간 명박이
연회장에 나타나
대통령과 부인이 안고있는
애완용개들한테 목걸이 걸어주며
아양떨었네

—참 이 애완용개들은
세상에서 제일 령리하고
불수록 귀엽게 생겼습니다

애완용개들의 코등을 쓸어주며
리명박이 너스레를 떠는데
한 애완용개 명박이 손길이 성가신지
그만 알— 짓으며
명박이 손 물었네

—에이쿠!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던 명박이
애써 아픔을 참으며 웃음지었네

—거참, 미국의 개는 물어도
아프지 않게 무는군요

그 말에 미국대통령과 부인
국회의원들과 장차관들
서로 마주보며 흡족해했네

이때 이 꼴을 지켜보던 한 기자
어이없어 하는 말
—남조선이 통채로
미국의 입에 들어가도
하나도 아픈줄 몰라할
미국의 진짜개로군

수수께끼 답

- | | |
|---------|-------|
| ① 채질하는것 | ③ 팽이 |
| ② 바줄당기기 | ④ 웃걸이 |

품자시

《함정골 양키호박》 대풍들었소

리 영 복

에헤 《호박》 풍년 멋이 있었네
《함정골 양키호박》 이야기 들어나보소
쳐다만 봐도 마음이 상하는 《상심령》 밑에
조양골은 양키를 삼키는 《함정골》이었소
조선전쟁쯤은 《동방구경》 하는셈이라
대포 몇방이면 알아본다 장담하더니
인민군 불벼락에 매부리코가 부러지고
노랑머리 땅우에 툄렁툄렁 락하했다네
간삼봉에 왜놈들이 《호박》 농사 했듯이
《함정골》엔 미제의 《양키호박》 대풍들었소
와 핫하하 정말 통쾌하였네 불만 하였네
미제의 《노랑호박》 데굴데굴 데굴데굴

에헤 《호박》 풍년 멋이 있었네
《함정골 양키호박》 이야기 들어나보소
들어만 가면 살아 못 나온 죽음의 골짜기
《함정골》은 양키가 녹아난 《괴멸골》이었소
정복전쟁에 이골이 난 미군장성놈들
《파도식공격》 이다 피대를 돈구더니
된대맞은 미친개 네탈퍼고 뺨은듯이
와플와플 뿔다가 골바닥에 빠드리켰소
퍼투성이 《미제호박》 눈알빠진 《양키호박》
《함정골》에 털썩털썩 떨어져 쌓여졌다네
와 핫하하 정말 통쾌하였네 불만 하였네
1211고지 골마다 데굴데굴 데굴데굴

에헤 《호박》 풍년 멋이 있었네
《함정골 양키호박》 이야기 들어나보소
재결든 양키의 뺨을 쳐 무릎꿇린 골짜기
《함정골》은 미제가 흰기 든 《패전골》이었소
《북진은 성공》 이다 호통치던 놈들도
《하기공세》 《추기공세》 모조리 박산나
《총공세》 다 《초토화》 다 기엄을 토했건만
악명높은 장성놈들 목대가 달아나고
《정예사단》 《상승사단》 시체를 쌓았으니
《함정골》 그 이야기 오늘도 전해지네
와 핫하하 정말 통쾌하였네 불만 하였네
미제의 《노랑호박》 데굴데굴 데굴데굴

에헤 패일엔 더 멋이 있겠네
결전의 날 《양키호박》 이야긴 더 통쾌하리
무적의 총대숲이 미제를 노려보는 골짜기
《함정골》은 침략자를 매장할 《무덤골》일세
패전으로 수치당한 백악관의 어리석은 놈들
통곡하며 항복한 50년대 교훈을 잊고
미제의 호전광들 분별없고 불길해봐라
이 나라 골짜기는 골짜마다 《함정골》이 돼
양키놈의 씨종자 반반 싹싹 《가을》 할테니
《함정골》엔 더미더미 《양키호박》 쌓여지리라
와 핫하하 정말 통쾌하겠네 불만 하겠네
미제의 《노랑호박》 데굴데굴 데굴데굴